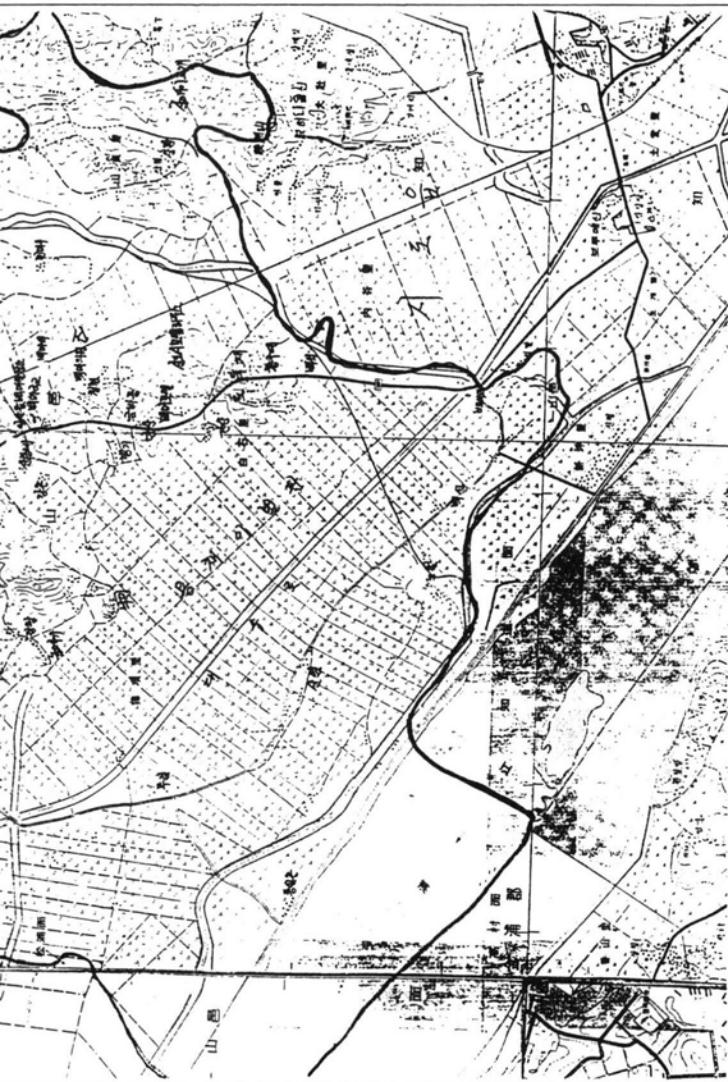


### 3. 일산읍(一山邑)





일산읍은 고양군청이 있는 원당[주교리]을 기준으로 서북쪽에 위치한 행정구역의 명칭이다.

일산읍의 북쪽으로는 파주군 교하면·조리면과 인접하고, 서쪽으로는 송포면, 남쪽으로는 김포군과 그리고 동쪽으로는 원당읍·지도읍·벽제읍과 경계하고 있다.

현재 일산읍은 일산리 13개리, 장항리 6개리, 풍리 3개리, 마두리 5개리, 백석리 6개리, 주엽리 6개리, 탄현리 2개리, 산황리 1개리로 모두 8개 법정리에 42개 행정리로 구분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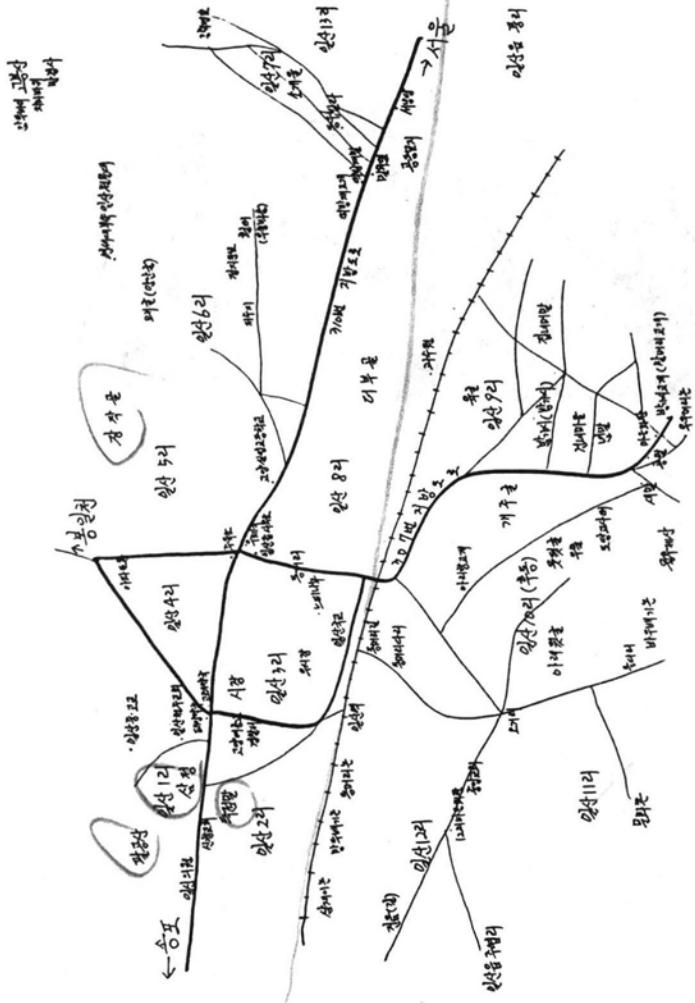
일산읍의 전신인 중면은 1914년 3월 1일 부령 제 111호로 부·군·면 폐합 당시 고양군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하여 중면(中面)이라 부르게 되었으며 1980년 12월 1일 대통령령 제1005호로 읍승격에 따라 읍 소재지인 일산리의 명칭을 따서 일산읍이라 부르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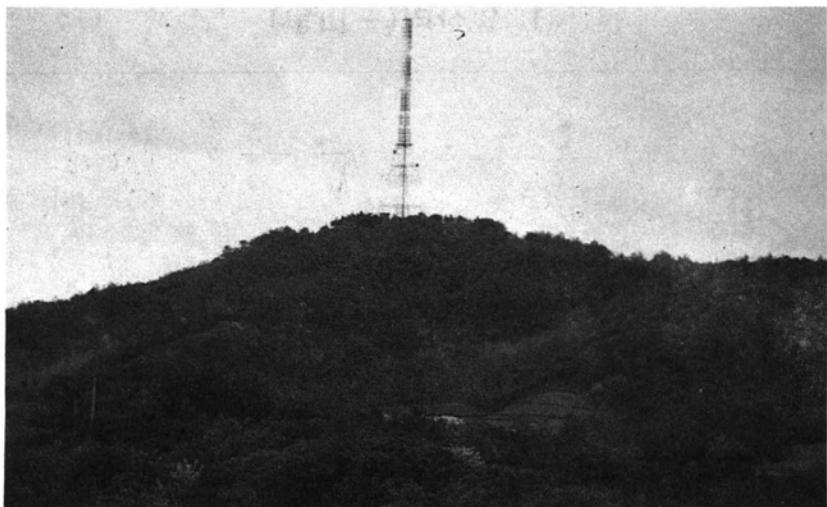
옛 지명은 와동(瓦洞), 또는 와야촌(瓦野村)인데 일제식민지시대에 일본인들이 한민족의 응화·비하 정책의 하나로 의미를 축소시킨 일산(一山)이란 지명을 만든 것이다.

조선(朝鮮) 중종(中宗) 때의 『신증 동국여지승람(新增 東國輿地勝覽)』에 따르면 중면은 “고양현(縣)의 西쪽으로 처음이 15里, 끝이 30里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영조 때의 『고양군지』[李錫禧]에 따르면 중면은 동쪽으로는 구지도면(求知道面)과, 서쪽으로는 사포면(已浦面)과 접하여 있으면서 남쪽에 흐르는 강은 김포(金浦)와 맞닿아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중면에는 저전일패리(楮田一牌里), 후곡촌(後谷村), 주아곡리(舟鴉谷村里), 와야촌(瓦野村), 저전이패리(楮田二牌里), 마두리(馬頭里), 장항리(獐項里), 내곡촌(內谷村), 주엽리(注葉里), 독종촌리(禿宗村里), 풍동리(楓洞里), 식속촌(植谷村), 산황리(山黃里), 석곳촌(石串村), 백석리(白石里), 방기리(方基里), 갈두리(葛頭里), 천초리(泉草里), 도중리(島中里), 상도촌(上島村), 무검촌(無劍村) 등의 마을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지금 일산읍은 급속한 도시화로 제 모습을 잃어가고 있으며 많은 농토와 야산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다. 1989년 일산 신도시 발표로 인해 일산읍 일산리 일부[9, 10, 11, 12리]와 장항리[1, 2], 마두리, 주엽리 모두와, 백석리[6개리중 5리만 제외]가 신도시에 포함되게 되었다. 현재 일산읍 주민들은 신도시에 대한 기대와 고향을 떠나야 하는, 실향의 희비극이 엇갈리는 상태에서 크게 변화되고 있다.

### (1) 일산리(一山里)





일산리의 지명유래가 된 고봉산

일산읍 일산리는 일산읍 읍사무소가 있는 지역의 법정리 명칭으로 일산읍의 여러 마을 중에서 그 면적·인구가 가장 크며 행정, 교통, 상업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일산리의 위치를 살펴보면 일산리의 동쪽으로는 풍리·마두리와 경계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송포면의 대화리·덕이리와 남으로 주엽리·장항리와 북으로는 탄현리·벽제읍 성석리와 경계하고 있다.

1990년 통계로 일산리는 모두 13개 행정리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중에서 일산 9, 10, 11, 12리는 신도시 지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나머지 행정리 마을도 이미 많은 부분이 도시화, 현대화 되고 있다.

현재의 일산리는 일산 사거리(中)을 중심으로 송포면과 금촌·서울·능곡·봉일천 등을 연결해 주는 여러 도로와 경의선이 통과하고 있어 교통의 요지가 되고 있다. 이러한 편리함으로 80년 초 택지개발을 통한 도시화 작업이 추진 되었고 이후 급속히 인구가 유입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큰 변화가 예상되는 곳이다.

일산리라는 명칭이 생겨난 것은 일제식민지시대 때인데 일제가 1904~1905년경에 경의선을 부설할 당시 중면의 면사무소를 백석 4리에서

현재 제일교회가 있는 일산역 부근으로 옮김에 따라 이 지역을 하나의 행정 구역으로 개편하였는데, 새로운 행정구역의 명칭을 송포면 덕이리 한산부락의 고유 명칭인 한메를 따라 일산(一山)이라고 불렀다는 것이다.

또 다른 유래설로는 일산은 곧 고봉산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것을 순수한 우리 명칭으로 바꾸면 “한산”이 된다. 이 한산의 의미는 큰산·높은산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일제식민지시대에 일인 관리들이 우리민족에 대한 비하책의 하나로 한산의 높고, 큰 의미를 일산(一山)으로 뜻을 낫추어 부르게 하였다고 한다. 이후 이곳의 지명을 일산이라 하였으나 본래 이곳의 지명은 와동(瓦洞), 또는 와야촌(瓦野村)이며 일제식민지시대의 개편 때 후곡촌(後谷村)을 합하여 일산으로 개칭하였다고 한다.

## 1) 일산 1리(一山 1里)

일산 1리는 일산 중·고등학교에서 송포면 방향에 있는 마을의 행정리 명칭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그 위치를 소개하면,

일산읍에서 가장 변화한 일산 사거리로 기점으로 금촌 방향 약 200m 가량 걸어가다 보면 일산중·고등학교가 나오는데 이 건물을 기준으로 북서쪽으로는 일산 1리다. 전체적으로 일산 1리는 농경지가 적고 거의 주택과 상업건물로 이루어져 있어 본토박이 주민과 타지방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마을을 이루고 있다.

이곳의 옛 자연지명은 삼정(三井)이며 본래는 논·밭 그리고 작은 야산이 있으나 1980년대부터 도시계획으로 개발되기 시작했다.

1989년 통계로 이 마을에는 372가구 1,406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 ◎ 삼정(三井)

일산 1리는 옛부터 삼재이라고 불리웠다. 원래 삼정(三井)은 세 우물을 뜻하는 것으로서 이 마을에는 우물이 세개가 있었다고 한다. 그 이름은 각각 황새우물, 대동우물, 빨래우물이라 하였는데 먼저 황새우물은 일산읍과 송포면의 경계에 위치했던 논으로 백로[황새]들이 많았고, 그 황새들이 물을 마시는 샘이라 하여 불여진 이름이다. 이 황새우물은 맑기가 명경지수와 같고 깨끗하기가 백옥같아 황새들이 반드시 물을 먹고 갔다하며 그후로 마을 사람들도 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먹었다고 한다. 한편 대동우물은 극심한 가뭄이 들때 마을 장정들이 힘을 모아 마을 우물을 파고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 우물

을 이용하였았는데서 유래되었다. 또 하나 빨래우물은 일산 1리와 2리 경계에 있는 310번 지방도로에서 송포방향에 위치해 있는데, 이곳은 예전부터 햇볕이 잘 들어서 겨울에도 어름이 얼지 못하였다고 한다. 이 우물터는 따로이 우물을 파지 않아도 물을 먹을 수 있어서 동네 사람들이 돌을 주어다 이 샘 주위를 쌓았다고 한다. 마을 아낙네들은 햇빛이 잘드는 샘 주위에 모여 빨래를 하기 시작했으며 이후로 이 우물을 빨래우물이라 불렀던 것이라 한다. 현재는 3개의 우물이 모두 메구어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

### ◎ 정산(井山)

정산은 삼재이[삼정] 마을 정면에 있던 산의 이름으로 지금은 일산 종합 중·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다.

이곳을 정산이라 부르던 것은 일제식민지시대 때 일본인 마쓰이(三井)독점회사에 다니는 일본인들이 많이 거주했다 하여 회사이름 삼정을 따 불렀다는 것이다.

또 이곳에는 1년에 한번씩 산제사를 올리던 것이 유명한데 산제사의 제물은 마을 주민들이 집집마다 쌀을 조금씩 거두어 제사준비를 하고 마을의 안녕을 비는 소지를 올린 뒤 치성으로 제사를 올렸다고 한다. 이 산제사는 약 5년전 부터 중단되었다.

### ◎ 후산(달공산)

후산은 일산리 뒷편 탄현리 부근에 있는 산의 이름으로 산의 위치가 마을 뒷편에 있다 하여 후산이라 부르며 달리 예전에 대보름날 달맞이 하던 산이라 하여 달공산이라 부르기도 한다. 지금의 달공산은 탄현리와 일산리의 경계에 작은 구릉산 모양을 하고 있는데 산이라 하기 보다는 작은 언덕모양으로 변해 버렸다.

#### ● 일산중·고등학교

금촌·일산간 310번 지방도로에서 탄현리 방향에 있는 학교의 이름으로 예전 정산(井山)에 위치하고 있다. 이 학교는 1953년 4월 23일 일산중학교로 개교한 이래 1956년 일산상고가 개교하고 1979년에는 중·고등학교가 분리되었다. 1990년 현재 32회 졸업생을 배출 하였다.

제보자 : 김광한

## 2) 일산 2리(一山 2里)

일산 2리는 앞에서 소개한 일산 1리에서 310번 지방도로 건너편 주엽리 방향에 있는 마을의 행정리 명칭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일산 2리의 위치를 살펴보면 일산역에서 일산축협앞 사거리까지 다시 이곳에서 송포면 방향 일신의원까지의 행정리 명칭이다. 이 마을의 많은 주민들은 6.25때 북쪽에서 피난 온 사람들인데 지금은 1980년 대 초 이 지역이 개발되면서 새로이 이주해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본래 이 마을의 자연촌락 명칭은 독점말인데 1989년 통계로 642가구 2413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 ◎ 독점말

독점말은 일산 2리, 4리의 옛 자연촌락 지명인데 지금은 이 지명에 대한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다. 본래 독점말은 이 마을에 아주 오래 전부터 독을 만드는 공장이 있어 붙여진 지명이다. 이곳의 독은 일제 식민지시대 때에도 경의선 철도로 많은 지역에 운송되었는데 그 종류 도 옹기, 소주장군, 새우젓 독 등 다양했다고 한다.

### ● 고양여자중학교

고양여자중학교는 본래 일산리 마을 공동묘지를 학교에서 매입하여 이곳에 세운 학교인데 고양군 유일의 여자중학교다. 이 학교는 1969년 11월 17일 설립인가를 받고 1970년 3월 5일 개교하였다. 그후 1990년까지 18회 졸업생을 배출했다.

### ● 고양여자고등학교

고양여자고등학교는 1974년 3월 4일에 고양여자상업고등학교로 개교하고 1975년에 고양여자종합고등학교로 개칭하였다. 1990년까지 14회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 ● 고양경찰서

고양경찰서는 1924년 9월 19일 경성부 서대문 경찰서 일산 주재소로 발족하였다. 광복이 되고 1949년 10월 11일 대통령령으로 경기도에 고양경찰서가 설치되면서 6개면 원당·능곡·벽제지서·행주파출소가 고양경찰서로 이관되었다.

## ◎ 구시장

이곳 일산 2리는 옛 우리의 시장 형태이던 장터가 섰던 곳으로 주로 생활필수품의 구입과 농산물의 판매를 그 기능으로 했다고 한다. 이 장터는 경의선이 개통되면서 크게 발달하였다가 현대적인 생활권으로 변화되면서 일산 3리의 새 시장으로 옮겨졌고 장의 모습도 많이 변하였다.

제보자 : 김광한

## 3) 일산 3리(一山 3里)

일산 3리는 앞에서 소개한 일산 2리에서 고양경찰서 앞 도로 건너편 방향에 있는 마을의 행정리 명칭이다.

일산 3리의 옛 지명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약 30~40년전 부터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이곳의 시장은 백석리에 있던 시장이 경의선 철도 건설로



와야촌이 일산리로 바뀔때 생긴 경의선 일산역

인하여 일산역 부근으로 옮겨 오면서부터 지금의 택시 주차장이 있는 사거리에 조그마한 장이 서기 시작했다. 일산국민학교 후문에서 내리막길로 약 50m 내려 오면 공터가 있는데, 그 곳이 옛 우시장이었던 자리다. 지금은 자취를 감춘지 오래고 5일 장만이 상설시장의 틈바구니 속에서 끈끈이 맥을 이어오고 있다. 이곳의 주민들은 대부분 새로 이주해 온 사람들이며 일산 3리는 일산의 상점중심가를 이루고 있다.

현재 일산 3리에는 473가구 1486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제보자 : 일산읍사무소

#### ● 일산역

경의선 일산역은 일산이라는 지명이 새로 생기면서 만들어진 기차역이다.

### 4) 일산 4리(一山 4里)

일산 4리는 앞에서 소개한 일산 3리 시장에서 310번 지방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마을의 행정리 명칭이다.

일산 4리는 북쪽으로 탄현리와 인접해 있고 동쪽으로는 일산 5리와 경계하고 있다. 이곳의 옛 지명은 독점말로 예전에는 일산 2리에서 소개한 독점말과 같은 마을이었다고 한다.

그후 새로 생긴 이름은 천주교 동네인데 이 이름은 이곳에 일산천주교 성당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현재 이 마을도 대부분 현대식 건물들이 들어서 있으며 1989년 통계로 181가구 614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제보자 : 일산읍사무소

### 5) 일산 5리(一山 5里)

일산 5리는 앞에서 소개한 일산 4리에서 원당방면에 있는 마을의 행정리 명칭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그 위치를 소개하면 일산사거리에서 탄현리로 가는 도로가 4리와 일산 5리의 경계가 된다. 사거리에 있는 세개의 약국 중 태양약국까지가 4리이고 고려약국서부터 5리가 된다.

일산 5리의 옛 자연촌락은 지명은 더부골, 장작골이었으나 지금은 지명의 유래를 알 수 있는 흔적이 남아 있지 않다.

현재 일산 5리에는 아파트, 주택 등이 모여있어 일산리의 여러 마을 중에

서 가장 인구가 많이 살고 있다. 이곳의 대부분 주민들은 서울로 통근하는 회사원들이라 한다. 1990년 통계로 1158가구 4329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 ◎ 더붓골(더부골)

일산 5리의 옛 자연촌락 지명으로 그 정확한 유래는 알 수 없다.

### ◎ 장작골

장작골은 고양실업학교에서 고봉산 방향에 있는 자연촌락 명칭으로 이러한 이름이 붙여진 것은 예전 이곳에 참나무가 많아 이 나무로 장작을 만들어 팔아 주민들이 생계를 이어갔다고 하여 붙여진 것이라 한다.

#### ● 고양실업학교

고양실업학교는 일산우체국 건너편에 위치한 사회교육 학교의 명칭으로 일반인 혹은 각종 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중·고등학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학교는 1962년에 고양중학원으로 설립하여 1985년에 지금의 고양실업학교로 명칭을 바꾸었으며 1986년 까지 2,044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제보자 : 고광일(65)

## 6) 일산 6리(一山 6里)

일산 6리는 앞에서 소개한 일산 5리에서 원당방향에 있는 마을의 행정리 명칭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일산-원당간의 310번 지방도로에서 고봉산 방향에 위치한 마을이다.

현재 이 마을은 일부지역이 도시화 되었고 또 나머지 많은 지역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그 모습이 크게 변할 예정이다.

일산 6리에는 중산말·안악골·왜골 등의 자연촌락이 마을을 형성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자연촌락 단위의 마을 모습이 유지되고 있다. 1989년 통계로 이 마을에는 225가구 803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 ◎ 중산(中山)말

중산말은 310번 지방도로에서 고봉산 방향에 있는 자연촌락의 명칭으로 국민은행 연수원이 위치하고 있는 마을이다.

현재 이 마을에는 논·밭농사 위주의 농업을 주업으로 삼고 있다. 이 마을을 중산이라 부르는 것은 고봉산을 중심으로 볼 때 마을의 위치가 가운데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또 달리 고봉산이 고양군의 제일 명산이라 이산이 고양군의 중심이라 하는데 중산말은 고봉산 밑에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하기도 한다.

### ◎ 왜굴

왜굴은 310번 도로에서 중산말로 이어진 도로 주변에 있는 자연촌락의 명칭으로 왜굴은 임진왜란 때 왜군이 고봉산 전투에서 조선군에게 패하여 이 마을로 후퇴하여 오다가 이곳에서 포위당하여 굴복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 ◎ 안악골[安岳谷]

안악골은 왜굴을 달리 부르는 지명으로 정확한 유래는 알 수 없다. 또 달리 안골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것은 마을의 위치가 골짜기 안쪽에 있어 붙여진 이름이며 어떤 사람은 안악골을 줄여 안골이라 부른다고도 한다.

### ◎ 절탕

절탕은 고봉산 8부 능선에 있는 지명인데 지금은 영천사가 위치하고 있다. 이곳을 절탕이라 부르는 것은 이곳에 새로이 절을 만들기 위해 공사하던 중 절에서 쓰는 솔아궁이가 나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절탕은 절터가 변하여 생긴 이름인 듯 하다.

#### ● 감투바위

감투바위는 고봉산 정상 부근에 있는 바위의 이름으로 바위의 모습이 마치 감투와 같이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 ● 치마바위

치마바위는 앞에서 소개한 감투바위 옆에 있는 바위의 이름으로 바위의 모양이 마치 치마와 같이 넓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 덕방재 고개

덕방재 고개는 일산에서 원당 방면으로 이어진 310번 도로에서 소

개울을 넘어가는 고개의 이름이다. 이곳을 덕방재라 부르는 정확한 유래는 알 수 없으나 예전 이 고개 부근에 거주하던 추만 정지운 선생이 덕망있는 학자라 선생이 거주하는 집을 가기 위해 넘는 고개라 하여 붙여진 지명인 듯 하다. 이 고개 부근의 마을을 덕방재 마을이라 부른다.

#### ● 수령논 저수지

수령논은 지금의 중산저수지가 있는 지역에 있던 옛 논 이름인데 저수지가 만들어 지기전 이 논에 수령이 많아 붙여진 이름이다. 이 논의 수령은 매우 깊고 많아 이 논에서 논을 갈던 농부와 소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온다. 그후 일제식민지시대에 이 논은 물을 대는 저수지로 만들어졌고 지금은 양어장으로 만들어져 있다.

#### ◎ 우충박골

지금의 저수지[양어장] 옆에 있는 활터의 옛 이름으로 지명의 정확한 유래는 알 수 없다. 다만 예전 이곳에는 유명한 무당이 큰 기와집으로 짓고 살았다고 한다.

#### ● 정지운 묘(鄭之雲 墓)

앞에서 소개한 저수지를 지나 고봉산으로 들어가는 길에는 깨끗하게 정비해 놓은 묘가 하나 있는데, 이곳이 바로 고양 8현 중에 한분이신 정지운 선생의 묘다. 정지운(1509~1561)선생은 조선 중기 대표적인 성리학자로서 자는 정이, 호는 추만, 본관은 경주이다. 일찌기 김안국, 김정국의 문하에서 학문에 힘써 성리학에 깊이 통달하였으며 「천명도설(天命圖說)」을 저술, 한성에서 퇴계 이황을 만나 그의 탁월한 견해를 높이 평가받았다. 즉 선생은 주희의 성리론을 한층 심화시켜 「사단은 이에서 발하고, 칠정은 기에서 발한다」고 주장하며 사단은 이(理)에 그리고 칠정은 기(氣)에 배분하여 설명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황은 선생의 문구를 개작하여 「사단은 理發, 七情은 氣發」이라 주장하기도 했다. 그리하여 이후 「四端七情論」이 한국 성리학의 일대 과제로 등장하게 된 것은 큰 학문적 공헌이었다. 선생은 민순, 남효온, 김정국, 기준, 흥이상, 이신의, 이유겸 등과 함께 8현으로

추앙되어 문봉서원에 제향되었다. 묘는 정부인 충주 안씨와 쌍분을 이루었고, 묘 앞에는 신·구 3기의 묘비와 상석·향로석 그 좌우에는 망주석·문인석을 설비했다. 임술 41년(1562) 5월에 건립한 화강암 묘비는 「秋巒巨士 鄭之雲墓」라 새겼고, 비문은 이황이 지은 것이다. 원래의 묘비는 높이 157cm, 폭 61cm, 두께 32cm의 규모이다. 1981년 2월에 건립한 묘비는 대리적 비신에 화강석 이수를 갖추었다.

### ● 연세대학교 일산 천문대

정지운 선생 묘에서 고봉산 쪽으로 조금 더 가면 연세대학교 일산 천문대가 나온다. 6리 63-16에 자리잡고 있는 연세대학교 부속 일산 천문대는 지난 1980년 12월 17일에 설립되었다. 연세대학교에서의 천문학에 관한 교육은 이미 1915년부터 시작된 것으로서 당시 연희전문학교의 數物科와 文科에서 루퍼스(W.C.Rufus) 박사와 백커(A. LBecker) 박사가 주당 4시간씩 강의하였다고 한다. 그 뒤를 이어 1922년부터는 李春昊교수가 한국인으로는 처음 천문학을 강의하였고 또 우리나라 최초의 천문학 박사인 李源喆박사가 미시건대학에서 귀국하여 1926년 이래 천문학을 강의하기 시작했다. 그후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고난지 22년이 지난 1967년 12월에 연세대학교에 천문학 교육이 실시되었는데 천문학 교육에 있어 없어서는 안될 천체망원경[Goto 61cm 反射形 望遠鏡]이 1978年에 수입되어 당시에 신축한 일산천문대[垈地 6477m<sup>2</sup>, 建坪 325cm<sup>2</sup>]에 설치되었던 것이다. 1981年 3月 1일 일산천문대는 학교재단과 문교부로부터 「연세대학교 천문대」라는 명칭의 부속기관으로서 인가를 받았으며 그 초대 臺帳에 羅逸星박사가 취임하였다. 일산천문대는 연중무휴로 24시간 움직이고 있으며 연대 교직원과 재학생에게는 매월 1회, 그리고 일반시민들에게는 한국 아마추어 천문학회의 주관하에 매월 정기적으로 개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천문학에 관한 특별 강연회도 개최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협조를 얻어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에게 방학 기간중에 천문학 교육[세미나·관측·실습 등]을 실시하고 있다. 나아가 중·고·대학생들의 견학도 수시로 허락하고 있고 천문대 공작실도 개방하여 망원경의 제작 수리 또는 그 밖의 다른 천문 기구의 제작을 할

수 있도록 便宜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일산 천문대의 조직은 자문기구로서 천문대 운영위원회가 있고 천문대의 관측과 연구활동 그리고 그 밖의 제반업무의 수행을 관리·감독하는 천문대장 밑에 5悉 1부가 일을 하고 있다.

### ◎ 안악골 산제사

고봉산 밑의 안악골에서는 7~8년 전까지만 해도 1년에 한번씩 마을제사가 있었다고 한다. 이 제사에 참가한 마을은 일산 6리뿐만 아니라 7里와 8里의 주민까지도 참가하였다. 말하자면 6, 7, 8里의 공동산제사였던 것이다. 다른 마을 고사와 마찬가지로 집집마다 쌀과 돈을 조금씩 걷어 고사준비를 하였다. 모아진 쌀로 시루떡을 만들었는데 떡하는 집은 고삿날을 잡아 놓으면 고삿날까지 몸과 마음 그리고 주위를 깨끗하게 하여 부정타지 않게 하였다. 떡을 치는 집도 매년마다 달랐다. 제사(고사)는 2번 치뤄진다. 안악골 입구에 있던 장승 앞에서 먼저 지내고 다음으로 고봉산 쪽으로 올라가 산제사를 지냈다. 지금 장승은 없어졌으며 6, 7, 8里는 상여도가도 함께 쓰고 있다고 한다.

제보자 : 고향일 (65)

## 7) 일산 7리(一山 7里)

일산 7리는 앞에서 소개한 일산 6리에서 원당방면에 있는 마을의 행정리 명칭이다. 좀더 자세히 그 위치를 설명하면 덕방재 고개를 넘어 고봉산 아래 마을에서 하사관 주택 전까지를 포함하며 목축업을 하는 집이 많이 있다.

마을의 촌락들은 대부분 310번 지방도로 부근과 벽제로 이어지는 58번 군도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마을앞에는 논·밭이 만들어져 있으나 촌락의 구조는 근·현대식으로 개조되어 있다. 1989년 통계로 이곳에는 243가구 872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 ◎ 소개울

소개울은 일산 7리의 옛 자연촌락 명칭이다. 이곳 소개울은 1910년

대만 하여도 동산과 논밭이 태반이었으며 가구수도 얼마 안되었다. 이곳의 지명이 소개울이 된 것은 1919년 기미년 3·1운동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주할 때 지금의 양주군 청태동의 소개울이라는 동네에 살던 李氏 부부가 이곳의 산꼭대기에 집을 짓고 살았다. 이 부부는 슬하에 자식이 없어서 마을 사람들이 그 부부를 부를 마땅한 호칭이 없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때도 보통 “누구 아버지” “누구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이 상례였지만 그 부부는 아들도 딸고 없었던 까닭에 마을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부를까 고민하다가 ‘양주의 소개울에서 왔으니 “소개울 이서방”이라 부르는게 좋겠다’ 하여 그들을 소개울을 이서방이라 부르던 것이 소개울로 부르게 된 것이라 한다. 他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 지명을 듣게 되면 이 마을에 작은 개울이 있어서 그렇게 부르는 걸로 생각하기 쉽지만 소개울에는 별다른 개울이 없다고 한다.

### ● 만경사(萬景寺)

만경사는 벽제읍 성석리로 이어지는 58번 도로에서 고봉산 정상방향에 있는 절의 이름이다. 본래 만경사는 풍산 흥씨 가문의 ‘모당’ 흥이상 선생의 재실을 짓기 위해 이름 붙인 것이라 한다. 모당은 고양 팔현의 한분으로 만경사의 역사는 약 400년 정도 된다고 한다. [성석리편 참조]

### ◎ 성황당령(城隍堂嶺)

일산읍 고봉산(高峯山)에서 정발산(正鉢山)으로 연결되는 준령(峻嶺)이다. 지금 이 준령(峻嶺)에는 일산에서 원당(元堂)으로 통하는 도로와 一山에서 正鉢山을 거쳐 능곡(陵谷)으로 가는 도로가 있으며 一山邑의 공동묘지가 있으며 원당으로 가는 道路邊에 千年은 되었음직한 성황당목(城隍堂木)이 있었는데 나무 밑에는 오가는 사람들이 던져놓은 돌멩이가 3~4m는 쌓였었고 나무가지에는 무당[巫堂(巫女)]들이 걸어놓은 붉은색·푸른색 등 각종 색깔의 천이 걸려 늘어져 있었는데 1970년대에 도로확장 및 포장 때에 베어져 없어졌다.

한편 이 城隍堂嶺에 대하여 1755年刊 『高陽郡誌』에는 「見達山에 나

타난 龍이 북쪽으로 나가 고봉산을 만들고 남쪽으로 나가 정발산을 만들었으니 그 아래가 곧 城隍堂嶺이다. 비록 높지는 않으나 들 가운데에 닥나무밭(楮田)이 서리서리 우거져서 豊厚해지고 남으로 漢江이 흐르니 대개 殘山微麓이 별로 두드러지게 나타남이 없이 가히 칭찬할 만한 곳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 ◎ 공동묘지

공동묘지는 소개울 마을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는데 예전에 이산의 소유는 문화 유씨 였다고 한다. 그런데 해방 후 정부에서 이 산에 대한 세금을 많이 매긴다는 얘기를 들은 유씨 가문에서 공동묘지로 쓰도록 자청하여 산을 내놓은 것이 지금은 공동묘지가 된 것이라 한다. 이곳은 일산읍의 공동묘지장소라 한다.

### ◎ 말무덤

말무덤은 310번 지방도로 소개울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면 바로 넓은 터가 나오는데, 지금은 주유소를 신축하는 자리가 예전에는 커다란 무덤이 있었다 한다. 이 묘는 유난히 크고 높아서 말무덤이라 했는데 말무덤 옆으로 딸기밭이 있었으며 말무덤을 파버리면 채양이 따른다고 해서 모두들 이 무덤에 손을 대지 않고 농사를 지었다고 한다. 그러다 주요소를 신축하기 위해 이 무덤을 팠는데, 이곳은 사람 무덤이었으며 유물도 몇점 나왔다고 한다. 이 무덤이 생기게 된 유래는 다음과 같다. 이 무덤의 주인은 서울의 유명한 지관이었다. 서울에서도 유명하리 만큼 용한 지관이었던 그는 이상하게도 자신의 묘자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았다. 임종이 가까와지자 그는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기었는데 “서쪽으로 가다가 갈수 없으면 그 곳에다 묻어라. 그리고 상돌을 하지 말아라”라는 내용이었다.

이 유언에 따라 지관의 자식들은 그의 시신을 메고 서울을 출발하여 서쪽으로 계속 내려왔다. 서쪽으로 가다 보니 도착한 곳이 바로 예전에 말무덤이었던 지금의 주요소 자리였다. 이때에 해는 이미 지고 어둑어둑 하였다. 시신을 메고 온 사람들은 지칠대로 지쳐 있었고 더이상 움직일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 곳에 땅을 파고 무덤

을 만들었다. 세월이 흐른 후에 그 가문이 번창하게 됨에 후손들이 조상의 묘를 화려하게 하여 가문을 자랑하고자 그 무덤 옆에 상석과 망주석을 세웠다. 그런데 이상하게 상석과 망주석을 세운 이후로 가세가 기울기 시작하다가 결국 가문이 망했다는 소문이 들려 왔다. 이 유인즉 풍수지리설에 의하면 그 무덤이 있던 산세는 자라의 형상을 하고 있으며 무덤이 있는 터는 자라의 머리에 해당한다고 한다. 그런데, 자라 목에다 무거운 상석과 망주석을 세우니 자연히 자라가 죽게 마련이다. 본래 자라는 동물은 목을 몸 속으로 집어 넣었다 뺐다 해야만 살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모르고 후손들이 자라의 목에 상석을 하여 목이 눌러져 자라가 더이상 목을 집어 넣을 수 없게 되어 자라는 죽게 되고 집안은 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후손들의 발길이 끊기자 이 무덤은 돌보아지지 않고 310도로가 건설되자 도로를 만드는데 필요한 흙을 이 묘가 있는 작은 동산에서 파다가 썼다고 한다. 묘 주위의 흙이 점점 줄어지다보니 상대적으로 묘가 커지게 되었고 그 동산도 깎겨서 밭이 되었다. 이곳의 지명은 지금도 말 무덤으로 불리우고 있다.

#### ● 수령논

수령논은 공동묘지 앞에 있는 논의 이름으로 옛부터 논에 수령이 많아 붙여진 이름이다.

#### ◎ 송개미 골짜기

송개미 골짜기는 공동묘지가 있는 산 앞부분의 땅 전체를 부르는 지명으로 옛부터 작은 불개미가 많아 붙여진 지명인 듯 하다.

#### ● 상여도가

현재는 일산 8리에 있으나 전에는 소개울과 동거리 중산말의 경계가 되는 덕방재고개에 있었다고 한다. 이곳의 상여는 지금도 3, 6, 7리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 ◎ 산제사

지금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지금의 군인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 까까지는 산제사가 아파트 부근에서 있었다고 한다. 산제사를 지냈던

곳은 백마 군인 아파트가 들어선 산이었고 그곳에서 3년에 한번씩 마을 사람들이 조금씩 쌀을 걷어서 제사준비를 하여 지냈다고 한다.

● 김녹영(金綠永) 묘(墓)

만경사로 가는 길 원편에 깨끗이 정리되어 있는 묘가 있는데, 이것 이 김녹영 선생의 묘다. 봉분주위의 석물로는 상석1, 장명등 1기와小型의 마리아상 1구가 세워져 있다. 또 1986년 7월 10일에 건립된 오석(烏石)의 묘비는 크기가 폭 6척, 두께 1척, 높이 3.5척이다. 「國會副議長 白愚金公綠永요한之墓」라 새긴 비문은 白愚金綠永先生紀念事業會長 金相賢 趙淵夏가 撰하고 孫權培가 썼다.

김녹영 선생은 1924년 9월 15일 전라북도 고창에서 출생하여 1985년 7월 10일 향년 62세로 사망하였다. 호는 백우이며 본관은 蔚山이다. 제12대 국회의원으로 국회부의장직을 맡았었다.

◎ 고봉산(高峯山)

고봉산은 일산읍·벽제읍·원당읍의 경계에 위치한 해발 208.3m의 산 이름으로 임진왜란 당시 행주산성과 같이 격전지로서 산성에 보루인 돌덩이를 쌓아 돌을 쌓는 단위인 테미의 이름을 따 테미산으로 불리우기도 한다.

이 산은 조선조 때 고양 8현의 한 분인 풍산 흥씨[호:묘당]의 재실을 테미산에 신축코져 종전의 테미산을 산세가 높다 하여 고봉산(高峯山)으로 칭하게 되었으며 이 곳에는 통신 수단의 하나인 봉화대가 설치되었으며 아직 그 흔적이 남아 있다.

고양(高陽)군은 고봉산의 '高'자와 덕양산의 '陽'자를 합한 것이다.

제보자 : 유영선(79)

8) 일산 8리(一山 8里)

일산 8리는 일산읍 읍사무소가 있는 지역부근 마을의 행정리 명칭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그 위치를 살펴보면 일산국민학교에서 경의선을 경계로 일산 9·10·11리와 경계하고 310번 도로를 경계로 일산 4·5·6·7리와 인접하며, 남쪽으로는 일산읍 풍리와 경계하고 있다.

일산 8리의 옛 지명은 더부골, 동가(동거리)인데 지금은 일부 지역이 도시화되어 모습이 변모되었으나 많은 지역은 논으로 남아 있다. 현재 이 마을에는 272가구 1,006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 ◎ 더부골

더부골은 고봉산 산록방향에 위치한 삼태기 모양의 골짜기 이름으로 6.25사변 전에는 두가구만 거주하고 있었으나 그후부터 사람이 모여 살기 시작하였다. 이 마을의 지명이 더부골로 불리는 것은 이 마을에서 살다가 타지역으로 간 사람은 모두 더부자가 되어 성공해 나갔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달리, 한편으로는 유씨가 이 마을에 와서 더부살이를 하였는데 그 후손들이 번성해서 이루어진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는 說도 있다. 실제로 이 마을에는 유씨가 많이 살고 있다.

### ◎ 동거리[洞家, 東家]

동거리는 지금의 일산읍 읍사무소 주변의 옛 지명으로 일제식민지 시대 때 이곳 일본인들이 많이 살았고 그들 중 다수는 동경출신이었다고 한다. 이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곳의 이름을 동경인, 동가인, 동거리 등으로 부르다가 지금은 동가라고 부르고 있다.

### ● 일산국민학교

일산 3리와 8리의 분계점에 위치해 있다. 이 학교는 1924년 4월 18일 일산국민학교 설립인가를 내고 그해 9월 16일 개교하였다. 1952년에는 백마 분교를 설립하여(현재 백마국민학교의 전신) 백석·마두·장항리에 사는 학생들을 수용하게 되었다. 1986년에는 특수학급 2학급을 신설하였으며 1987년에는 일산국민학교 병설 유치원 2학급을 인가하였다. 1990년 제63회 졸업생을 배출하여 지금까지 12,325명이 졸업하였다.

### ● 옛 느티나무

일산국민학교 뒷편에 있는데 수령은 알 수 없다.

제보자 : 유영선 (79)

## 9) 일산 9리(一山 9里)

일산 9리는 앞에서 소개한 일산읍 읍사무소에서 능곡방면으로 이어져 있는 398번 도로로 약 0.5km 정도 떨어져 능곡방향에 있는 마을의 행정리 명칭이다. 즉, 후동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약 300m 정도 떨어져 백마쪽에 위치하며 일산리의 여러 마을 중에서 가장 자연촌락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이 마을의 옛 자연촌락 지명은 울동 즉, 밤나무 동네인데 지금은 흔히 밤가시라고 부른다.

이 마을은 마을 앞·뒤의 야산기슭에 군데군데 자연촌락 단위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으며 논·밭농사 위주의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곳에는 단양 이씨 이무선생의 자손들이 집성촌을 이루어 살고 있는데 이들이 처음 이곳에 거주한 것은 1390년이라 한다.<sup>11)</sup> 현재 이마을은 신도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있는데 1989년 통계로 74가구 293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 ◎ 밤가시(栗洞)

마을 주변의 산에 유독 밤나무가 많이 있어서 가을에 밤이 잘 익어 떨어지면 밤가시가 주변 야산에 산재해 있다 하여 밤까시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울동은 밤나무골을 한자로 옮겨 쓴 것이다.

이 밤나무골에 거주하시다가 98세의 나이로 돌아가신 이병식 옹(1888년 생)의 말에 의하면, 자신이 어렸을 적에 이 동리 전체에 밤나무가 짹빽하게 들어서 있어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고, 낮에도 무서워서 산에 오르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당시 이 동네에 있던 집들은 거의 모두 밤나무를 재목(材木)으로 사용하여 지어진 것들로서 밤나무를 기둥이나 대들보로 사용하려면 족히 50년 생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이야기로 미루어보더라도 이 곳에 얼마나 많은 밤나무가 있었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고 지금도 林木 분포 상황으로는 밤나무가 제일 많으며 특히 이 동네 사람들은 밤나무로 지은 집에서 음식을 만들면 “이웃이 모여든다”는 옛말 그대로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는 아름다운 풍습을 간직하고 있다.

1) 고양군지편찬위원회, 〈고양군지〉, 『사단법인 고양문화원』, 1987, p.882

그런데 조선 중종(朝鮮 中宗) 때의 『신증 동국여지승람』이나 영조 때의 『고양군지』에는 이 밤나무가시가 栗岳部曲으로 기재되어 있다. 部曲이란 鄉이나 所와 더불어 신라시대부터 조선초기까지 있었던 특별한 지방의 하급 행정구역으로서 이곳은 죄를 짓거나 신분이 좋지 않은 사람들의 거주지였던 것 같다. 鄉(향), 所(소), 部曲(부곡)의 발생에 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전쟁포로 혹은 역모죄인의 유족 또는 반란을 일으킨 향읍민들을 거주시킨데서 유래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리고 이 향, 소, 부곡은 호구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는 행정구역으로서 예컨데 어떤 부곡은 현보다 큰 경우도 있었던 것이다. 특히 부곡은 신라시대에 매우 광범위하게 설치되었다가 고려시대 초기에는 해방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말기에 다시 전국적으로 설치되었다. 이 때에는 국사에 반대하던 현이나 군 전체가 부곡으로 떨어지는 경구가 많았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부곡을 비롯한 향과 소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여 중기 때는 거의 없어졌다고 한다.

### ◎ 오미동(五尾洞)

오미동은 밤가시를 지형적으로 볼 때 부르는 명칭으로 마을 주변, 작은 산의 모퉁이가 마치 5개의 꼬리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 맹작골(명작골 · 우두머리 · 사당터)

맹작골은 일산에서 능곡으로 이어진 398번 지방도로 밤가시 마을에서 장항리 닥발마을 방향에 있는 골짜기의 이름이다. 이곳은 고양팔현 중의 한분인 사제 김정국 선생이 이 곳에 집을 짓고 정지운 선생과 교우를 맺고 학문을 연마하다가 돌아가신 후 사당을 지어 모셨기 때문에 명자곡(名者谷)이라 불렀다 한다. 명작골은 명자곡의 한문을 한글 발음으로 풀이한 것이다. 또한 사제 선생에게 글을 배우던 문하생들이 선생을 학문의 首長 즉, 우두머리라고 불렀던 데에서 이 곳의 이름을 우두머리라고도 부른다. 또 사당터라는 지명은 이 곳에 사제 선생의 사당이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 육굴[육곡, 六谷]

육골은 경의선 철도 바로 앞에 있는 마을의 자연촌락 이름이다. 이 곳을 육골이라 부르는 것은 이 마을의 지형상 5개의 꼬리 모양을 한 산모퉁이 옆에 있는 여섯번째 골짜기라 하여 육곡 또는 육굴이라 부른다.

### ◎ 집너머 [넘어]

집너머는 육골 앞 산골짜기애 있는 마을의 자연촌락 명칭으로 이 이름의 유래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추측컨데, 동네 앞에 커다란 집이 하나고 이 집넘어에 위치한 마을이라 하여 집너머라 부르는게 아닌가 생각된다.

### ◎ 건너마을(근너마을)

위에 소개한 집너머 앞에 있는 마을의 자연촌락 명칭으로 건너마을 또는 근너마을이라고 부른다. 이는 골짜기 건너에 위치한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 넘말

넘말은 398번 지방도로 옆에 붙어 있는 마을의 이름인데 이곳을 넘말이라 부르는 것은 398번 지방도로에서 산등성이 넘어에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넘말에는 마을회관과 집들이 있다.

### ◎ 새말[新村]

새말은 398번 지방도로가 율동상회 앞에서 꺾어지기 전 주엽리 방향에 있는 자연촌락의 명칭이다. 새말은 마을이 새로이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 곰말

곰말은 새말 옆에 있는 마을의 자연촌락 지명으로 고운말의 준말이거나 골마을이 변형되어 붙여진 지명인 듯 하다. 현재 이곳에는 율동상회와 우두머리논이 있다.

#### ● 우두머리논

우두머리논은 곰말 앞에 있는 논의 이름으로 우두머리라는 이름이

생기게 된 유래는 사제선생에게 글을 배우던 문하생들이 선생을 학문의 首長, 즉 우두머리라고 불렀던 데에서 유래되었다. 우두머리에 있는 논이라 하여 우두머리논이라고 부른다.

### ◎ 밤가시고개

밤가시 고개는 일산에서 능곡으로 이어진 398번 지방도로를 따라 가다가 일산 9리와 마두리의 경계가 되는 곳에 있는 큰 고개의 이름이다. 이곳을 밤가시 고개라 부르는 것은 앞에서 소개한 밤가시 마을과 같으나 밤가시 고개의 명칭에서 마을이름이 생겼는지, 마을이름에서 밤가시고개 이름이 생겼는지는 알 수 없다.

이 고개는 경의선 철도 서울-개성간에서는 가장 높은 고개로서 능곡 쪽에서 한일(一)자로 쭉 뻗어 이 고개까지의 철로를 보게되면 장관을 이루고 있다. 또 달리 이 고개를 마두리 방향에서는 말머리 고개라고도 부른다.

### ◎ 백학동

밤가시 마을을 달리 부르던 예전 자연지명으로 이곳에 흰 학들이 많이 살았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 장모탱이

밤가시 마을에서 일산으로 가는 모퉁이의 이름으로 예전 일산장이 설 때 장으로 가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 오래된 초가

이집은 일산 9리 밤가시마을 넘말마을에 있는데 마을의 전통적인 멋과 어우러져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남아 있다. 이 초가의 건립년대는 거의 200년 가까이 되는데 지붕과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옛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또 이집의 중요한 의미는 이 초가의 양식이 약 400년 이전의 양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집의 기둥들은 모두 도끼로 패고 다듬어서 만들어 놓았고 지붕이 원형처럼 이어져 있는 따라집으로 되어 있는 점이다. 또 안채와 바깥채의 구분 없이 하나로 이어져 있어 최대한 자연미를 살리고 있다.

현재 이 초가는 단양 이씨 자손이 별도로 보존하고 있는데 이 집  
뜰 안에는 옛날 우리 농촌에서 사용하던 농기구와 떡판, 떡방아, 수  
레바퀴 그리고 물을 퍼 올리는 용두레 등이 잘 보존되어 있다.

#### ● 이영득(李榮得) 묘(墓)

일산 9리 율동(栗洞)에 위치하며 비(配) 아산(牙山) 이씨(李氏)와  
합장하였다. 이영득은 조선시대 문신으로 태종 8년(1408)에 출생하였  
으나 사망시기는 미상이다. 본관은 단양으로, 단산부원군 익평공 무  
(丹山府院君 翼平公 茂)의 손자이며 호조참찬행한성판윤(戶曹參贊行  
漢城判尹)에 증직(贈職)되었다.

#### ● 최국현(崔國鉉) 묘(墓)

일산 9리에 위치해 있다. 봉분(封墳) 앞에 세워진 묘비는 오석(烏  
石)으로 되어 있으며 크기는 폭 1.5척, 두께 6척, 높이 4척이다. 최  
국현의 본관은 경주로 1899년 5월 15일에 출생하여 1970년 10월 24일  
사망하였다. 제헌국회의원을 거쳐 2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제보자 : 이경상, 이옥진(59), 주간고양[이건진, 이영찬]

### 10) 일산 10리(一山 10里)

일산 10리는 앞에서 소개한 일산 9리 밤까시 마을에서 주엽리 마을 방향  
에 있는 마을의 행정리 명칭이다.

좀더 자세히 그 위치를 소개하면 일산읍 읍사무소에서 능곡으로 이어진  
398번 도로를 따라 약 200~300m 정도 가서 우측에 있는 마을이다.

일산 10, 11, 12리를 보통 후동이라 부르는데, 후동이라는 명칭은 일제식  
민지시대 때 생긴 것이라 한다. 이 중에서 10리를 다시 뒷굴이라 부른다.  
이곳을 뒷굴이라 부르는 것은 일산시가지에서 볼 때 시가지 뒷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이곳은 경의선 철도 바깥에 위  
치해 있으며 물난리를 피해 장항리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  
다.

현재의 일산 10리도 일산 9리와 같이 정발산에서 이어진 작은 야산 주위  
에 촌락이 만들어져 있다. 1989년 통계로 이 마을에는 645가구 2,330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 ◎ 뒷굴[後谷], 후동

일산11, 12리와는 다르게 일산 10리는 옛부터 마을이 번창하였던 곳이다. 이 마을에는 李氏와 姜氏가 특히 많이 살고 있으며 진주 姜씨는 5~600년 동안 이 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가문이라 한다. 뒷굴은 後谷을 뜻하는 것이며 예전에는 후곡촌이라 불렀다고 한다.

현재 이 마을에는 현대식 건물들이 들어서 있어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데 대부분 새로 이주해온 사람들이다.

### ◎ 개주굴

개주굴[골]은 일산 9리 새말에서 일산방향에 있는 고개 넘어에 위치한 마을의 자연촌락 이름으로 예전에 기와집이 많이 있던 마을 즉, 기와집 굴이 변화되어 개주굴로 된 것이라 한다.

### ◎ 웃뒷굴[골]

웃뒷굴은 오거리에서 율무재산으로 가다가 도당고사터가 있는 마을의 자연촌락 이름으로 마을의 위치가 높은곳에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달리 상동(上洞)이라고도 부른다.

### ◎ 아리랑고개

아리랑 고개는 일산 10리 오거리에서 개주굴 마을로 넘어오는 중간에 있는 고개의 이름이다. 예전에는 뱜고개라고 불리웠던 곳으로 아름드리 나무가 많은 소로길이었으나 사람들이 많아집에 따라 지금과 같이 집이 많이 들어서게 되었다. 이 고개는 죽은 사람만이 넘어가는 곳이라 했으며 한번 넘어가면 되돌아 올 수 없는 고개였다 하여 아리랑고개라 불렀다고 한다.

### ◎ 아랫뒷굴

아랫뒷굴은 웃뒷굴에서 주엽리 방향에 있는 자연촌락 이름으로 웃뒷굴에 비해 아랫쪽에 위치해 붙여진 이름이다.

### ◎ 율무재산[이물재산]

웃뒷굴에서 장항리 닥발마을 방향에 있는 야산의 이름으로 그 정확한 유래는 알 수 없다.

### ◎ 오거리

오거리는 일산 10리 중심지에 있는 소지명으로 일산역으로 가는길. 능곡방향으로 가는길, 주엽리로 가는길, 송포방향으로 가는길, 웃뒷굴로 가는길, 모두 다섯갈래 길이 있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 일산고개

오거리에서 능곡방향으로 이어진 57번 군도로 위에 있는 고개의 이름으로 일산방향에 있는 고개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 외봉재(매봉재)

웃뒤편에서 닥밭으로 넘어가는 고개의 이름으로 매봉재는 예전에 이곳에서 매를 잡기 위해 주위를 관망하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인 듯 하다.

#### ● 우물

웃뒤편에 위치한 우물로 지금과 같이 양회로 바르기 전에는 바가지로 뜨는 우물이었다. 을축년에 왕가물이라고 부를 정도로 가뭄에도 물이 마르지 않았던 우물이었다고 한다.

#### ● 바우배기논

바우배기논은 후동에서 주엽리 방향으로 이어진 57번 군도로 옆에 있는 논의 이름이다. 이곳을 바우배기라 하는 것은 논 가운데 큰 바위가 박혀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 논 가운데에는 샘이 있는데 그 샘이 끊이지 않아 극심한 가뭄에서도 논이 마르지 않는다고 한다.

#### ● 돌다리

돌다는 주엽리 상·하주 마을로 이어진 57번 도로에 놓여진 다리의 이름으로 현재는 콘크리트 다리지만 옛날에는 돌다리였다고 한다. 이 다리는 다리가 좁아 우마차가 겨우 지나갈 정도여서 외나무다리와 별반 다를 게 없었다고 한다. 지금은 현대식 콘크리트다리지만 지금도 돌다리라고 부른다.

### ◎ 도당대

도당터는 웃뒷굴에서 율무재산 방향에 있는 소지명으로 이 곳에는 오래된 소나무가 한그루 있는데, 마을 사람들이 그 소나무를 신성시하여 천띠를 둘러 놓았으며 그 주위로 그 소나무를 감싸듯이 여러 그루의 소나무가 남아 있다. 도당터가 있는 산을 넘으면 밤까지 마을이 나오게 되는데 이 산이 10리와 9리의 경계가 되는 곳이다.

### ● 도당고사

도당고사는 웃뒷굴 사람과 율동 사람들이 힘을 모아 삼년에 한번 씩 도당터에서 지낸다. 집집마다 조금씩 쌀을 거두어 고사 준비를 해 두었다가 음력 10월에 고사를 지내는데 고사의 목적은 치성으로써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데 있고 형식은 거의 다른 마을의 도당고사와 유사하다고 한다.

### ◎ 동머리길

일산역에서 오거리로 들어오는 길을 부르는 이름으로 옛날 이곳에 논의 물을 막던 동이 있었고 이 동으로 새로 길을 만들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 동머리다리

동머리길을 따라 주엽리 마을로 들어 오다가 보면 경리정리로 생긴 수로에 길을 연결시켜주는 다리가 하나 있다. 이 다리에 대한 유래는 앞에서 소개한 바 있다.

제보자 : 강중만(77)

## 11) 일산 11리(一山 11里)

일산 11리는 앞에서 소개한 오거리에서 주엽리 상·하주 마을로 이어진 57번 도로를 따라 오다가 우측에 있는 마을의 행정리 명칭이다.

일산 11리가 있는 자리는 원래는 산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밀집되어 살고 있는 곳은 예전에 공동묘지가 있었다고 한다. 6.25 이후 이 곳에 피난민들이 정착하면서 他地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고 주

변의 야산을 깎아 집을 짓기 시작하면서 부터 마을이 형성되게 되었다고 한다. 1989년 통계로 이 마을에는 209가구 853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 ◎ 문화촌(文化村)

문화촌은 일산 11리 마을의 자연촌락 명칭으로 6.25이후 이 마을이 생성되던 초기에 불렀던 지명이다. 문화촌이라 하게된 이유는 이곳에 문화인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제보자 : 민승건(62), 김광주(69)

## 12) 일산 12리(一山 12里)

일산 12리는 앞에서 소개한 일산 2리, 3리에서 경의선 건너 주엽리 방향에 있는 마을의 행정리 명칭이다. 일산 10리 마을에서는 송포면 대화리 방면에 있는 마을이 된다.

일산 12리가 오늘날처럼 크게 된 것은 한강의 범람으로 생긴 수해 때문이다. 그 전까지는 몇집 안되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는데 이 마을에 장항리 쪽의 벌판 사람들이 피난해 오게 되면서 마을이 커졌다. 피난 해 들어온 사람들의 대부분이 장항 4리에서 살았기 때문에 한 때는 이곳을 장항 4리라고 불렀으나 행정구역으로 개편 될 때 일산 12리로 정해졌다.

현재 이곳 주민들의 대부분은 그 때 피난해 들어온 사람들이며 이 외에 경상도 및 강원도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다. 현재 이 마을에는 274가구 1069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 ◎ 긴등(진등)

오거리에서 일산 12리로 이어진 길의 이름으로 이 길을 따라 계속 걷다보면 부녀회관이 나온다. 긴등의 지명은 원래 산등성이가 있었던 곳을 새로이 길로 만들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 수용소[신동]

일산 12리는 본래 동산이었고, 마을이 형성된 것은 66년도에 상습 침수지역이던 장항 4리 벌에 살던 사람들을 행정관서에서 이주시켜 주면서 부터라고 한다. 이 곳은 74년까지 행정구역상 장항 4리로 되어 있다가 일산 12리로 바뀌었다. 현재는 길마다 포장이 다되어 있지만 그 이전에는 비가 조금 와도 온통 훑탕길이 되었다고 하여 “여자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살 수 없다”고들 했다. 그후 영호남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어 살고 있으며 60호 정도가 농사를 짓고 나머지는 노동자가 많다고 한다. 플라스틱 빗자루공장과 우성전자가 있어 이곳의 주부 20여명이 다닌다고 하는데 수용소는 침수지역 주민들을 수용한 곳이라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또 달리 신동은 새로이 만들어진 동리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 ◎ 안산

안산은 일산 12리 마을에 있던 산의 이름으로 산의 위치가 마을 앞에 있어 매일 보인다고 하여 안산이라 부르며 30~40년 전만 해도 이 안산에는 소나무가 많아 솔밭을 이루었으나 이 솔밭을 개간하고 집을 지어 지금은 그 모습을 볼 수 없다.

### ◎ 동머리길

동머리는 한자로 동두(洞頭)라고 한다. 즉 마을의 입구에 해당한다는 뜻인데 12리로 들어오는 이 아스팔트길은 일산국민학교 앞에서 시작하여 주엽리로 통한다고 한다. 마을의 입구로 들어오는 이 길을 동머리길이라고 부른다. 현재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양옆에는 경지 정리된 논들이 있다.

#### ● 동머리논

동머리길 양옆에 있는 논들의 이름으로 ‘동머리’라는 이름이 생긴 것은 논뚝(동) 옆에 있는 논이라 하여 생긴 것이라 하며 달리 마을(洞) 입구에 있는 논이라 하여 동머리라고도 부른다고 한다.

#### ● 망두배기논

동머리논의 옆쪽에 있는 논의 이름으로 예전 이논 주변에 망두가 있어 붙여진 이름인 듯 하다.

#### ● 삼재이논

망두배기논 옆에 있는 논의 이름으로 일산 1리를 삼정 또는 삼재이라고 부르는데, 삼재이 앞에 있다 하여 삼재이논이라 부른다고 한다.

제보자 : 이영숙(54), 정홍명(65)

### 13) 일산 13리(一山 13里)

일산 13리는 일산에서 원당으로 이어진 310번 지방도로를 따라 일산에서 약 1km 정도 떨어진 마을의 행정리 명칭이다.

일산 13리는 원래 일산 7里에 속해 있었으나 88년도에 13리로 분리되었다. 지금 이곳을 하사관 주택이라 부르는데 하사관 주택은 74년도에 백마부대가 풍 1리로 이동하여 주둔함에 따라 위관급과 령관급장교들을 위한 관사가 지어지고 다시 하사관들을 위한 주택이 이곳에 지어짐에 따라 붙여진 명칭이다. 하사관 주택이 지어지기 전에 이 곳에는 집이 단 두 채 뿐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연립주택들이 들어서 많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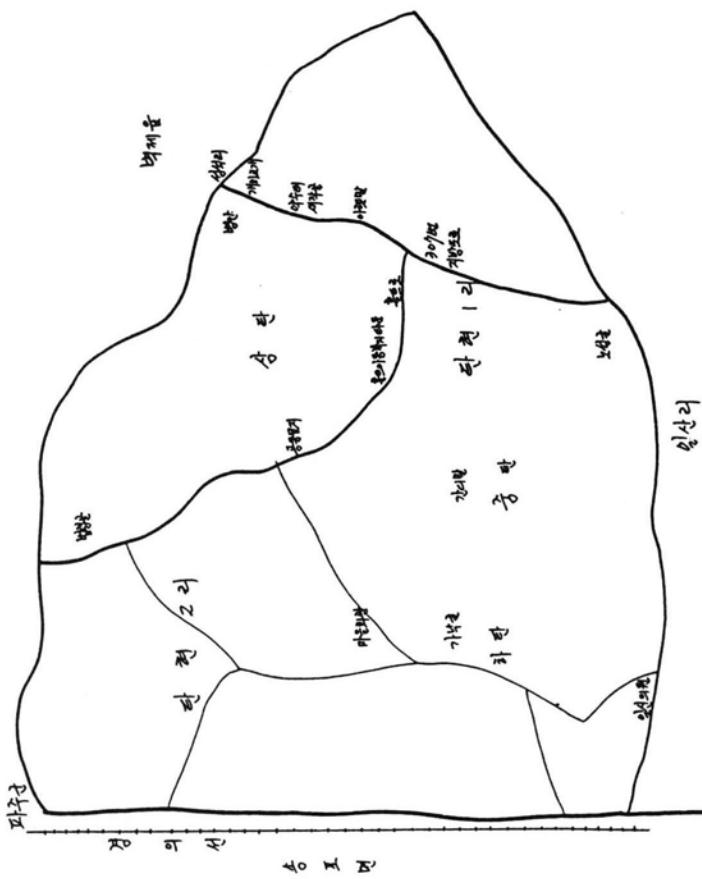
현재 이곳에는 349가구 1,186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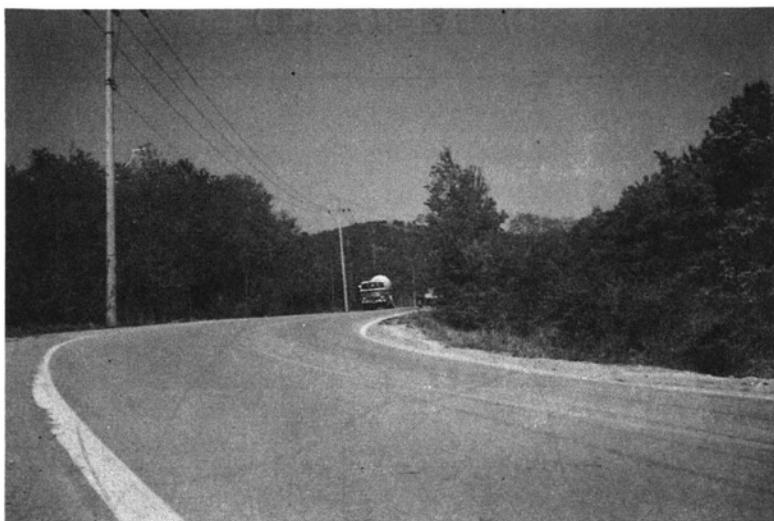
#### ● 서낭당

서낭당은 하사관 주택에서 310번 지방도로 건너편에 있는 소지명으로 옛부터 소개울의 일부로서 서낭당이라 불렸다. 예전에 관사로 들어가는 입구 참나무에 성황당을 만들어 소원을 빌었다고 한다. 그 때 이 참나무는 아름으로 두 사람이 마주 잡을 정도로 큰 나무였다. 그러나 도로 확장 공사 때 베어져 지금은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 사람들은 성황당 나무를 베어서 부정을 타 13里에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난다고 한다. 그리고 성황당이 있던 곳이라서 성황당이라 부르던 것이 변화되어 서낭당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풍리 식골에 사는 주민들이 이야기 한다. 지금 13里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서울서 이사한 사람들이어서 일산읍에 대해서도 잘 아는 사람이 없고 바로 옆 9사단이 있는 풍1리 사람들만이 서낭당이라 부른다.

제보자 : 김농현

## (2) 탄현리(炭峴里)





탄현리의 지명유래가 된 숫고개

일산읍 탄현리는 고양군청이 있는 원당을 기준으로 볼 때 서북쪽에 위치하며 일산읍의 여러 마을 중에서 가장 북쪽으로 치우쳐 있는 지역의 법정리 명칭이다. 좀더 자세하게 그 위치를 살펴보면 북으로는 파주군 교하면·조리면과 접해 있으며, 동으로는 일산 5리~6리와 서쪽으로는 송포면 덕이리와 남쪽으로는 일산 1리·4·5리와 경계하고 있다.

탄현리는 1987년 1월 1일자로 송포면 덕이리에서 경의선 철도를 기준으로 우측 지역이 일산읍으로 편입되었다.

현재 탄현리는 탄현 1리와 2리로 행정 분리되어 있는데 탄현 1리와 2리는 여러가지 면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탄현 1리는 80년대에 들어서 대부분 도시화 되었는데 반해 2리는 대부분 농촌지역으로 남아 있다.

탄현리는 고양군에서 실시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지금의 모습은 앞으로 크게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곳에 지금은 집이 많고 사람이 많이 살지만 예전에는 몇집 안되는 조그만 동네였으며 또한 가난하여서 생계를 잊기 위해 숯을 구워 시장에 팔았다고 한다.

## 1) 탄현 1리(炭峴 1里)

탄현 1리는 일산에서 봉일천으로 이어진 307번 지방도로 주변과 일산리에서 봉일천 방향에 있는 마을의 행정리 명칭이다.

이곳의 원래 자연촌락 명칭은 탄현 2리의 하탄에 대한 지명으로 상탄[上炭] 마을인데 본래는 밭과 야산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지금은 곳곳에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다.

1989년 현재 이 마을에는 200가구 701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 ◎ 숙고개[炭峴]

탄현(炭峴)리는 한글로 풀면 숙고개가 되는데 『고양군지』에 따르면 숙고개라는 소지명은 원래는 숯고개가 변해서 생긴 이름이라고 한다. 『고양군지』에 따르면 숙고개라는 곳에는 예전부터 참나무가 많았는데 이것을 베어서 숯을 구웠다 하여 숯고개라 칭하게 되었다고 한다. 숯고개를 발음 편하게 하다보니 숙고개가 되었으며 탄현리는 흔히 상탄 중탄 하탄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한다.

### ◎ 상탄(上炭)

상탄은 탄현 1리의 자연촌락 명칭으로 탄현리의 여러 마을 중에서 지대가 높은 곳에 위치하였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307번 지방도로에 접해 있는 상탄은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2리 맨 끝쪽 지역에서 시작하여 개미고개까지의 지역이다.

### ◎ 갓굴

갓굴은 고봉산 방향에 있는 골짜기의 이름으로 골짜기의 생김새가 마치 갓처럼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 아랫말

아랫말은 상탄 내에서도 아래쪽에 있다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307번 지방도로의 오른쪽에 [기준은 일산] 위치한 아랫말은 약수터 못 미쳐서 있다. 상탄의 다른 여러 자연촌락에 비해서 규모는 작다.

### ◎ 병안

병안 마을은 일산에서 봉일천 방향으로 이어진 307번 지방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탄현리가 끝나는 곳에 위치한 조그마한 마을의 자연촌



현대화된 탄현리

락 명칭이다. 이곳을 병안이라 하는 것은 마을이 골짜기 안에 병처럼 자리잡고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 새작굴

새작굴은 약수터가 있는 곳의 자연촌락 이름으로 새작굴은 오래되고 큰 골짜기나 마을이 요즈음 새로 생겨났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 약수터

새작굴에는 이름없는 약수터가 하나 있다. 약수터는 자연적으로 생성된 게 아니라 20여 년 전에 가뭄이 심했을 때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판 것이 지금의 약수터다. 이 물은 식수로 뿐만 아니라 논에 물을 대는 데에도 이용된 다목적 우물이었다. 지금은 우물로 사용되지는 않고 약수터로 이용되고 있다. 물맛이 유달리 좋아 이 마을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서울 사람들까지 차를 타고 물통을 몇개씩 준비하여 와서 물을 나르고 있다고 한다.

### ● 빨래터 우물

갓굴에 위치한 우물의 이름으로 우물임에도 불구하고 빨래터라고 한 것은 이 곳에서 아낙네들이 빨래를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 ◎ 중탄(中炭)

중탄은 상탄과 하탄의 중간에 위치한 마을의 자연촌락 명칭으로 중탄은 달리 간디말이라고도 한다. 간디말이란 이름이 붙게 된 것은 상탄과 하탄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여 붙여진 명칭이라 한다.

### ◎ 홀트로

일산에서 봉일천으로 이어진 307번 지방도로에서 원쪽으로 아스팔트길이 하나 있다. 이 길을 따라 계속 가다보면 범령굴이 나온다. 이 아스팔트길을 홀트로라고 하는데 아스팔트 포장은 중탄에서 끝나지만 범령굴까지는 비포장된 흙길로 연결되어 있다.

이 아스팔트길은 주위의 가로수와 함께 여러 사람의 따뜻한 정성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 이 홀트로 및 가로수는 주식회사 쌍용양회공업, 주식회사 철관공업, 고양군 제3182부대, 주식회사 대한통운, 지역주민 및 홀트 임직원과 후원회원의 정성어린 성금으로 1983년 11월에 개통되었다. 이 길은 홀트학교의 장애자들 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한 길이 되었다고 한다. 이 홀트로를 따라 들어가다 보면 홀트일산복지타운이 나온다.

### ● 홀트일산복지타운

경기도 고양군 일산읍 탄현리 산68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홀트일산복지타운은 본부를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에 두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 일산지부다. 이곳은 1961년 미국인 농부 해리 홀트氏에 의하여 세워진 심신장애자들의 보금자리다.

설립 목적은 다음과 같다.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장애자들의 보육을 위하여 설립된 복지타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장애자를 보육하고 장애자 개개인의 재활을 구현하며, 장애자 개인 복지 및 사회복지를 성취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과 재활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일산홀트복지타운이 설립되게 된 연혁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1955년 미국인 농부 해리 홀트씨가 6.25사변으로 인한 혼혈고아 8명을 입양하면서부터 시작된 복지사업은 1961년 현소재지에 7만여평의 국유임야를 임대하여 심신장애 아동 보호시설을 건립하게 되면서부터 본격화되었다. 이후 64년에 정신박야아의 교육이 실시되었다. 756년에는 정신박야아 특수교육을 위한 홀트학교가 개교하게 되었으며 86년에는 홀트일산복지타운 시설 현대화 사업이 완료되었다.

장애인들에게 보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한 많은 후원자의 노력이 결실이 되어 장애자 종합 복지시설이 완성되었다. 시설 내용으로는, 70,000평의 부지에 홀트학교, 교회, 월체어 하우스, 직업재활관, 학교 기숙사, 기념관 및 홀트하우스, 생활관, 재활농장, 위탁생활관, 장애자 종합체육관, 병원 등의 건물이 소재하고 있다.

이곳에서 보호 받고 있는 장애아동 및 원생 수는 300여 명에 이른다. 원생들의 대부분은 두 가지 이상의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연령층은 유아에서부터 18~40여세까지 성년에 이르고 있다.

이곳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사업은 보육사업과 재활사업이다.

### ◎ 개미고개

307번 지방도로를 따라 벽제읍 쪽으로 가다 보면 일산읍과 벽제읍의 경계가 되는 표지가 보인다. 이 표지가 서 있는 곳을 개미고개라고 하는데 개미고개라고 이름 불히게 된 것은 이 고개가 개미허리처럼 좁기 때문이라고 한다.

제보자 : 황두섭 (78)

## 2) 탄현 2리(炭峴 2里)

탄현 2리는 앞에서 소개한 탄현 1리에서 파주군 조리면과 송포면 덕이리 방향에 있는 마을의 행정리 명칭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일산 1리·4리와 인접해 있는 곳으로 예전에는 대부분 논농사·밭농사 위주의 농촌지역으로 남아 있었으나 1980년대 중반 급속히 도시화 작업이 추진되어 지금은 옛 모습을 거의 볼 수 없다. 1990년 통계로 이 마을에는 1063가구 4019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범룡굴은 현재의 앵굴마을에서 경의선[서울~파주] 철길 건너 바라다 보이는 땅으로서 고봉산[태미산] 줄기의 아래에 있다. 범룡굴이라는 지명(地名)은 이곳에 범이 자주 나타났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철길 넘어도 예전에는 송포면(松浦面)이었는데 1987년 1월 1일로 행정리를 개편하여 지금은 일산리(一山邑)의 행정리로 들어간다고 한다.

#### ◎ 하탄(下炭)

하탄은 탄현 2리의 자연촌락 명칭으로 탄현리의 여러 마을 중에서 그 위치가 상탄에 비해 아래쪽에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 노성굴

노성굴은 일산 5리와 접경이 되는 지역의 옛 자연지명이다. 현재는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어 많은 인구가 상주하고 있다.

노성굴이라 칭하게 된 유래는 정확히 알 수 없으며 단지 옛날부터 그렇게 불리워졌다고 한다.

#### ◎ 법령골

법령골은 탄현 2리 마을 안에서 금촌 방향에 있는 골짜기의 이름으로 예전 이곳에 범[호랑이]가 자주 출현했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라 한다.

#### ◎ 가낙골[굴]

가낙골은 앞에서 설명한 공동묘지에서 하탄 방향에 있는 자연촌락 명칭으로 그 유래는 정확히 알 수 없다.

#### ◎ 공동묘지

홀트로를 따라 가다보면 오른쪽에 커다란 공동묘지가 보인다. 위치상 중단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길 옆에 붙어 있는 언덕배기 모양의 야산에 설치된 공동묘지에는 다수의 묘가 자리잡고 있다. 이 공동묘지의 특별한 이름은 없으며 예전부터 「공동묘지」라고만 불렸다고 한다.

이 공동묘지가 생긴 것은 일제식민지시대라고 한다. 이 공동묘지가 생긴 것은 땅 없는 가난한 이들의 묘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이 묘지의 구석에는 낡고 허름한 집 한채가 서 있는데, 이것이 이 마을의 상여도가다.

### ◎ 마을 고사 장소

마을 제사는 마을의 안녕을 위한 치성제라고 한다. 3년에 한 번씩 하탄의 가낙굴에서 치뤄진 마을 제사는 지금은 없어졌지만, 커다란 상수리나무 밑에서 고사 음식을 차려놓고 치뤄졌다고 한다. 최근에 이 상수리 나무가 떼어져 마을 고사 또한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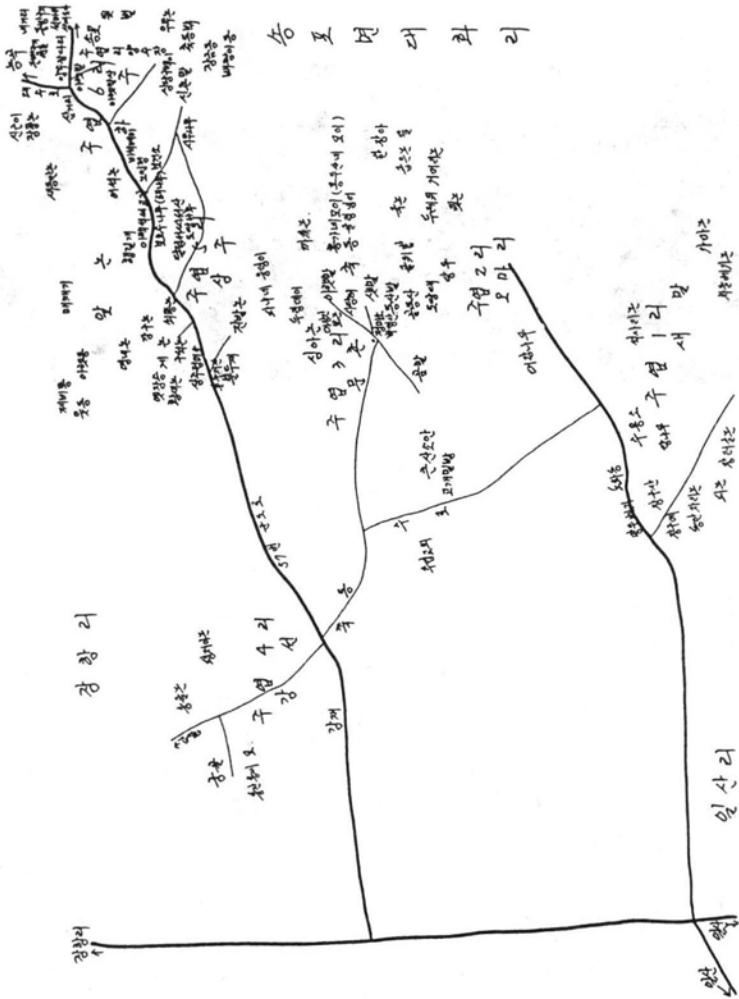
### ◎ 산제사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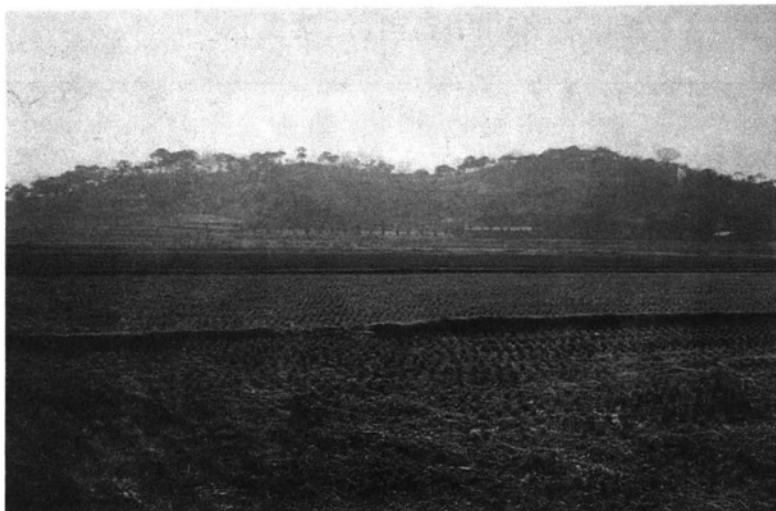
산제사는 마을 고사와 마찬가지로 지내던 곳은 상탄의 현재 홀트복지타운이 소재하고 있는 산이었다. 산제사 시기가 되면 집집마다 조금씩 쌀을 걷어 모아 제사 준비를 하였다. 준비한 것들을 산으로 옮겨 제사상을 차린 후에 산신령에게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축을 읊었다. 축은 특정한 인물 즉, 마을의 최고 노령자 또는 이장 등이 읊는 게 아니라 마을 사람들 중에서 3년에 한 명씩 교대로 돌아가면서 읊었다고 한다. 1961년 이후 홀트복지타운이 세워지면서부터 산제사의 터를 잊게 되어 산제사는 없어지게 되었다.

산제사나 마을고사가 터와 상수리 나무가 없어졌기 때문에 사라진 것이라고는 하지만 사회적인 변화 또한 큰 요인이 되었다. 산업화 도시화 현상으로 이 곳 주민들의 대부분이 타지에서 왔으며 또한 직업이 달라 사고방식까지도 각양각색이 되었다. 이러한 공동체적인 유대의장이 없어졌다는 것이 이러한 풍속을 사라지게 한 가장 커다란 요인이 되었다.

제보자 : 황두섭 (78)

### (3) 주엽리(注葉里)





주엽리의 나뭇잎 유래가 된 골동산

주엽리는 일산읍 읍사무소가 있는 일산리를 기준으로 볼 때 서남방향 한 강방면에 있는 마을의 법정리 명칭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위치를 소개하면 일산에서 한강방향으로 이어져 있는 57번 군도를 따라 약 3~4km 정도에 위치한 마을로 주엽리의 동쪽으로는 장항리, 일산리와 경계하고, 서쪽으로 송포면 대화리와 남으로는 김포군과 장항리와 인접하고 있으며, 북으로는 일산리와 경계하고 있다.

주엽리는 주엽 3리의 문촌(文村) 마을에 있는 골동산(곡동산) 꼭대기에서 볼 때 마을 전체의 지형이 잎사귀 모양으로 보여 '엽(葉)'자를 쓰고, 또 마을의 중앙으로 수로가 통할 것이라 하여 '흐를 주(注)'자를 써서 만들어진 이름이라 하는데 실제로 이곳에는 수리시설이 만들어져 있다. 한편 조선조 중종때의 『신증 동국여지승람』의 고양군안에는 荒調鄉이라는 소지명이 나오는데 이곳을 속칭 주엽리라 부른다고 기록되어 있다.

현재 주엽리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주엽리를 줄여 재비, 또는 제비라 부르는데 각 마을의 촌락들은 마을 주위의 작은 야산기슭과 골짜기에 자리 잡고 있으며 마을 앞뒤로 큰 벌판을 가지고 논농사 위주의 농업을 생업으로 삼고 있다. 또 각 마을들은 자연촌락 단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옥의 구조는 60년대 이후 근대·현대식으로 개조되어 있다. 현재 주엽리는 모두 5개

의 행정리로 구분되어 있는데 5개 마을 모두 신도시 지역에 포함되어 지금의 모습이 완전히 변하게 된다.

## 1) 주엽 1리(注葉 1里)

주엽 1리는 앞에서 소개한 일산 12리에서 한강방향에 있는 마을의 행정리 명칭이다. 다시 말하면 송포면 대화리와 일산 12리 사이에 위치한 마을이다.

주엽 1리의 자연촌락 명칭은 새말(新村)인데 이것은 아주 옛날에 주민이 살지 않다가 해방이후 새로이 생긴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현재 주엽 1리는 작은 산기슭에 촌락이 위치하고 있으며 교통이 편리해 세입자들도 많이 살고 있다.

1989년 통계로 이 마을에는 94가구 355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 ◎ 장구메[뫼]

장구메는 동네 어귀 끄트머리로 산 하나가 떨어져 있는데 이 산의 형태가 마치 장구모양으로 생겼다 하여 붙여진 마을 이름이다.

### ◎ 장구산

장구모양의 산으로 이 산에 홍판서 집안의 묘가 있다. 예전에는 집안의 가세가 좋아서 묘를 쓸 때 상석을 두고 문인석을 세웠다. 그리고 석양을 놓고 수염을 다 다듬기 전에 집안이 망했다고 한다. 이유인즉, 장구는 소리가 나야 생명이 있는 것인데, 장구위에 돌을 엎었기에 소리가 날 수 없었기 때문이라 한다. 또 달리 장구혈에 묘를 써서 집안이 망했다고 한다.

### ◎ 신촌[新村] · 새말

신촌은 주엽 1리의 자연촌락 명칭으로 새로이 만들어진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 망두베기

일산 12리에서 큰 길을 지나 대화리 쪽으로 내려가면 샛길이 나온다. 이 샛길 언덕에 산소가 있었는데 양쪽에 망주석이 있었다 하여 망두베기라 부른다.

### ◎ 도화동[복사골]

앞에서 소개한 망두베기에서 마을로 더 들어가 축사가 있는 집 부근의 자연 지명이다. 이곳을 도화동[복사골]이라 부르는 것은 예전에 이곳에 복승아 나무가 많아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 ◎ 수용소

수용소는 앞에서 소개한 장구메에서 벌판쪽에 위치한 마을의 자연촌락 명칭으로 옛날에는 국유지 논·밭·산이었으나 6.25사변 당시 장단 사람들이 이곳에 피난와 살면서부터 마을이 커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수용소는 피난민들이 이곳에 정착하면서 생긴 지명이다.

#### ● 향나무

이 향나무는 약 200여년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이 나무를 심은 것은 마을의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 벌판을 바라보게 심은 것이라 한다. 마을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곳 그늘 밑이 땀을 식히면서 휴식하는 곳이라 한다.

### ◎ 축동[동] |

축동은 앞에서 소개한 향나무가 있는 곳의 옛 자연지명으로 예전에 이곳에 나무들이 많이 있어 붙여진 지명이다.

#### ● 가마논

옛날에는 논에서 쌀 반가마니 나오기도 힘들었는데 이 논에서는 해마다 쌀 한 가마니는 나올 정도로 벼가 잘 되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 고논

고논은 소출이 매우 높다고 하여 붙여진 논의 이름이다.

#### ● 석사리논

위치와 유래를 잘 알 수 없다.

#### ● 피논

피논은 물이 말라 농사는 제대로 되지 않고 피만 나온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 동안자리논

장구산 밑에 있는 논의 이름으로 과거에 물을 저수 시켜놓았던 동 [논뚝] 안에 있는 논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 차돌베기논

차돌베기논은 옛부터 이 논에 찬돌들이 많이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 장터굴논

장터굴논은 주엽 1리 마을에서 일산 12리 마을 방향에 있는 논의 이름으로 일산장으로 가는 길 주변에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제보자 : 신촌 노인정

## 2) 주엽 2리(注葉 2里)

주엽 2리는 앞에서 소개한 주엽 1리에서 한강방향에 있는 마을의 행정리 명칭으로 앞에서 소개한 일산 11리와 인접해 있다.

주엽 2리의 옛 자연촌락 명칭은 오마리(五馬里)인데 이 지명에 대한 유래에는 유명한 설화와 관련이 있다.

현재 이 마을에는 해주 오씨들이 집성촌을 이루어 살고 있는데 이들이 이 마을에 처음 정착한 것은 1684년이다. 이 마을은 3면이 모두 넓은 벌판이며 일산 11리와 통하는 도로가 일산리로 이어지고 있다. 1989년 통계로 이 마을에는 54가구 243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 ◎ 오마리(五馬里)

오마리는 주엽 2리의 자연촌락 명칭으로 옛날에 이 마을에 장사가 태어났는데 겨드랑이 밑에 날개를 달고 있었다. 이 장사가 역적이 되어 집안이 망할까봐 우려한 사람들이 장사를 죽였는데 이때 말(馬) 다섯마리가 마을을 울며 떠돌다가 언덕을 넘어 사라졌다고 한다. 이후 이 마을의 명칭이 오마리가 되었다고 한다.

또 달리 해주 오씨들이 집성촌을 이루어 산다고 해서 "오마리"라 불리게 되었다고도 한다. 실제로 1930년도에 조사된 바에 의하면 이

마을은 순수한 해주 오씨들의 동족촌락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sup>2)</sup>

#### ● 대감나무

오마리 아랫말과 윗말 사이의 언덕에 서 있는 나무로 이 마을에서는 신성시하고 있다. 옛날에는 이 나무를 함부로 만지거나 꺽을 수 없었다고 하며,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벼락을 맞아 죽었다고 한다. 20여년 전까지만 해도 이 나무에서 고사를 지내 마을의 안녕을 빌었다고 한다.

제보자 : 오수길, 오계환(73)

### 3) 주엽 3리(注葉 3里)

주엽 3리는 앞에서 소개한 주엽 2리 마을에서 한강방향에 있는 마을의 행정리 명칭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그 위치를 소개하면 일산에서 한강방면으로 이어진 57번 도로를 따라 약 3km 가 사거리에서 우측으로 있는 마을이다. 이 마을의 옛 자연촌락 명칭은 문촌(文村)마을이며 이곳에도 주엽 2리와 같이 해주 오씨와 밀양 박씨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마을은 크게 아랫말·셋말·곰말로 나뉘어지는데 마을 뒷편의 골동산 기슭과 이 산줄기 주변에 촌락들이 자리잡고 있다.

마을의 앞으로는 대화리 방향과 주엽 5리·6리 방향으로 넓게 벌판이 펼쳐져 있는데 수로를 이용한 수리시설이 잘 만들어져 있다. 이 마을 주민들은 대부분 논농사 위주의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1989년 통계로 109가구 457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 ◎ 문촌(文村)

문촌은 주엽 3리의 자연촌락 명칭으로 옛날 현재의 마을회관 터에 글방이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이 일대 사람들이 모두 글을 배우러 이 곳에 모였다고 한다.

또 달리 옛날에 큰 문장가들이 많이 살고 있다 하여 붙여진 지명이라고도 한다. 쉽게 발음하기 위하여 문말·문마루라고도 부른다.

2) 고양군지편찬위원회, 〈고양군지〉, 『사단법인 고양문화원』, 1987.p.882  
참조

### ● 재이밭

재이밭은 곰말에서 오마리 방향에 있는 밭 이름으로 재이밭은 큰 고개옆에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 ◎ 골동산

골동산은 마을 뒷편에 있는 야산의 이름으로 예전 이 산에 장사 여럿이 골을 파고 살았는데 어느날 이 골이 무너지게 되자 몇몇 장사는 주엽 2리(오마리)로 가고 한 장사는 주엽 3리 978번지로 가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이 장사가 태어나자 마자 곧 마당에 있는 팟 섬을 집어 들자 마을에서는 역적이 태어났다고 난리가 났고 나라에서는 이를 잡아들여 겨드랑이 날개를 지쳤다고 한다. 이때 이 장사는 파주 보광사 불속으로 뛰어 들어갔다고 한다.

골동산은 장사들이 이 산에서 골을 파고 살았다는 데서 유래한 이름으로 현재 박씨·오씨의 종종산이 자리잡고 있다.

이곳에는 일제식민지시대 때 일본인들이 쇠말뚝을 박아 장사가 나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 ◎ 아랫말

문촌 마을안의 작은 촌락 이름으로 그 위치가 아래쪽에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 ◎ 샌말

마을의 위치가 마을과 마을 즉, 아래말과 곰말 사이에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 파냐네 웅덩이

일제식민지시대 때 주엽 5리에 파냐라는 일본인이 살았는데 이 사람은 일본군 소위로 제대한 군인인데 특별히 직업은 없이 사냥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지주였다고 한다. 파냐네 웅덩이는 파냐가 소유하던 논에 양어장을 만든 후 붙여진 이름인데 농지 정리 때 없어졌다고 한다.

### ◎ 홍두산네 모이

아랫말 뒷편에 있는 작은 야산의 이름으로 옛날 이곳에 홍씨 성을

가진 판서묘가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이곳은 논들과 가깝고 산 위에 큰 나무들이 있어 옛날에 주민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하던 곳이라 한다.

### ◎ 도당굿산

골동산 꼭대기 참나무 밑에서 마을의 평안을 빌었던 도당굿은 약 60여년 전까지 행해졌다고 한다. 참나무는 신령스럽다고 하여 만지지도 않고 나무가 귀해도 그 누구도 다치게 한 사람이 없었다. 참나무 주변에는 묘자리를 쓰지 않는데 묘를 쓸 경우엔 산이 울고 마을에 털이 생긴다고 한다. 현재 참나무는 어멈참나무가 쓰러지고 나서 자란 나무라고 한다.

### ◎ 곰말

곰말은 골동산 밑에 있는 자연촌락의 이름으로 집들은 골동산 골짜기 안쪽에 위치하고 있다. 곰말은 골말이 변해서 생긴 듯 하다.

#### ● 골안밭 · 골뒤밭

골안밭은 골동산을 기준으로 볼때 마을 방향에 있는 밭의 이름이고, 골뒤밭은 골동산 뒷편에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 ◎ 주업리 박계멱네

박씨 선조가 계멱이라는 벼슬을 갖고 이 고을을 다스리고 살다가 정착하였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 축동(축동)

축동은 샛말에서 아랫말로 이어지는 길의 옛 지명으로 옛날 이곳에 아랫말까지 산등성이가 이어지고 또 큰 향나무들이 길게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 나무들은 벌판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아주고 마을이 밖으로 노출되지 않게 하는 두가지 기능을 했다고 한다.

### ◎ 골령너머

앞에서 소개한 홍두산네 모이를 넘어다니던 조그만 언덕의 이름으로 나무가 많아 여름에 휴식처로 이용되었다고 한다.

### ◎ 서당터

아랫말 야산기슭에 있는 지명으로 예전 이곳에 정자 또는 서당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 ● 동산밭

셋말 오정규씨 집 앞에 있는 밭의 이름으로 그 위치가 동산에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 ◎ 박형산

박형산은 정미소 뒷편에 있는 작은 야산의 이름으로 이곳에 박씨의 묘가 있어 붙여진 이름인 듯 하다.

#### ● 당두

골동산 뒷쪽에는 예전 경지 정리 하기 전에 색강이 있었는데 당두는 당두리배가 닿았다고 하여 붙여진 논 이름이다.

#### ● 국논

마을 앞에 있는 논의 이름으로 예전 일제식민지시대 때 이 논의 소유가 동양척식회사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 대장간앞논

옛날 이 마을에 대장간이 있었는데, 이 논의 위치가 대장간 부근에 있어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 ● 싱아논

싱아논은 지금 아랫말 마을과 주엽 5리 상주마을 사이 정자 부근에 있는 논의 이름으로 옛부터 이 논에 싱아풀이 많이 자라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 ● 두레뒤 거머리논

예전 이 마을의 두레배가 놀던 논의 이름으로 유난히 거머리가 많아 붙여진 이름이다.

#### ● 진밭대논

진밭대논은 유난히 땅이 질어 벼가 아주 잘 됐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 까까논

까까논은 옛날에 사탕하고 바꾸어 먹은 논이라 하여 불여진 이름이다.

### ● 수령논

수령논은 아랫말 앞에 있는 논의 이름으로 이 논에 유난히 수령이 많아 불여진 이름이다.

### ● 뒷논

뒷논은 마을 뒷편 골동산 넘어 오마리 방향에 있는 논의 이름으로 문촌마을 뒷편에 있어 불여진 이름이다.

### ● 명기네 논

이 논은 논주인의 이름인 명기자를 따서 불여진 논이름이다.

### ● 곱은논 · 뜰

곱은논은 대화리 방향에 있는 논의 이름으로 논의 생김새가 마치 소의 질마와 같이 구부러져 있다 하여 생긴 이름이며, 이 부근을 흔히 곱은논 뜰이라 부른다. 이 논의 면적은 현재 837평이라 한다.

### ● 한장아

곱은논에서 대화리 방향에 있는 논 이름으로 옛날 하늘만 보고 농사를 짓던 시절에는 물이 없어 일일이 물지게에 물을 떠다가 모를 심어 매우 힘들었다고 한다. 한장아는 이때 한이 많이 배겼다고 하여 불여진 이름이라 한다.

### ● 두령데이

두령데이는 아랫마을 앞에 있는 논의 이름으로 논바닥은 좁고 길은 넓어서 불여진 이름이다.

### ◎ 큰산소안(大山)

강선[주엽 4리]에서 문촌으로 들어오다가 우측에 있는 지명으로 큰 향나무와 바위들이 몇개 있는 곳의 이름이다. 이곳은 해주 오씨의 대종중산인데 앞에서 소개한 골동산을 달리 대산으로 표현한 것이다. 일제식민지시대 때 함경도에서 한 선비가 큰 산소안의 소문을 듣고

이 묘소의 크기를 확인하려 했으나 큰 산소안은 큰 묘소가 있어 붙여진 것은 아니고 명당, 좋은 자리라는 뜻으로 불려져 큰 묘소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한다.

제보자 : 오규형(67), 박기학(56)

#### 4) 주엽 4리(注葉 4里)

주엽 4리는 앞에서 소개한 주엽 3리 문촌마을에서 정발산 방향에 있는 마을의 행정리 명칭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일산에서 한강으로 이어진 57번 도로 좌·우측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은 자연촌락 단위로 만들어져 있는데, 주엽 4리의 옛 자연지명은 강선·궁골 마을이다. 이 마을은 대부분 논농사, 밭농사 위주의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다.

이곳은 달성 서씨의 집성촌으로 있었으나 요즈음에 외지사람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다. 1980년대에 들어 몇개의 공장이 들어 섰으며 1989년 통계로 이 마을에는 109가구 457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 ◎ 강선

강선은 주엽 4리의 자연촌락 명칭으로 이곳에 신선이 내려와 놀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 궁골(宮谷)

강선마을 내에 있는 20호 정도의 촌락을 부르는 자연촌락 지명으로 옛날 궁이 있었던 자리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즉 고려 어느 왕의 별장이었다고 하며 이 일대가 예전에는 한강이어서 배를 타고 여기에 닿아 왕이 놀다간 곳이라고 한다.

##### ◎ 축동(죽동)

주엽 3리 문촌과 주엽 4리 강재의 경계되는 지역의 소지명으로 과거에는 나무가 우거져 있어서 무서운 곳이었다고 한다. 이 축동은 나무가 많이 있어 붙여진 지명인 듯 하다.

##### ◎ 강재

강재는 일산에서 강선마을로 넘어오는 고개의 이름으로 예전 이곳에 선녀가 내려 왔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평재이논

평재이논은 논의 생김새가 넓고 평평하여 붙여진 이름인 듯 하다.

● 궁골논

궁골논은 논의 위치가 궁골마을에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제보자 : 서순석(60), 서임석(78)

## 5) 주엽 5리(注葉 5里)

주엽 5리는 앞에서 소개한 주엽 4리 마을에서 장항리 한강 방향으로 약 400m정도 떨어진 마을의 행정리 명칭이다.

주엽 5리의 자연촌락 명칭은 상주(上注)마을인데 대부분 옛 농촌 자연촌락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나 가옥의 구조는 대부분 근대적 모습으로 변모하였다. 예전부터 이 마을에는 달성 서씨, 전주 이씨 성을 가진 사람들이 집성촌을 이루어 살아 왔는데 이들이 처음 이 마을에 정착한 것은 1800년의 일이라고 한다.<sup>3)</sup> 1989년 통계로 이 마을에는 62가구 244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 상주(上注)

상주는 주엽 5리의 자연촌락 명칭으로 주엽 6리의 하주 마을에 비해 그 위치가 윗쪽에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부둣재논[분두재논]

분두재논은 주엽 4리 강선마을에서 온 수로뚝 안쪽에 있는 논의 이름으로 한강제방이 쌓여지기 전에는 마을에 물이 범람하기 일쑤였다 고 한다. 아마도 현재의 부둣재 논은 배를 대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 듯 하다.

● 해나무

주엽 6리로 향하는 길 안쪽에 있는 600년 정도 된 나무로 영험해서

3) 1) 과 같음.



주엽리 이택석씨 고가 앞의 보호수 나무

농사를 점친다고 한다. 봄에 이 나무 윗쪽으로만 꽃이 피면 들의 안쪽 논이 풍년이 되고 반대로 꽃이 밑에만 성하게 피면 들의 바깥쪽이 잘된다고 한다. 위·아래 골고루 꽃이 성하게 피어야 풍년이 모든 들판에 찾아온다고 한다. 나무의 잎으로도 논밭 농사가 잘 되고 안되고 를 점치기도 한다. 금년의 경우에는 나무 윗쪽에만 약간의 꽃이 피어 실제로 흉작이어서 이 설(說)이 맞았다고 한다.

### ◎ 도당굿 장소

도당굿 장소는 해나무에서 주엽 3리 문촌마을 방향에 위치하고 있으며 작은 산 위의 도당나무 밑에서 도당제사를 지내고 있다. 이 도당제는 3년에 한번씩 봄에 하는데 마을의 경제사정에 따라 할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다고 한다. 도당제는 봄에 제삿날을 정하고 길·흙을 따져서 제주를 정한다. 제는 날짜를 받은 날 0시(밤)에 행해지는데 제주와 2명만이 가서 지낸다. 다음날 음식은 마을사람들과 나누어 먹는데, 다른 마을과 달리 도당나무를 섬기거나 금기사항은 없다. 현재 도당나무에는 여러개의 확성기가 달려있다.

### ◎ 재비

재비는 주엽리를 달리 발음하는 것으로 이 마을 일대에 물이 차 있어서 물을 퍼내서 논에 공급해 주는 수로가 있다. 이 수로는 앞에서 소개한 주엽리의 '물댈 주(注)'자와 '나무잎 엽(葉)'자를 따서 주엽리라고 했다. 재비는 주엽리를 쉽게 부르는 것이다.

### ◎ 분두재산

강선(주엽 4리)마을에서 상·하주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 우측에 있는 작은 야산의 이름으로 지금은 대부분 달성 서씨의 묘들이 자리 잡고 있다. 분두재산은 이 산의 흙이 붉어 붙여진 이름이다.

#### ● 진밭논

분두재산에서 주엽 3리 문촌마을 방향에 있는 작은 밭을 부르는 이름인데 다른 곳에 비해 밭이 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 분두재

분두재산 기슭에 있는 집들을 부르는 소지명으로 분두재산에 있다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지금은 2채의 집이 있다.

#### ● 상주 방앗간

상주마을 입구에 있는 정미소의 이름으로 예전부터 이 부근 마을의 벼를 쌀로 만드는 역할을 해왔다. 방앗간이 이 곳에 자리잡은 것은 약 20년 쯤 된다고 한다.

### ● 구석논

방앗간 집 주변에 있는 논의 이름으로 그 위치가 구석에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 황새논

주엽 5리 상주정미소에서 장항리 저전마을 방향에 있는 논의 이름으로 예전에 이 논에 황새를 만들어 놓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 옛 장승 · 황새

황새논 논뚝에는 지금은 없으나 예전에 큰 장승 두 개가 있었다고 한다. 이 장승이 만들어진 것은 마을에서 워낙 화재가 자주 발생하여 재산·인명이 큰 피해를 보자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장승을 만들어 마을을 지켜 주기를 기원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지금의 황새논 근처에 장승과 황새를 만들었으며 그 후에는 이 마을에 화재가 없었다고 한다.

### ● 쇠똥논

황새논에서 하주마을 방향으로 좀더 내려오면 있는 논의 이름으로 비료를 주지 않아도 쇠똥이 많아 농사가 잘 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 장구논

마을 앞논 들판에 있는 논의 이름으로 논의 생김새가 마치 장구 모양과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 게논

장구논에서 장항리 닥발마을 방향에 있는 논의 이름으로 예전부터 이 논에 게가 많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 영내논

게논에서 하주마을 방향에 있는 논의 이름으로 마을 쪽으로 가까이에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현재 영내논은 15마지기 3000평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 달리 집을 지을 때 사용하는 짚으로 만든 이엉을 배에서 내리고 실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 행길개

이택석씨〔현 국회의원〕 고가에서 장항리 노루메기마을방향에 있는 논의 이름으로 큰 행길 옆에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 이택석씨 고가

상주마을과 하주마을 경계에 있는 옛 초가집으로 모든 것이 옛 그대로 남아 있다. 이 집의 대들보 상량에는 「조선개국 504년 초 1일」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 1896년에 건립된 것임을 알 수 있다.

### ● 앞논

주엽리와〔상·하주 마을〕 장항리〔1리·2리〕사이에 있는 큰 벌판의 이름으로 그 위치가 주엽리 마을의 앞쪽에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 ● 제비뚱〔동〕, 웃동, 아랫동

지금은 남아 있지 않으나 예전 주엽리와 장항리 닥발마을 사이에 있던 저수지 논뚝의 이름이다. 유래는 잘 알 수 없으며 위에 있는 것은 웃동, 아래에 있는 것은 아랫동이라 한다.

제보자 : 이봉수(71), 이수근(68), 박영면(60), 황이연(75),

이우석(70), 박찬연(68), 황의석(59), 이창열(58),

신용주(65), 이영수(60), 김지문(51)

## 6) 주엽 6리(注葉 6里)

주엽 6리는 앞에서 소개한 주엽 5리 마을에서 장항 4리 방향으로 맞닿아 있는 마을의 행정리의 명칭이다. 주엽 5리 상주마을과의 특별한 경계점은 없으며 마을 가운데 있는 보호수 나무를 경계로 상·하주 마을로 구분한다.

주엽 6리의 경우도 5리 상주마을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면서도 촌락의 형태는 근대식으로 개량되어져 있다. 이 마을도 달성 서씨, 전주 이씨 성을 가진 사람들의 집성촌으로 이루어졌으며 지금도 이들의 후손들이 살고 있다. 예전에 한강제방이 쌓여지기 이전에는 이 곳 아랫말 산이 있는 곳까지 한강물이 들어왔다 하며 1989년 통계로 58가구 226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 하주(下注)

보호수 회화나무를 중심으로 한강방면에 있는 마을로 그 위치가 주엽리 아래쪽에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아랫말

하주마을 중에서 제일 아래방향[한강제방 방향]에 있다 하여 붙여진 지명인데 지금은 서너채의 집이 남아있다.

● 이씨(李氏) 묘

하주[주엽 6리]마을에 가면 경로당 뒷편에는 아무런 표시나 망주·석인도 없고 봉분도 이장해 간 채 비석만이 남았는데 이 비는 앞뒤에 모두 글씨가 새겨져 있고 또 갑석 및 개석이 모두 갖추어져 서 있다.

본래 이 묘는 3개의 봉분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묘 앞에는 동자석·망주석·상석 등이 모두 갖추어져 있다가 1년전 자손되는 사람이 묘



주엽리 하주마을의 아랫말과 나뭇잎이 흐르던 대수로

소는 모두 화장하고 그 나머지 석물들은 얼마전 밤에 도굴해 집어가 지금은 상석 2개와 비석 1개만이 남아 있다.

### ◎ 아랫말산

아랫말에는 높이가 약 30m 정도 되는 야산이 하나 있고 이 야산 바로 옆에는 작은 구릉성 산이 나란히 있는데, 흔히 이 산을 아랫말에 있다 하여 아랫말 산이라 부른다.

이 산에는 예전부터 많은 나무들이 있었고 지금도 큰 나무들이 그대로 있으며 논과 산봉우리 쪽으로는 소나무와 묘들이 자리잡고 있다. 예전에 대보뚝(한강뚝)이 쌓여지기 전에는 배들이 이 산 밑에까지 들어와 정박하였다 한다.

### ◎ 축동밖

보호수 해나무에서 하주마을로 50m 정도 들어오다가 우측으로 가면 지금도 사용하는 축동밖이란 곳이 나온다. 이 곳에 지금은 없지만 예전에 큰 나무들이 많아 이 나무들이 있던 곳을 축동밖이라 불렀다.

#### ● 어석논

하주마을 보건소에서 앞들[장항리 노루메기] 방향에 있는 논의 이름으로 다른 여러 논들에 비하여 그 소출이 많아 붙여진 논이름이다.

#### ● 새동안논

어석논에서 장항리 노루메기마을 방향에 있는 논의 이름으로 새로이 만든 동[논뚝] 안쪽에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현재 이 논의 크기는 12마지기이다.

#### ● 수리조합양수장

아랫말 수리조합 대수로에는 20여년 전에 세워진 양수장이 있다. 이 양수장은 장항리·주엽리·대화리 벌판에 대수로를 통해서 농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 ● 수리조합다리[양수장다리]

아랫말 양수장 부근에는 길이 7m 정도의 다리가 있는데, 흔히 양수장다리라 부른다. 이 다리는 본래 없었다가 농지 정리 후 대수로가

새로이 생겨 만들어진 다리이다.

● 상여도가

아랫말산 밑에는 슬레이트 지붕의 작은 집이 있는데, 이 마을의 상여를 보관하고 있는 집이다. 이 곳에 있는 상여는 본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었으나 너무 낡아 최근에 다시 만든 것이라 한다.

● 돌빵구지

아랫말산이 끝나는 부분에 바위가 많아 예전부터 이 곳을 돌빵구지라고 불렀다 한다. 이 곳은 예전에 배가 냉던 선착장이었으며 여름에는 마을의 휴식처로 유명한 곳이라 한다.

● 돌빵구지 연못

돌빵구지 앞 대수로에는 수영도 하고 낚시질도 하던 연못이 있었는데 그 크기는 4백여평 정도였다고 한다. 본래 연못이 잘 보존되다가 농지 정리시에 모두 없어졌다고 한다.

◎ 장풍개울

아랫말마을에서 장항리 방향에 있던 옛 개울의 이름으로 이곳에 여자들이 머리를 감을 때 사용하는 창포가 많이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비석베미

비석베미는 주엽리 보건소·노인정이 있는 곳에서 산쪽으로 있는 소지명으로 비석베미는 이곳에 큰 비석이 있다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이 비는 전주 이씨의 비로 그 크기는 높이가 3m정도였다고 한다.

● 상낭구백이

비석베미를 지나 하주마을 방향 우측에 있는 지명으로 예전에 이 곳에 상낭구들(향나무)이 빽빽하게 많이 있었다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우묵논

상낭구백이 근처에 있는 논의 이름으로 그 정확한 유래는 알 수 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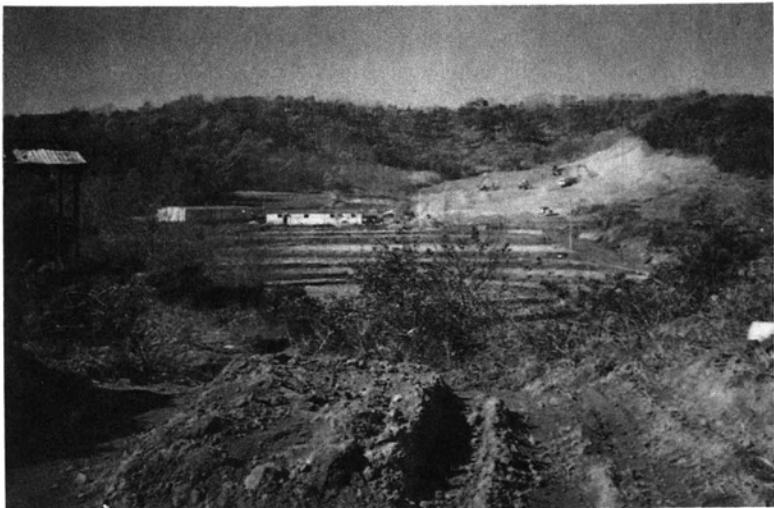
으나 아마 논의 모양새가 우뚝하게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인 듯하다.

◎ 뒷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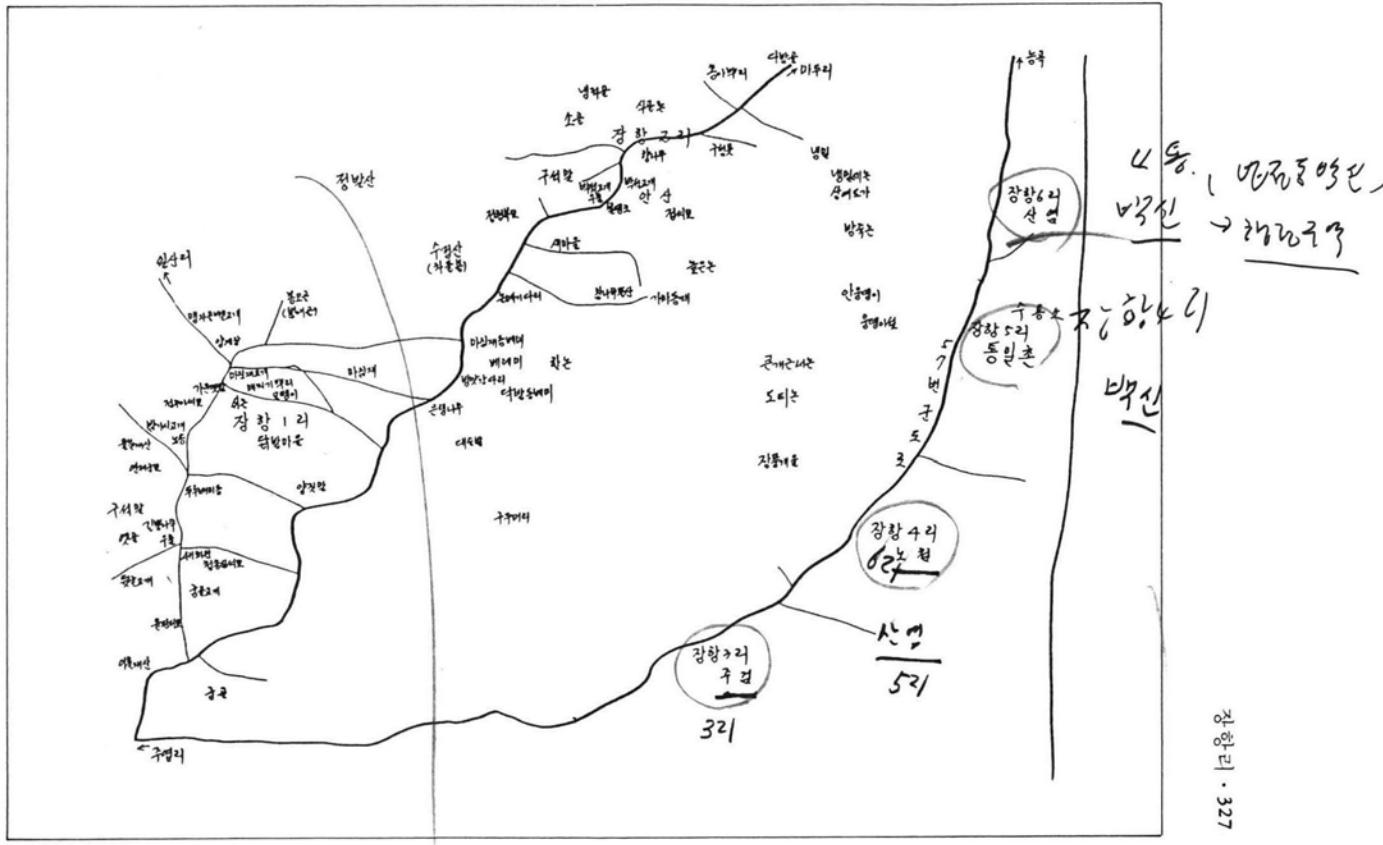
아랫말 산에서 대화리 방향으로 펼쳐진 넓은 들판을 부르는 이름으로 마을의 뒷쪽에 있다 하여 뒷벌이라 한다.

제보자 : 서천석(69), 조남옥(78), 이상익(57), 천우용(56),  
윤만중(58), 이경식(67), 최범용(67), 서춘석(77),  
이인수(75) 등 경로당 할아버지 들

(4) 장항리(獐項里)



장항리의 지명유래가 된 노루가 살던 정발산과 산기슭



일산읍 장항리는 일산읍 읍사무소를 기준으로 볼때 서남쪽 방향에 위치한 법정리의 명칭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그 위치를 소개하면 장항리를 기준으로 동쪽으로는 백석리·마두리와 경계하고, 서쪽으로는 주엽리, 남쪽으로는 한강을 사이에 두고 김포군과 북으로는 일산리와 경계하고 있다. 장항리라는 명칭도 주엽리와 같이 마을의 지형으로 부터 유래한 것이라는 설이 있다. 즉, 마을 전체의 생김새가 노루의 목처럼 길다고 하여 '노루 장(獐)'자 '목항(項)'자를 써서 장항리라 했다는 것이다. 장항리 마을은 예전에 정발산에서 이 마을로 노루가 내려와 사람을 보고도 도망가지 않았다 한다.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은 노루를 잡아먹지 않고 노루를 보면 쫓아내었다. 그리하여 이 마을을 노루가 많은 곳이라는 뜻으로 노루메기라고 한다.

현재 장항리는 1, 2리가 신도시 지역에 포함되어 여러 집이 이사하여 페허가 되었고 남아 있는 마을의 주민들도 1991년 3월 말까지 이사를 가기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다. 장항리는 현재 궁골·노루메기·닥밭·새마을·가운뎃말·구석말·맹자골·주검·노첨·산염 등 여러 자연촌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 1) 장항 1리(獐項 1里)

장항 1리는 일산-능곡간 398번 도로 밤까시마을에서 우측으로 큰 고개를 넘어 들어오면 보이는 마을의 행정리 명칭이다.

달리 이 마을은 일산리에서 57번 군도로를 따라 들어와도 되는데 마을의 촌락들은 정발산 기슭에 자연촌락 단위로 자리잡고 있다. 옛부터 논·밭농사 위주의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은 전주 이씨 효령대군의 자손들이다. 1989년 통계로 이 마을에는 83가구 329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 ◎ 닥밭[楮田]

닥밭은 장항 1리의 자연촌락 명칭으로 본래 이 곳에 종이를 만들던 닥나무가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아 붙여진 지명이다. 닥나무는 뽕나무과에 속하는 낙엽관목(落葉灌木)으로서 나무의 껍질은 종이 만드는 데에 쓰이고 과실은 약재로, 어린 잎은 식용으로 쓰인다. 예전에는 이 마을에 닥나무가 많아 마을 사람들이 그 껍질로 창호지를 만들어 팔아 가계에 보태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닥나무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주엽리 방향에서 본 장항리 마을과 정발산

#### ● 윤판서 묘

장항 1리 궁골마을에 있는 묘소로 이물재산 기슭에 자리잡고 있다. 지금 이 묘소 부근에는 몇개의 묘가 잘 보존, 관리된 상태로 남아 있다. 윤판서 묘에는 현재 석수 2개 · 상석 · 망주석 등이 그대로 있으며 신도시 개발과 더불어 이장될 계획이다.

#### ◎ 궁골고개

윤판서 묘를 지나 율동(밤나무마을)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작은 고개의 이름으로 이 마을에서는 궁골에 있는 고개, 또는 궁골로 넘어가는 고개라는 의미에서 궁골고개라 부른다.

#### ● 청송 심씨 묘

궁골마을에서 닥발마을로 넘어가는 궁골고개 우측에 자그마한 야산이 있고 이 산에는 큰 묘소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장하여 묘소는 없고 버려진 동자석과 묘의 석관만이 남아있다.

### ● 4H회관

궁골고개 바로 옆에 흰 건물이 보이는데 70년대 새마을운동이 전개되면서 활성화된 마을 청년조직의 모임인 4H클럽에 토론 장소로 전립된 것이라 한다. 이 마을 4H운동은 매우 활성화되어 인근지역에 널리 알려졌는데 특히 4H 회장이던 이강혁씨는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다고 한다.

### ◎ 이물재산

장항 1리 궁골마을 동북쪽에 위치한 야산의 이름으로 그 높이는 해발 약 40m 정도이며 대부분 소나무, 향나무로 조성되어 있다. 이물재산이란 지명의 정확한 유래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며 신도시 개발과 함께 없어질 야산 기슭에는 윤씨·청주 한씨의 묘가 각 골짜기와 등성이에 자리잡고 있다.

### ◎ 넘어궁골

일산리 후동에서 닥밭마을로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자연촌락의 명칭으로 궁골넘어에 있다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지금 약 20가구가 살고 있다.

### ◎ 구석말

구석말은 앞에서 소개한 밤가시마을에서 닥밭마을로 넘어오는 밤가시고개 밑에 있는 마을이름이다. 이 마을을 구석말이라 하는 것은 마을의 위치가 문동이산·이물재산 등의 골짜기에 가려져서 제일 구석에 있다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현재 구석말은 약 10여채의 집이 있으며 구석말 뒷산에는 전주 이씨 연제군 묘소가 있다.

### ● 길뽕나무

구석말 마을 한 가운데에는 큰 고목이 하나 남아 있는데 지금은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다. 나무는 크지 않으나 생김새가 매우 특이하고 언뜻 보더라도 수백년 자란 고목임을 금방 알 수 있다. 본래 이 나무는 중국에서 연제군이 가져와 심은 것이라 한다. 예전에는 매우 크고 우람하였는데 몇 십년 전부터 피를 토하거나 하혈을 할 때 이 나무의 잎을 먹으면 낳는다 하여 인근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나무가지와 잎

을 따 가서 지금은 나무의 크기가 줄어들었다 한다. 현재는 나무잎을 따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신도시 개발 이후에도 보존되기를 이 마을 사람들은 바라고 있다.

### ◎ 옛골

옛골은 구석말을 달리 부르는 명칭으로 닥밭마을에 처음 사람이 살기 시작한 오래된 골짜기란 뜻으로 불리워지는 이름이다. 예전에 처음 이 마을에 살기 시작한 전주 이씨 효령대군의 손자 연제군이 기거 하던 곳으로 길뽕나무와 우물, 그리고 그의 묘소가 있다.

#### ● 구석 말 우물

구석말마을 길뽕나무 옆에 매우 오래된 우물이 하나 있는데 흔히 구석마을에 있는 우물이라 하여 구석말 우물이라 한다. 현재 이 우물은 식수로 사용되기보다는 생활용수나 농경용수로 사용되고 있다.

#### ● 연제군(硯提君) 묘

구석말마을 뒷산에는 비석과 상석·문인석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묘가 하나 있는데 이 묘가 닥밭마을에 처음 정착한 연제군의 묘이다. 연제군은 조선 제3대 태종의 둘째 아들인 효령대군의 증손이다.

### ◎ 두루베미동

구석말 마을에는 두루베미동이란 곳이 있는데 이 마을 이기성씨에 의하면 이 마을 길뽕나무와 우물이 있던 곳에 큰 저수지가 있었다고 한다. 또 이 저수지를 막던 논뚝[동]이 있었는데 이 뚙을 두루베미동이라 불렀다고 한다. 두루베미동은 이 곳 인근에 있던 두루미들이 물려와 먹이를 먹거나 길뽕나무에 앉아 쉬어 가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현재 길로 사용되는 곳이 당시의 방죽이었던 것 같다.

### ◎ 양짓말

양짓말은 정발산 밑에서 주엽리 방향에 있는 마을의 이름으로 헛빛이 잘 들고 따뜻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현재 이곳에는 약 10채 정도의 집이 있다.

### ● 삼거리 은행나무

궁골마을에서 닥밭 양짓말로 넘어오면 삼거리 앞에 큰 은행나무가 있는데 이 은행나무의 높이는 약 20m 정도이고 둘레는 약 1m 정도이다. 이 나무는 이기성 씨의 조부가 심은 것이라 하며 약 130여년 정도 된 것이라 한다.

### ◎ 대슬밭

양짓말마을의 은행나무가 있는 곳에서 용채이벌판 쪽으로 내려가면, 정발산 산등성이가 작은 구릉으로 이어지고 묘지가 몇개 있는 언덕이 나오는데 이 곳을 흔히 대슬밭이라 부른다. 대슬밭의 뜻은 소나무가 대나무처럼 짹빽하게 많이 있다는 것인데 이 곳에는 약 50여년 전만 해도 소나무가 울창해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한다.

### ◎ 구두머리

구두머리는 앞에서 소개한 대슬밭에서 주엽리 상주마을 방향에 있는 소지명으로 구릉성 산 줄기로 되어 있다. 이 산줄기는 유난히 용채이벌판 방향으로 길게 이어져 있는데, 구두머리는 그 모양새가 마치 거북이의 머리모양을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인 듯 하다. 이 곳에는 장례에 사용되는 상여의 도가가 있으며 많은 묘소가 석재물 없이 조성되어 있다. 이 묘들은 대부분 10여년 전부터 장항리·주엽리 마을 사람들이 쓴 것이라 한다.

### ◎ 밤가시고개

율동[밤가시, 밤나무골]에서 장항 1리 닥밭마을로 넘어오는 큰 고개를 밤가시고개라 한다. 원래 이 고개는 작은 길로 크게 이용되지 못하였으나 70년대 이후에 경운기, 자동차 등의 왕래를 위하여 산을 깍아 길을 넓히고 지금은 시멘트 포장길로 확장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 밤가시고개 좌·우측에는 전주 이씨 효령대군 자손의 묘들이 있다. 이 고개는 이 마을의 주(主) 도로로써 상여·영구차 등 장례와 관계되는 행렬은 일체 통과할 수 없다고 한다.

### ● 노송

밤가시고개를 넘어 저전[닥밭]마을로 들어가다 보면 좌측에는 큰

노송이 20m 크기로 몇 그루 서 있다. 본래 이 노송들은 효령대군의 자손들이 이곳에 묘자리를 선정하면서 주위에 심은 것인데 약 20여년 전까지는 나무가 많았으나 지금은 몇 그루만이 남아있다. 한편 이 소나무 주위에는 묘지 터인 것으로 추측되는 평지가 넓게 펼쳐져 있다.

#### ◎ 전주 이씨 선산

밤가시고개 동쪽으로는 옛 고분으로 보이는 묘소가 세개 정도 있는데 모두 전주 이씨 효령대군 자손 묘이다. 묘 앞에는 비석·문인석·망주석 등이 갖추어져 있고 소나무에 가려 마을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

#### ◎ 건년말, 가운뎃말

이기성씨가 사는 마을을 흔히 건년말 또는 가운뎃말이라 하는데 전자는 양짓말이나 구석말에서 볼 때 건너편에 있다 하여 붙여진 지명이며, 후자는 이 마을이 닥밭의 여러 자연촌락 중에 그 위치가 가장 가운데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 쉬논

앞에서 소개한 가운뎃말 바로 앞에 있는 논의 이름으로 예전부터 이 논에서 쉼없이 물이 계속 나와 들판으로 흘러갔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지금도 이 논은 샘물이 계속 나오고 있다.

#### ◎ 마진재고개

가운뎃말[건년말]에서 마진재마을로 넘어가는 고개를 부르는 이름으로 아주 좁은 길이 나있다.

#### ● 모탱이

가운뎃말[건년말]에서 양짓말로 가는 길 도중에 산의 줄기가 길게 뻗어나와 도로가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돌아가는 곳이라 하여 모탱이라 부른다.

#### ◎ 매치기뿌리

가운뎃말 공장이 있는 곳의 옛 자연 지명으로 정확한 유래는 알 수 없으나 산줄기가 끝나는 곳을 흔히 풍수지리상 뿌리라 하는 것으로

보아 풍수리지설과 관계가 있는 듯 하다.

### ◎ 마진재[마짐재]

마진재는 장항 1리 닥발마을 중에서 정발산 기슭 제일 밑에 있는 마을의 이름으로 달리 마짐재라고도 부른다. 현재 이 마을에는 15호 정도의 집이 있으며 다른 명칭으로는 맹자골[맹작골]이라 하기도 한다.

### ◎ 맹자골뻘고개

맹자골[마진재]에서 일산 9리 밤가시마을로 넘어가는 작은 고개를 맹자골뻘고개라 한다. 이 고개는 지금 작은 길로 되어 있어 사람의 왕래나 차량의 운행이 거의 없다. 고개를 넘어가면 정발산 밑 율동[밤나무골]이 나오는데, 원래 이 고개는 예전부터 장항리[3리, 4리, 5리, 6리] 주엽리 마을 사람들의 장례 행렬이 이 곳을 지나가곤 하였다 한다. 즉 사람의 왕래는 구석말의 밤가시고개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사람이 죽으면 장례 행렬이 밤가시고개를 넘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에 이 뻘고개를 넘어 일산리 공동묘지로 갔다고 한다.

#### ● 뻘고개 양계장

뻘고개를 넘어가기 바로 전에 폐허가 되어버린 건물이 있는데 예전엔 양계장이었다 한다. 지금은 신도시 개발 발표 이후 사람들이 모두 떠나가고 없다. 이 양계장을 만들기 위해 공사를 벌이던 중 허물어진 묘에서 청자·백자류의 유물이 발견되었다 한다.

### ◎ 봉오골[범애골]

봉오골은 마진재마을에서 정발산 밑으로 이어진 긴 골짜기의 이름으로 집은 없고 곳곳에 묘와 군사 참호가 만들어져 있다. 이 지명에 대한 유래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예전에는 이곳에 나무가 많고 인적이 드물어 가끔 범[호랑이]이 나타났다하여 범애골이라 불렸다 한다.

### ◎ 맹작골

마진재를 다른 명칭으로 맹자골이라 하는데 본래 맹작골은 밤가시마을에 있는 지명이나, 이곳도 그 지역과 인접해 있어 붙여진 지명인 듯 하다.

### ● 마침재 동베미

장항 2리 노루매기 마을에서 장항 1리 닥밭마을로 들어오는 초입에 있는 논 이름으로 예전에는 이곳에 저수지가 있었다고 한다. 마침재 동베미라는 논의 명칭도 마침재 마을 동쪽[방죽] 근처에 있는 논이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러나 이 동베미와 저수지는 농지 정리 이후 모두 없어졌다 한다.

### ◎ 베레미

장항 2리 노루매기 마을에서 닥밭마을로 들어오는 입구를 부르는 지명으로 베레미는 닥밭 정미소에서 대보뚝 방향으로 넓게 펼쳐진 벌판을 부르는 지명이다. 예전에 넓은 저수지와 방죽이 있었다 한다.

### ● 방앗간다리

앞에서 소개한 베레미 근처 장항리 2리로 가는 큰 도로에 작은 다리가 하나 있는데 이를 방앗간 앞에 있는 다리라 하여 방앗간 다리라 부른다.

### ● 닥밭동베미

베레미 밑쪽으로 작은 저수지가 있었고 이를 닥밭동베미라 불렀다 한다. 지금도 이 부근의 논을 닥밭동베미라 부른다.

### ◎ 한논

닥밭정미소에서 주엽리 방향으로 펼쳐진 넓은 벌판을 부르는 이름이다.

### ◎ 궁골고개

닥밭마을에서 일산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부르는 이름으로 고개의 위치가 궁골에 있다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 뒷골고개

구석말 마을에서 일산 10리 후동마을로 넘어가는 고개를 부르는 이름으로 뒷골[후동]로 가는 고개라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제보자 : 이기성(60) 정인영 나창호

## 2) 장항 2리(獐項 2里)

앞에서 소개한 장항 1리(닥발)마을에서 마두 1리 방면으로 들어오면 큰 마을이 보이는데 이 곳은 행정리 구분상 장항 2리 이고 자연지명으로는 노루메기 마을이다. 현재 노루메기 마을은 크게 노루메기와 신촌마을(새말)로 형성되어 있으며 대부분 용채이벌판에 있는 논을 생계 수단으로 삼고 있다. 마을의 동쪽으로는 높은 정발산이 자리잡고 있다. 1989년 11월 통계에 의하면 이 마을에는 64가구 290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 ◎ 놀메기[노루메기]

앞에서 소개한 장항리의 지명유래와 같은 뜻에서 놀메기라 부른다. 즉, 첫째로는 마을의 형태가 노루의 목과 같이 길다고 하여 놀메기라 하며, 또 다른 하나는 예전부터 이 마을 정발산 기슭에 서식하던 많은 노루가 먹이를 찾아 내려오곤 하였는데 마을사람들은 노루를 잡지 않고 쫓았다 한다. 그래서 노루가 많다 하여 노루메기란 지명이 되었다는 것이다.

#### ● 놀메기다리

장항 1리 닥발마을에서 노루메기로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작은 다리를 부르는 이름으로 현재 콘크리트로 축조되어 있다.

### ◎ 참나무뜰산

놀메기와 새말(신촌) 뒷편에 있는 자그마한 야산의 이름으로 정확한 유래는 알 수 없으나 예전에 이 산에 참나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지명인 듯 하다. 현재 이 곳에는 약 30기 정도의 묘가 있다.

### ◎ 가마동재

장항 1리 닥발마을에서 2리 노루메기다리를 건너 우측으로 참나무뜰산 밑에 있는 지명으로 지금은 한 채의 집이 있으며 바로 옆에는 5~6기 정도의 묘가 있다. 가마동재는 예전 경지 정리하기 이전 이곳에 가마동이라는 저수지와 뚝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 ● 높은논

가마동재 옆에 있는 논의 이름으로 경지 정리 이전에 높은곳에 위

치했던 논이라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 새마을[新村]

새마을은 장항 1리 닥발마을에서 장항 2리 노루메기마을로 들어오면 처음 보이는 마을의 이름으로 새로이 만든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현재 이곳에는 약 25호 정도의 집이 남아 있다.

#### ● 정형복(鄭亨復, 1686~1769) 묘

노루메기[장항리 2리]마을 새마을에서 낙민[마두 1리]으로 가는 도로 좌측에 위치해 있으며 정형복의 무덤 서쪽으로는 그의 아들 정일상의 무덤이 있다. 또 정형복 무덤의 남쪽 방향으로 청송 심씨의 무덤이 있으며, 청송 심씨 무덤의 오른쪽 아래 지점에 정형복의 묘가 세워져 있다. 정형복의 묘는 북북동-남남서 방향으로 자리잡고 있는데 이 무덤에는 비석·흔유석·상석·향로석·석수·망주석이 있다. 정형복은 숙종 12년(1686)에 태어나 전라·강원 감사를 거쳐 형조 판서, 대사헌 등을 걸쳐 영조 45년(1769)에 84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 ● 정일상(鄭一祥, 1721~1792) 묘

이 무덤은 동-서 방향으로 자리하고 첫째 부인인 연안 이씨(延安李氏)와 세째 부인인 광주 이씨가 합장되어 있다. 정일상의 둘째 부인이었던 청송 심씨는 이 곳에 모셔져 있지 않고, 정형복 무덤의 남쪽 아래에 홀로 자리잡고 있다.

정일상의 무덤에는 비석·흔유석·상석·망주석 등이 갖추어져 있다. 상석의 양끝으로 사성쪽을 향하여 댓돌이 놓여져 있다. 비문에 적힌 글을 보면 정일상은 경종 1년(1721)에 태어나 정조 16년(1792)에 72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 ◎ 안산

새마을 앞쪽 마두 1리 방향에 있는 조그마한 야산의 이름으로 신촌 말에서 항상 볼 수 있다 하여 안산이라 하며 이 곳에는 정공(鄭公)의 묘가 있다.

### ◎ 박석고개

새마을에서 노루메기마을로 넘어가는 작은 고개를 박석고개라 부르는데, 그 정확한 유래는 알 수 없으나 다른 곳의 박석고개를 유추해 볼 때 이 고개가 높아 겨울철이나 여름철에 길이 좋지 않으면 돌을 도로에 박아 이 돌을 밟고 고개를 넘었다 하여 붙여진 지명인 듯 하다.

#### ● 박석고개 우물

박석고개 중간 부분에는 큰 물탱크가 있는데, 예전에 이 물탱크가 있던 자리에 우물이 있었다 한다. 이 우물은 근대적인 수도시설이 생기기 이전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사용하던 곳이라 한다.

### ◎ 구석말

구석말은 박석고개를 지나 노루메기마을에서 좌측으로 이어진 길로 들어가면 보이는 마을 이름이다. 지금 이 마을에는 약 6호 정도의 집이 있으며 놀메기의 여러 촌락 중에서 그 위치가 정발산 기슭의 구석에 있다 하여 구석말이라 불리운다.

### ◎ 소골(굴)

구석말에서 정발산 등성이로 이어지는 골짜기를 부르는 지명으로 그 정확한 유래는 알 수 없다.

### ◎ 차돌봉

구석말에서 소골(굴)을 따라 약 300m 정도 들어가면 좌측으로 보이는 봉우리의 이름으로 예전부터 이 산에 차돌이 많다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 수정산

차돌봉을 달리 부르는 이름으로 예전부터 이곳에서 수정이 많이 출토 되어 붙여진 이름이다.

#### ● 식골논

구석말 앞에 있는 논 이름으로 정확한 유래는 알 수 없다.

### ◎ 냉적골

구석말 건너편 정발산 바로 밑에 길고 큰 골짜기 전체를 부르는 지명으로 그 유래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일산 9리(밤가시)의 맹작골(사당골)과 관련이 있는 듯 하다.

### ◎ 범애골(봉오골)

냉적골 골짜기 중에서 정발산 기슭으로 이어진 골짜기를 부르는 이름으로, 예전에 범(호랑이)이 많아 붙여진 지명이다. 또 다른 말로는 봉오골이라 하는데 그 유래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이곳에는 현재 3채의 집이 있다.

#### ● 향나무

구석말을 지나 마두 1리(낙민) 마을로 가는 길가 바로 옆에 크지는 않으나 오래된 향나무가 하나 있다.

### ◎ 구렁목

장항 2리(노루메기)마을 향나무를 지나 약 50m 정도 낙민마을 방향으로 가면 작은 언덕이 있는데 이곳을 흔히 구렁목이라 부른다. 이 구렁목은 예전에 큰 구렁이가 지나가 생긴 곳이라 하여 붙여진 지명으로 실제로 이 곳의 지형은 구불구불하다.

### ◎ 냉밀

구렁목에서 우측으로 약 200m 정도 가면 조그마한 야산이 있고 이 산 위에는 잘 자란 소나무가 있다. 이 냉밀부근 앞쪽으로는 집들이 많이 있으며 밑으로는 상여도가 있다. 냉밀이라는 말이 어떤 유래를 가지고 있는지는 앞에서 소개한 마두 1리 냉밀산과 같으며 대보뚝이 쌓여지기 이전에 이곳까지 배가 들어와 정박하였다 한다.

#### ● 냉밀에논 · 상여도가

냉밀에논은 냉밀에서 용채이벌판 쪽으로 있는 논의 이름으로 그 면적은 7,500여평의 크기이며 냉밀에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또 이 냉밀 바로 밑에는 놀메기마을에서 사용하는 상여도가가 있다.

### ● 방죽논

방죽논은 용채이벌판 가운데에 있는 논의 이름으로 한강뚝이 만들 어지기 전, 큰 웅덩이와 이를 막기 위한 방죽이 있어 이 근처의 논을 방죽논이라 부른다.

### ● 안웅뎅이 · 웅뎅이 셀 · 대웅뎅이논

방죽논 부근의 논 이름으로 모두 예전에 있던 웅덩이와 관련 있고 이 웅덩이 근처에 있는 논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 중 웅뎅이 셀 논은 약 1,500여평 정도의 크기이다.

### ● 큰개근너논

장항 2리 노루메기마을 냉밀산 근처에서 한강제방 방향으로 펼쳐져 있는 용채이벌판 가운데에 있는 논의 이름으로 큰 개울넘어에 있던 논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 논의 면적은 600평 정도이었다고 한다.

### ● 도티논

앞에서 설명한 개근너논에서 노루메기[놀메기] 마을 방향에 있는 논의 이름으로 그 면적은 1,500여 평이며 지명에 대한 정확한 유래는 알 수 없다.

### ◎ 장풍개울

지금은 남아있지 않으나 용채이벌판이 경지 정리가 되기 이전에 있던 큰 개울의 이름으로 용채이벌판 가운데에 있었다 한다. 이 곳의 지명이 장풍개울로 불리게 된 것은 예전부터 이 개울에 여자들이 머리 감을 때 사용하던 창포[장풍]가 유난히 많아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 ◎ 홍아뿌리

노루메기[놀메기]마을에서 낙민마을[마두 1리]로 가는 도중, 좌측 정발산 기슭에 있는 산 골짜기의 이름으로 그 유래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다른 지역의 지명을 유추해 볼 때 뿌리는 풍수지리상 산줄기가 끝나는 부분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 산뿌리의 모양이 마치 바다의 홍합과 비슷하게 생겨 불리우는 것이 아닌가 한다.

### ◎ 다방골

노루메기[장항 2리]에서 낙민[마두 1리]으로 가는 도중 홍아뿌리를 지나 낙민마을에 거의 다 가서 좌측으로 보이는 골짜기의 이름으로 현재 4채의 집들이 남아있다. 그러나 다방골에 대한 유래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놀기 좋은 곳이라 하여 붙여진 지명인듯 하다.

제보자 : 최명남(75), 최기석

### 3) 장항 3리(獐項 3里)

장항 3리는 앞에서 소개한 주엽 6리[하주마을]에서 57번 군도로를 따라 한강방향으로 약 1km정도에 위치한 마을의 행정리 명칭이다.

장항 3리의 자연촌락 명칭은 무검(巫劍)인데 본래 한강제방을 축조하기 이전에는 갯벌이거나 대부분 갈대밭이었다고 한다. 그후 경지 정리를 통해 모두 황금벌판으로 변하였다. 이 마을은 현재 대부분 논농사를 생업으로 삼고 있으며 1989년 통계로 이 마을에는 40가구 159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 ◎ 무검(巫劍)

무검은 장항 3리의 자연촌락 지명으로 한강변에 위치한 까닭에 옛부터 홍수와 가뭄이 다른 지역보다 심하고 따라서 홍작이 잦은 까닭에 마을 사람들이 풍년을 회구하는 제[굿판]를 자주 지냈는데, 제를 주관했던 무녀는 칼을 들고 춤을 추며 풍년을 기원하였다고 한다. 이 때부터 이 마을을 무검이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굿판이 벌어졌던 곳은 현재 이 마을 구판장 앞 공터였다고 한다.

제보자 : 신수만(80)

### 4) 장항 4리(獐項 4里)

앞에서 소개한 주엽 6리 마을에서 한강제방 방향에 있는 마을의 행정리 명칭이다. 이곳의 자연지명은 수용소인데 대부분 논농사 위주의 농업을 주업으로 삼고 있다. 1989년 통계로 71가구 244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 ◎ 수용소

수용소는 장항 4리의 자연촌락 명칭으로 6.25이후 피난민들이 이곳에 많이 와서 살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그러나 현재는 대부분이 그 때 살던 피난민들이 아니고 타지에서 이사해 온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제보자 : 신수만(80)

## 5) 장항 5리(獐項 5里)

장항 5리는 앞에서 소개한 장항 4리 마을에서 능곡방향에 있는 마을의 행정리 명칭이다. 현재 비닐하우스와 논농사 위주의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1989년 통계로 이 마을에는 29가구 147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 ◎ 산염(山鹽)

산염은 장항 5리의 자연촌락 명칭으로 장항 5리가 한강변에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배가 수시로 왕래하였다. 그런데 언젠가 소금을 실은 배가 마을 앞의 강을 지나가다가 침몰하여 마을 주변에 소금이 산처럼 쌓이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 마을을 산염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고양군지)

#### ● 장항분교

1982년에 백마국민학교 부설 장항분교로 설립

제보자 : 신수만(80)

## 6) 장항 6리(獐項 6里)

장항 6리는 앞에서 소개한 장항 5리 마을에서 능곡 방향에 있는 마을의 행정리 명칭이다. 이 마을도 논농사·비닐하우스 중심의 농업이 주업으로 삼고 있으며 1989년 통계로 이 마을에는 72가구 289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 ◎ 노첨(蘆苦)

노첨은 장항 6리의 자연촌락 명칭으로 이곳을 노첨이라 부르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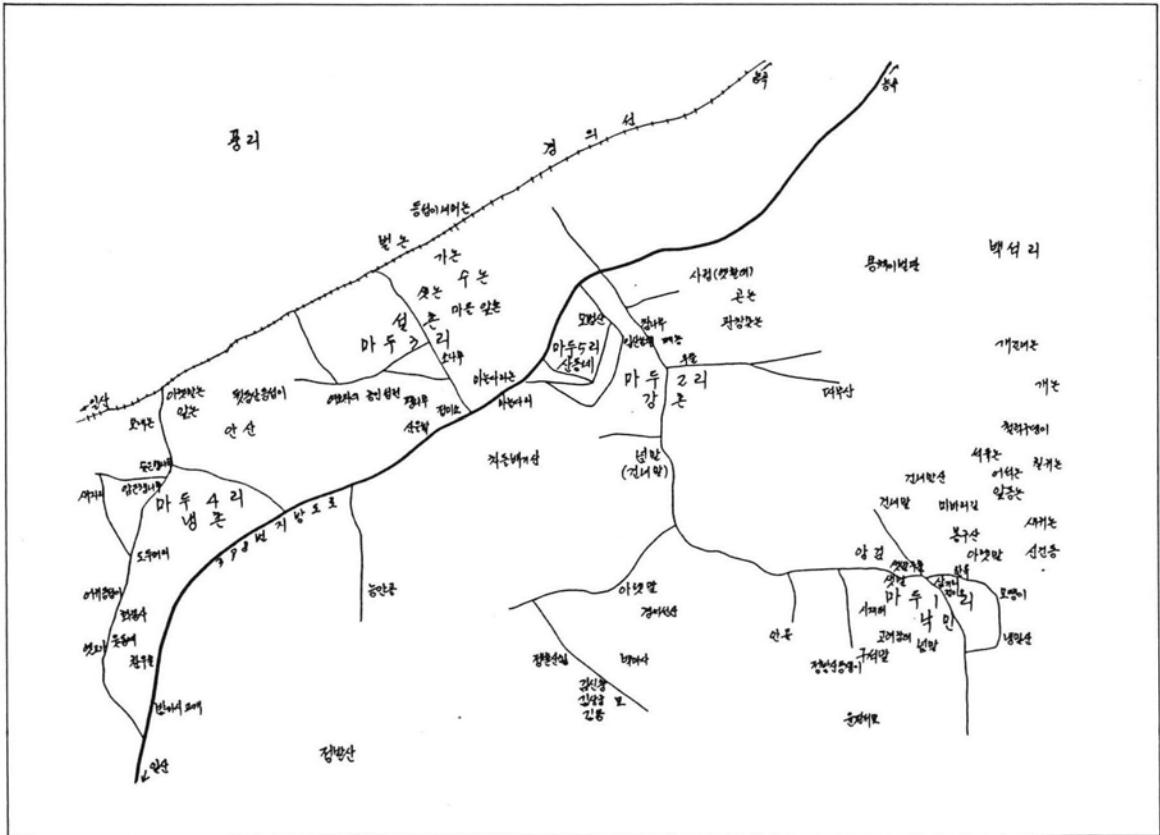
은 마을이 한강변에 있어 장마·홍수 때 한강이 자주 범람한 까닭에  
갈대밭이 생겨나 '갈대 노(蘆)'자와 '덮을 점(苦)'자[苦를 뜻하기도 한  
다]을 써서 노점이라고 하다가 노첨이 되었다고 한다.『고양군지』

제보자 : 신수만(80)

### (5) 마두리(馬頭里)



마두리 마을과 말모양의 정발산 모습



일산읍 마두리는 일산읍 읍사무소가 있는 일산리를 기준으로 볼 때 서남쪽에 위치한 마을의 법정리 명칭이다. 마두리 주변에는 일산읍 주산(主山)의 하나인 정발산이 있으며 마을 중앙으로 398번 지방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마두리의 위치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마두리의 동쪽으로는 백석리·풍리와 경계하고, 북쪽으로는 일산리·장항리와, 남쪽으로는 백석리와 경계하며, 또 서쪽으로는 백석리·장항리와 경계하고 있다.

마두리에 대한 지명은 정발산에서 볼 때 마두리 마을 전체의 형상이 마치 말의 머리와 같이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흔히 한자를 쓰지 않고 그냥 말머리라고도 불리운다.

현재의 마두리는 행정구역상 모두 5개 행정리로 나뉘어져 있는데 1리는 낙민, 2리는 강촌, 3리는 설촌, 4리는 냉촌, 5리는 새로이 만들어진 모범마을[산동네]이다. 마두리의 5개 행정리 마을 즉, 마두리 전체는 모두 신도시 지역에 포함되어 현재의 마을 모습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었다.

말머리는 마두리의 한글 명칭으로, 넓은 의미에서 보면 마두리 전체[1~5리]가 모두 말모양으로 생겼다하여 붙여진 지명인데 낙민마을[1리]이 말머리 형상에 해당하고 정발산이 몸뚱이, 그리고 3리[설촌]·4리[냉촌]마을이 말의 꼬리 부분에 해당한다고 한다.

## 1) 마두 1리(馬頭 1里)

마두 1리는 일산읍 읍사무소가 있는 일산리를 기준으로 볼 때 남서쪽에 위치한 마을의 행정리 명칭으로, 자연촌락 명칭은 낙민마을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마을의 위치를 살펴보면 정발산 정상에서 한강방향으로 정서쪽[11시 방향]에 있는 마을이다. 낙민마을은 예전부터 논농사 위주의 생활을 해왔으며 특히 초계 정씨가 집성촌을 이루어 살고 있다. 1989년 11월 통계에 의하면 이 마을에는 모두 76가구 326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 ◎ 낙민

낙민(樂民)은 마두 1리의 자연촌락 명칭으로 다음과 같은 네가지 유래설이 구전으로 전해오고 있다. 그 첫번째는 이 마을의 중앙에 연못이 있었는데 그 연못의 밑바닥 물이 차갑다고 하여 냉밀이라고 불렸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냉밀이 낭밀으로, 낭밀이 낭민으로, 낭민이 낙민으로 변화하여 오늘날의 낙민으로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며, 두번째는 이 마을앞에 한강 제방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강원도에 비

가 많이 오면 그 빗물이 이곳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물 떨어지는 마을이라 하여 낙민(落民)으로 불리우다가 마을 사람들이 왜 우리가 떨어지는 마을의 백성이냐고 하면서 '떨어질 락(落)'자 대신에 '줄길 락(樂)'자를 써서 낙민(樂民)이 되었다고 한다. 유래설 세번째는 이 마을의 위치가 멀리 백석 4리[흰돌] 마을에서 보면 다른 마을과는 달리 인접 마을에서 멀리 벌판 방향으로 뚝 떨어져 있다 하여 떨어져 있는 마을이라는 뜻으로 낙민이라 하였다 하며, 마지막으로 낙민마을 뒤에 이어져 있는 정발산 줄기가 한강으로 쭉 이어져 오다가 이 마을[낙민]에 도착하여 그 산 줄기가 떨어져 있어 붙여진 지명이라 한다.

현재 낙민마을에는 초계 정씨(草溪 鄭氏)들이 약 45호 살고 있는데 이 마을에 처음 정착한 것은 서기 1450년<sup>4)</sup>이었다고 한다.

### ◎ 구석말

강촌[마두 2리]마을에서 낙민마을[마두 1리]로 들어오는 마을 입구 우측, 정발산 골짜기에 위치한 작은 촌락을 부르는 이름으로 구석말은 마을의 위치가 골짜기 안쪽 구석에 있다 하여 붙여진 지명으로 현재 약 20호 정도의 집이 있다.

### ◎ 앙검(감)

앞에서 소개한 구석말에서 낙민마을[정미소] 방향으로 가다 좌측으로 약 20m 떨어진 곳의 소지명으로 그 유래는 잘 알 수 없으나, 다만 높이 4~5m의 산 언덕 위를 부르는 이름이다.

이곳은 예전부터 마을에서 명당 자리라 하여 소중히 여겼으며 이곳에는 현재 큰 소나무 한 그루와 바위들이 있어 보기 좋은 경치를 이루고 있다.

### ◎ 시제터

앙검에서 보면 낙민마을과 강촌마을을 잇는 도로 건너편에 옛 묘지들이 많이 있고 산밑에 집이 몇 채 있는데 이 곳을 시제터라 부른다. 이곳을 시제터라 부르는 것은 본래 이 곳이 초계 정씨의 선산이라 선

4) 고양군지 편찬위원회 〈고양군지〉, 『사단법인 고양문화원』, 1987년. P. 882 참조

산의 묘에 시체를 드리는 곳이라 하여 불여진 지명이다. 또 이 곳에는 예전에 정씨 사당이 있었다 하나 지금은 남아 있지 않다.

### ◎ 샛말[사잇말]

시체터에서 정미소 방향 아래에 있는 마을의 이름으로 샛말은 구석말과 아랫말 사이에 있는 동네라 하여 불여진 지명이다. 현재 이 곳에는 약 15호 정도의 집이 있다.

#### ● 샛말우물

앞에서 소개한 샛말에 있는 우물의 이름으로 샛말마을에서 건넌말마을 사이에 있다. 이 우물은 예전에 이 마을에서 모든 집이 식수로 사용하던 우물로, 샛말에 있다 하여 불여진 이름이다.

### ◎ 건넌말[산]

샛말에서 볼 때 논 건너편에 있다 하여 불여진 지명으로 백석리 방기마을 방향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건넌말 뒷산에 있는 산을 건넌말산이라 하는데 예전에 배가 머물던 곳이라 한다.

### ◎ 아랫말

구석말과 샛말에 비하여 그 위치가 아래쪽에 있다 하여 불여진 지명으로 일산에서 오는 마을버스의 정류장이 있는 곳이다. 현재 약 15호 정도의 집이 있다.

### ◎ 낙민 삼거리

낙민마을 아랫말에 있는 삼거리의 이름으로 낙민마을의 중심을 이루는 지점이다. 이곳은 현재 장항리 · 백석리 · 벌판으로 갈라지는 길이 나 있다.

#### ● 정미소 · 마을[낙민]가게

낙민마을 아랫말 마을 중심지에 있으며 마을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 ◎ 봉구산[봉서방내산]

낙민마을 아랫말 삼거리에서 한강뚝으로 이어진 냉밀산[낙민산] 방향에 있는 작은 언덕의 이름으로 이곳 봉구산은 산줄기가 끊어지고

논이 이어지다가 논 가운데에 불쑥 솟은 작은 산을 부르는 지명이다. 봉구산은 이 산의 소유자가 봉구(봉서방내)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 ● 앞동논

앞에서 소개한 봉구산 밑에서 용채이별판 방향 가운데 있는 논의 이름으로 마을 앞 논뚝(동) 근처에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 모탱이

아랫말 삼거리에서 한강제방으로 나오다가 우측으로 보면 작은 산 [냉밀산]이 나오고 이 산 줄기가 마을 도로까지 이어져 길이 돌아가게 되는데 이곳을 돌아간다 하여 모탱이라 하며 현재 5채의 집이 있다.

#### ◎ 냉밀산·낙민산

아랫말 마을에서 용채이별판 방향에 있는 산의 이름으로 앞의 낙민 마을 유래에서 소개한 낙민(냉밀)마을에 연못이 있고, 이 연못 뒷편에 있는 산이라 하여 낙민산 또는 냉밀산이라 한다. 이 산 위에는 소나무와 흐드라리가 있으며 군인들의 참호도 만들어져 있다. 특히 이 산은 봄·여름에 시원한 바람이 불고, 나무들이 아름다와 좋은 경치를 보여준다. 예전 한강제방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이곳 냉밀산에 배가 정박 하였다고 한다.

#### ● 옛 한옥

아랫말 낙민산 바로 앞에 작은 한옥이 하나 보이는데 깨끗한 모습으로 잘 보존되어 있다. 옛 사당을 연상케 하는 이 집은 그 건축 연대는 알 수 없으나 특이한 양식으로 지어져 있다.

#### ● 마바리길논

낙민마을에서 대보뚝(한강 제방)으로 이어진 용채이별판 가운데에 있는 논 이름으로 근대적인 농지 정리가 되기 이전에 이 논 근처에 마차와 소가 다니던 마바리길이 있었다 하여 붙여진 논이름이다.

### ◎ 철력구덩이[웅덩이]

아랫 말에서 용채이벌판으로 가는 도중 예전 경지 정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큰 못이 있어 붙여진 지명이라고 한다. 이 웅덩이는 러시아인들이 경의선 철도를 놓다가 러·일 전쟁에서 일본인에게 패한 뒤 공사를 중단하고 도망갔는데, 이 지명은 그 철도길 옆에 있던 웅덩이라 하여 붙여진 것이라 한다. 달리 양철러<sup>5)</sup>라 부르기도 한다.

#### ● 개논

철력웅덩이 근처에 있던 논의 이름으로 이 논도 용채이벌판에 있는데 이 논이 개논이 된 것은 이 논과 개 한마리를 바꾸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 칠귀논[칠덕이논]

장풍개울 옆에 있던 논의 이름으로 용채이벌판에 있다. 이 논은 다른 논과는 달리 논의 귀[귀퉁이]가 모두 7개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 ● 세귀논

논의 귀[귀퉁이]가 세개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 ● 개전너논

용채이벌판 가운데 있는 논의 이름으로 개[장풍개울]전너에 있다 하여 붙여진 논 이름이다.

#### ● 석유논

용채이벌판 가운데 있는 논의 이름으로 아랫말 마을 앞에 있다. 이 논의 이름을 석유논이라 하는 것은 이 논과 석유 한 말을 바꾸었다 하여 붙여졌다.

#### ● 어석논

석유논 바로 밑에 있는 논의 이름으로 이 논은 다른 논과 달리 땅이 어석 어석하게 좋아 벼농사가 잘 되어 그 수확이 특히 많아 붙여진 이름이다.

5) 서양 즉, 러시아 사람을 부르는 것이다.

### ● 신건동

예전 용채이벌판에는 비가 온 뒤 물을 가두기 위해 큰 웅덩이를 막아서 만든 저수지 뚝이 많이 있었는데 이 저수지 뚝이 있던 곳을 신건동이라 불렀으나 지금은 논이름으로만 사용되고 있다.

이 밖에도 낙민마을 용채이벌판에는 높은 곳에 있다 하여 높은논, 그 유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뱀논, 풍제논, 평구논, 덕대논, 덮단논, 성궁 등이 있다.

### ◎ 넘말(넘어말)

낙민마을 아랫말에서 장항리 노루매기마을로 가는 도중에 있는 마을의 이름으로 아랫말에서 볼 때 산등성이 넘어에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현재 이곳에는 약 10여 호의 집이 남아 있다.

### ● 윤판서 묘

낙민마을 넘말과 다방골 마을사이에 있던 무덤으로 벽체읍에서 이 곳으로 이장해 왔다가 신도시개발 발표로 화장했다 한다. 부(父)·자(子)의 두 묘소가 있었는데 그 규모가 대단했으며 묘 앞에는 석수·문인석·상석 등이 모두 갖추어져 있었으나 서울의 석재수집가들이 모두 사가지고 갔다 한다. 현재는 묘 앞에 있던 향나무 만이 남아 있다.

### ● 옛고분

아랫말 정미소에서 정발산 등성을 따라 약 100m 올라가면 택지공사를 하던 도중 발견된 묘가 하나 있는데 특별한 부장품은 없었으나 큰 석경(석회)이 발견되었다.

### ◎ 고려장터

앞에서 소개한 옛고분에서 정발산 정상 방향으로 약 30m 오르면 주위에 바위가 보이고 비교적 평평한 평지가 나온다. 이 곳을 흔히 이 마을에서는 고려장터라 하는데, 그 이유는 땅 속에서 속이 비어있는 듯한 소리가 난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이 동리(낙민마을)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옛날 정발산 등성이에서 놀다가 내려올 때 이 지

점에 이르러 깡총깡총 뛰밀 인근 다른 곳과는 달리 '퉁퉁'하는 소리가 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금도 이곳을 뛰어보면 속이 빈듯한 통통거리는 소리가 난다. 공사가 진행된 후 이곳을 살펴본 결과 이 곳은 고려장터가 아니라 바위와 바위 사이의 틈으로 밝혀졌다.

#### ◎ 정발산 등생이[줄기]

낙민마을에서 정발산으로 오르는 산줄기를 부르는 지명으로 신도시 개발로 없어진다. 이 곳에 오르면 인근 지역이 모두 내려다 보이며, 지금까지 어린이들의 중요한 놀이터 역할을 해 왔다.

#### ◎ 안골

안골은 마두 1리 구석말에서 마두 2리[강촌]로 오는 길 좌측으로 약 10호 정도의 촌락이 있는데 마을의 위치가 정발산 기슭의 안쪽에 있다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제보자 : 정인수(72)

### 2) 마두 2리(馬頭 2里)

마두 2리는 일산리 일산읍사무소를 기준으로 볼 때 서남방향에 있는 마을의 행정리의 명칭이다. 마두 2리의 자연촌락 명칭은 강촌(姜村) 말인데 능곡-일산간 도로[398번 지방도] 백마국민학교에서 한강 제방 방향으로 위치해 있다. 옛부터 이 마을은 논농사 위주의 농업에 종사하여 왔다. 이 마을에는 1989년 11월 통계로 225가구 733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 ◎ 강촌말[姜村]

마두 2리의 자연촌락 이름이 강촌말인데, 이는 이 마을에 강씨 성을 가진 분들이 예전부터 많이 산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실제로 이 마을은 지금도 본관이 진주인 강씨들이 많이 사는 집성촌락이다. 진주 강씨가 이 마을에 처음 정착한 것은 약 300여년 정도 되었다 하는데, 이 사람들은 모두 통계공의 자손이라 한다.

#### ◎ 사정

능곡-일산간의 398번 지방도로 바로 옆에 있는 강촌마을과 백석 1

리 방기마을 사이에 있는 지명이다. 이곳을 사정이라 부르는 이유는 예전부터 활터가 있어 불여진 지명인데 달리 활터라고도 부른다.

#### ● 곤논

사정(활터) 앞의 논 이름인데 이 논의 토질이 매우 굽고 좋아 벼가 잘 되었다 하여 고운논으로 불렸으며 곤논은 고운논에서 말이 변하여 곤논이 되었다 한다.

#### ● 묻혀진 묘

강촌말 일산 농협 앞마당에는 묘와 석재가 묻혀있다. 이곳에 농협이 들어서기 전에는 망주·상석·향로석 등이 잘 갖추어진 묘가 있었다. 그런데 농협건물 신축 공사를 하면서 석재와 함께 묘도 땅속에 파묻혔다 한다.

#### ● 큰 참나무

농협 창고 주변에 큰 참나무가 마을의 주목(主木)으로 있었는데 6. 25때 폭격으로 없어졌다 한다.

#### ● 강촌말 우물

강촌말 강신원[73세]씨 댁 바로 앞에 도깨비를 두르고 뚜껑을 덮은 우물이 하나 있다. 이 우물을 가리켜 강촌우물이라 하며 지금도 강신원씨 집에서는 이 물을 식수로 사용한다.

#### ● 관창못논

강촌말에서 용채이벌판으로 나오는 방향에 위치한 논의 이름으로, 예전 농지 정리를 하기 전에 이 논 근처에 관창이라는 연못이 있었다 하여 관창못논이라 불리운다.

이밖에도 강촌말 용채이벌판에는 그 유래를 알 수 없는 구단논, 풍쟁이논, 웅뎅이논 등이 있다.

#### ◎ 따무산

강촌마을에서 마두 1리 낙민마을로 가는 도중, 원쪽을 보면 멀리 용채이벌판 초입까지 이어지는 긴 산줄기가 있고 그 끝나는 곳에 조금 높은 언덕처럼 보이는 산이 있는데 흔히 따무산이라 부른다. 이

산의 명칭에 대한 유래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을축년 홍수 때 이 곳 까지 배가 들어왔다 한다.

### ◎ 넘말[건너말]

강신원씨 집에서 낙민마을로 넘어오는 도중 마을의 위치가 산등성이 넘어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넘말[넘말]이라 불리우는 마을이 있다. 또 달리 등성이 건너편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건넌말이라고도 한다. 현재 이 마을에는 경씨 성을 가진 주민이 많이 살고 있다.

### ◎ 차돌베기산

차돌베기산은 넘말을 지나 아랫말로 가는 도중 우측으로 멀리 보면 정발산 등성이와 마두 5리 산동네 마을이 연결되는 산이 하나 있는데, 예전 이 산에 큰 차돌들이 많이 있어 붙여진 지명이다.

#### ● 김신충(金信忠, 1625~1704년) 묘

마두 3리[강촌마을]에서 정발산 밑으로 오면 안동 김씨(安東 金氏) 문중의 무덤이 30여 기 정도 있는 곳이 나온다. 이 곳에는 김신충을 비롯하여 첫째 부인 파평 윤씨, 둘째 부인 안동 장씨, 세째 부인 순홍 안씨의 봉분이 북서서-남동동의 방향으로 각각 자리 잡고 있다. 무덤의 위쪽으로는 소나무숲이 있으며 비석·상석·향로석·문인석·망주석을 갖추고 있다.

#### ● 김상궁(金尙宮, 1681~1739) 묘

이 무덤은 김신충 묘의 바로 아래쪽에 있다. 따라서 김상궁 무덤에 깔린 상성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무덤을 쓴 좌향(座向)은 김신충의 묘와 같다. 김상궁 묘의 석물로는 비석·흔유석·상석·향로석·문인석 및 망주석이 있는데, 이들 석물의 배치 방향도 김신충 묘의 것과 같다.

#### ● 김용(金龍, ?~1712) 묘

이 묘의 규모는 김신충이나 김상궁의 것에 비하여 크지 않으며, 따라서 봉분을 비롯하여 비석·상석·향로석·문인석 등의 석물은 모두 작은 편이다. 묘는 북북서-남남동으로 자리를 잡았으며, 정부인 영천 연씨(貞夫人 永川 延氏)가 합장되어 있다.

### ◎ 아랫말

넘말[전너말]에서 마두 1리 낙민마을로 가는 도중에 있는 마을의 이름으로 그 위치가 강촌말의 다른 여러 촌락에 비하여 아랫쪽에 위치하고 있다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 경씨 선산

아랫말 뒷편 정발산 기슭에는 많은 묘가 있는데, 대부분이 경씨묘이다. 이 묘들은 망주·상석·비석 등을 잘 갖추고 대부분 남향을 하고 있다.

#### ● 백마사

정발산 기슭에 있었던 절인데, 그 위치와 연혁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역사가 오래된 사찰이었다 한다.

### ◎ 정발산밀

앞에서 소개한 안동 김씨 묘가 있는 골짜기를 부르는 지명으로 정발산 아래에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현재 이곳의 묘들은 다 이장하고 신도시 개발로 인한 각 마을의 나무들이 모두 옮겨지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제보자 : 강신원 (74)

## 3) 마두 3리(馬頭 3里)

마두 3리는 일산리 일산읍사무소를 기준으로 볼 때 남서쪽에 위치한 마을의 행정리 명칭으로 앞에서 소개한 강촌말에서 일산리 방향에 있는 마을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그 위치를 살펴보면, 일산~능곡 간의 398 지방도로를 따라 백석리에서 일산 방면으로 가다보면 밤가시고개 넘어 가기 전에 정발산과 풍리사이에 큰 마을이 나오는데 이곳이 마두 3리 설촌마을이다. 본래 이 마을은 농촌마을답게 설씨 성을 가진 주민만이 살고 있었는데 약 10여 년 전부터 마을 뒷쪽에 새로이 마을이 생겨 지금은 여러성이 모두 모여 살고 있다. 이 마을의 남단으로는 경의선이 통과하고 있다. 옛부터 이 마을은 논농사 위주의 농업에 종사하여 왔다. 1989년 11월 통계에 의하면 이 마을에는 195가구 734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 ● 설촌 정미소

설촌마을 입구에 있는 정미소로 일제식민지시대 부터 있었다 하며, 인근 냉촌(마두 4리)과 설촌 마을에서 이용하고 있다.

### ● 설촌 팽나무

설촌 정미소에서 일산리 방면으로 약 20m 정도 지나 우측에 백년 도 넘은 팽나무 두 그루가 있었다 하는데 여름에 정자의 역할을 했다고 한다.

### ● 산을밖(밭)

큰 팽나무가 있던 곳을 가리켜 산을밖이라 부르는데 그 유래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또 그 팽나무 옆에는 큰 참나무가 62그루 있었다 한다. 이곳의 지명을 따지금 이곳에 있는 밭을 산을밭이라 부른다.

## ◎ 능안골

산을밖에서 정발산을 바라보면 398 지방도로 건너편에 작은 마을이 하나 있다. 이 마을은 정발산 기슭의 긴 골짜기 안에 있는데, 흔히 능안골 마을이라 부른다. 이 마을 우측으로는 밤가시고개가 있다. 이 마을을 능안골이라 부르는 것은, 본래 이곳에 왕의 능을 쓰려고 하였는데 왕의 묘가 들어서기 위해서는 인근에 1백 여개의 골짜기가 있어야 하나, 이 곳에는 1개가 모자라는 99개의 골짜기만이 있어 왕릉으로 사용하지 못했다 한다. 그 후 이곳을 왕이 능을 만들려다 그만 둔 곳이라 하여 능안골이라 불렀다 한다. 또 옛날 이 곳은 경기송이란 분이 서당을 세워 인근 백석·마두·송포지역의 사람을 모아 가르친 곳이기도 하다. 현재 능안골에는 5채 정도의 집이 있다.

### ● 설촌 소나무

설촌 정미소에서 설촌마을로 들어와 경의선 방면으로 나있는 도로를 따라 약 200m 정도 가면 주택 가운데 우뚝 솟아오른 소나무가 한 그루 있다.

### ● 여호와증인 성전

설촌 소나무를 지나 설촌마을 뒷산쪽으로 올라가면 흰색의 2층 건물이 보이는데, 이곳이 여호와증인 성전이다.

### ◎ 뒷동산 등성이

마두 3리[설촌]마을 뒷편에 있는 산의 이름으로 산 기슭과 등성이 곳곳에 해주 최씨의 묘가 자리잡고 있으며, 이 산을 냉촌[마두 4리]에서는 안산이라 부른다.

#### ● 수논[마을앞논]

설촌마을에서 백석리 백마역쪽으로 펼쳐진 벌판을 마을의 앞쪽에 있다 하여 마을앞논이라 하며, 이 벌판 중에서 특히 물이 많고 질척한 논을 수논이라 부른다.

#### ● 깊은자리

깊은자리논은 마두3리 설촌마을 주변에 있는 논 이름으로 이 논이 다른 논보다 깊은 자리에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 ● 수렁가리논

설촌말 경의선 철도부근에 있는 논의 이름으로 다른 논에 비해 수렁이 많아 붙여진 이름이다. 이 곳에는 실제로 소가 논을 갈다가 수렁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다 한다.

#### ● 셋논, 가논

앞에서 설명한 설촌마을의 수렁가리논 옆에 있는 논의 이름으로 큰 논과 큰 논 사이에 있다 하여 셋논이라 하며, 철도길 옆에 있는 가논은 그 유래를 잘 알 수 없으나 철로 가에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 아닌가 한다.

#### ● 벌논, 등성이 너머논

벌논은 경의선 철도 넘어에 있는 논의 이름으로 큰 벌판 가운데에 있다 하여 붙여진 논이름이다. 또 등성이 넘어논은 냉촌말 앞에 있는 논의 이름인데 뒷동산 등성이 넘어에 있다 하여 등성이 넘어논이라 한다.

### ● 아랫말 · 논

냉촌말의 여러 촌락들 중에 아랫말에 있는 논의 이름으로 논의 위치가 아랫쪽에 있다 하여 아랫말 논이라 부르며, 수령이 많은 논으로도 유명하다.

### ● 냉촌의 암 · 수 은행나무

큰 은행나무가 냉촌말[마두 4리] 마을회관 주변에 두 그루 서 있는데 쉽게 암·수 은행나무라 부른다. 이 두 은행나무는 수령이 약 1백 년 쯤 된 것이라 하며 그 크기는 높이가 20m, 둘레가 약 2.5m나 된다. 원래 은행나무는 열매를 맺으려면 암·수가 서로 마주보아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이 나무들은 서로 마주하고 있으면서도 암은행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한다.

### ● 화봉사

냉촌마을 아랫말에서 웃말로 올라가다 보면, 우측으로 넓은 정원이 보이고 그 안에 일반집처럼 지어진 사찰이 하나 있다. 이 사찰에 대한 유래는 잘 알 수 없다.



마두 3리 설촌마을

### ◎ 설촌(薛村)

마두 3리의 자연촌락 지명은 설촌이다. 설촌은 예전부터 이 마을에 개성 설씨(開城 薛氏)가 동족 촌락을 구성하고 살았다 하여 붙여진 지명으로 『고양군지』를 보면, 이 마을에 설씨 성을 가진 사람들이 처음 정착한 것은 1593년이었다고 한다.<sup>6)</sup>

#### ● 마늘다리

마두 3리 설촌마을에서 마두 5리[산동네] 방향에 있는 다리의 이름으로 정확한 유래는 알 수가 없다. 다른 이름으로는 마을다리라고도 한다.

#### ● 마늘다리논

마늘다리 논은 앞에서 소개한 설촌말 마늘다리[마을다리] 앞에 있는 논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지금은 모두 택지개발 공사가 이루어져 논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 4) 마두 4리(馬頭 4里)

마두 4리는 앞에서 소개한 마두 3리 설촌마을에서 일산방면으로 있는 마을의 행정리 명칭이다. 이 마을의 자연촌락 지명은 냉촌[찬우물 마을]인데 설촌마을 뒷산 등성이 넘어에 있다. 즉 능곡→일산으로 가는 398 지방도로 밤가시고개 중턱에서 우측으로 보이는 마을이다. 현재 이 마을은 웃말·아랫말·새자리로 나뉘어져 있으며 옛부터 해주 최씨 집성촌 마을이다. 1989년 11월 통계에 의하면 이 마을에는 118가구 426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 ◎ 냉촌[冷村, 찬우물]

냉촌은 마두 4리의 자연촌락 명칭으로 이 마을에 있는 웃말 찬우물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 우물은 차기도 할 뿐만 아니라 그 수량이 풍부하여 온 마을 사람들이 식수로 사용하고도 남았는데 가뭄에도 마르지 않았다고 한다. 이 우물을 집집마다 따로 지하수로 끌어들여 사용

6), 4)와 같음.

하는데 매우 차가운 것이 특징이다. 또 이 냉촌(冷村)은 그 형상으로 보아 마두리의 지명 유래가 된 말의 꼬리 부분에 해당된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말머리에 해당하는 마두 1리[낙민]는 음식을 먹는 입이고 이 냉촌마을은 음식을 배설하는 꼬리 부분이므로, 여기는 무엇이든 쌓인다고 하여 예전부터 부자촌으로 인근 마을에서 불리웠다 한다. 이 곳에 해주 최씨 해능군과 집안들이 살기 시작한 것은 약 200여년 전부터라 한다.

### ◎ 안산

냉촌말의 아랫마을 앞에 있는 자그마한 야산의 이름으로 아랫말 주민들이 일어나서 잘 때까지 하루 종일 항상 눈에 보인다 하여 안산이라 하였으며 현재 해주 최씨의 묘가 많이 있다. 설촌에서는 이 안산을 뒷산이라 부른다.

#### ● 앞논

냉촌마을과 안산 사이에 있는 논의 이름으로 마을 앞에 있다 하여 불여진 이름이다.

### ◎ 도두머리

냉촌말을 달리 부르는 이름으로 정발산의 맨 끝쪽에 위치하고 있다 하여 불여진 지명인 듯하다.

#### ● 웃동네(웃말), 찬우물

마두 4리 냉촌마을에서 일산 9리 밤가시마을 방향에 있는 촌락으로 아랫말에 대비되어 불여진 이름이다. 또는 냉촌마을의 지명 유래가 된 찬우물이 이 곳에 있어 찬우물 마을이라 하기도 한다.

#### ● 찬우물

냉촌 웃말마을과 밤가시고개 중간에 논이 펼쳐져 있고 이 논 가운데 지금은 식수로 사용하지는 않으나, 예전부터 유명한 찬우물이 있다. 이 우물은 지금도 샘물이 계속 솟아 아랫말 냉촌마을로 흐른다. 이 우물이 마을의 자연촌락 명칭인 냉촌의 유래가 된 우물이다.

### ● 옛고가

찬우물(웃말)마을 입구에는 예전 모습을 대부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고가가 한 채 있는데, 대문, 아궁이, 외양간 등이 옛모습 그대로 남아 일상생활에 사용되고 있다. 이 집은 지은지가 약 1백년 이상 되었다 하며 이순돌(84) 씨 소유이다.

### ◎ 으(어)기 등성이(고개)

으기등성이는 웃동네에서 마을 뒷편 새자리 마을로 이어진 산줄기의 이름이다. 이름의 유래는 정확히 알 수 없으며 또 웃말에서 새자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어기[으기]고개라 부른다.

### ◎ 새자리

냉촌마을에서 산동성이 넘어 풍리, 일산리 방향에 위치한 촌락 이름으로 약 30호 정도가 있다. 이곳을 새자리라 부르는 것은 밤가시마을과 냉촌마을 사이에 자리한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 모래논

냉촌마을에서 풍리방향으로 이어진 벌판 가운데 있는 논의 이름으로 모래논은 다른 논에 비해 모래가 많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 정발산(丁鉢山, 正鉢山, 鼎鉢山)

정발산은 일산읍의 주산(主山)으로 장항리, 일산리, 마두리에 걸쳐 있다. 해발 59.3m인 정발산 정상에는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다. 이 정발산의 산이름에 대한 유래는 크게 세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 하나는 산 밑에 있는 마두 1리[낙민마을]에 정씨가, 그리고 마두 2리에는 아주 옛날 박씨가 각기 집성촌을 이루어 살았기 때문에 산이름을 정박산(丁朴山)이라 부르다가 정발산이 되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정씨 성을 가진 판서가 선영을 이 산에 모시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산에 꽃이 만발하게 되었다고 하여 정발산(丁發山)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1755년 이석희의 『고양군지』 표기의 의한 해설로 이 산모양이 멀리서 보면 큰 가마솥을 엎어 놓은 것 같다고 하여 정발산(鼎鉢山)이라 했다는 것이다. 신도시 건설로 이 산은 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 ● 정발산 도당굿<sup>7)</sup>

일산읍 마두리와 장항리의 6개 자연촌락[냉촌·설촌·강촌·낙민·노루메기·탁발]에서는 매 3년마다 한번씩 마을의 진산(鎮山)인 정발산(鼎鉢山)에서 도당굿을 벌여 마을 전체의 안녕을 축원하고 있다. 이 도당굿의 유래를 보면,

정발산 근처 어느 마을에 살고 있는 노인[설촌말 능안골]이 하루는 꿈을 꾸었는데, 그 꿈 속에서 빨간 옷을 입은 동자가 서쪽의 강을 건너 정발산 쪽으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그때 정발산에 있던 흰 수염이 많이 난 노인이 호령을 해서 그 동자를 쫓아버렸다는 것이다. 그런데 마침 이 근처 마을에는 괴병이 만연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정발산 부근의 마을 사람들은 모두 무사하였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그 마을의 노인이 꿈 속에서 본 것처럼 정발산 산신령인 흰수염의 할아버지가 붉은 옷을 입은 악마동자를 쫓아버렸기 때문이라고 마을 사람들은 믿게 되었다. 이때부터 정발산 산신령을 위하여 도당굿이 시작되었다.

이 정발산 도당굿을 관장하는 무당은 모두 5명이고 악사도 3명이 동원된다. 현재는 이들 무당 중에서 대표자 격인 사람은 원당읍 식사리에 살던 무당의 양딸로서 화전읍에 거주하는 양동순씨이며 사용되는 악기는 피리, 대금, 해금인데, 특히 피리를 부는 분은 3년마다 치루어지는 도당굿에 빠짐없이 참여한다고 한다. 한편, 이 도당굿에 대해 이 마을 주민이 말하기를, 예전에는 동네의 당주(堂主)가 있어 2년마다 열리는 祭祀를 주관했으나, 요즘엔 제사 때마다 바뀌고, 굿이 행해지는 해, 음력 3월 1일에 중요한 분이 모여 날을 잡는다고 한다. 그리고 아무런 하자가 없는 사람을 당주로 정하고 제사 때 사용할 술을 담그는데, 그 술을 '조라술'이라 부른다. 산 밑에는 항상 술을 담그는 자리가 있어 굿날이 아무리 촉박하게 다가와도 술을 담근지 하루만 지나면 좋은 맛을 내며 익었다 한다. 주민들이 농사를 지은 벼를 정미소에서 빻고 그것을 먹기 전에 우선 굿의 경비로 각출했는데

7) 6) 과 같음. P.1129~1131 참조

한 집당 3되씩 냈다. 그러나 요즈음에는 돈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 도당굿은 6.25 전쟁 중에도 계속되었고, 대개 약 500여명의 주민이 꾸준히 참석하고 있다. 그리고 굿을 하는 날이 정해지면 주민들은 만신들이 모여 산다는 덕물산[개풍군 덕물산]에 가서 최영장군께 굿 할 것을 고하고 돌아온다. 굿날에는 마을마다 사람들이 모두 일손을 놓고 구경을 하는데 굿은 아침 일찍부터 시작하여 밤 늦게까지 한다. 굿이 끝나면 산에서 내려와 도당집에서 다시 굿을 한다. 예전에는 12거리 굿을 하면서 1거리마다 무당에게 돈을 주었으나 지금은 하루 굿 하는 비용을 한꺼번에 계산해 주며 무당들은 단골 만신들로서 말머리에도 만신이 있었으나, 대개는 식사리 방아고개에 거주하는 만신들을 테려다 굿을 한다고 한다.

이상과 같은 구술에는 실제와 다른 점이 한가지 있는데, 즉 정발산 도당굿은 격년마다 하는 게 아니라 3년마다 한 번씩 열리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굿은 보통 12거리를 하고 있으나 제대로 하자면 16거리가 되는데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 ① 초당 : 첫 장구를 내는 것.
- ② 부정 : 참석한 마을의 성씨[大同名人名姓]를 들어 축원함.
- ③ 부정거리 : 부정사(不淨事)에 부딪쳐도 무사를 빌며 축원함.
- ④ 부정말명 : 처녀귀신을 달래어 쫓아냄.

가망청배 : 각자의 조상을 청함.

⑤ 城隍거리 : 성황신께 빌며 애원함.

⑥ 大監놀이 : 각종의 대감신께 도와 달라고 빌며 애원함.

⑦ 불사거리 : 부처 삼신(三神) 할미에게 기원함.

⑧ 칠성거리 : 칠성님께 자손들의 안녕을 기원함.

호구거리 : 인물·사물을 몰아냄.

⑨ 대반이[도당대] : 깨끗한 자로 대잡이가 대 내리도록 기원함

⑩ 산신거리 : 구능놀이—산신과 어울려 놈.

산양놀이—산신할아버지가 사냥갈 때 응원.

막둥놀이—산신할아버지 심부름꾼 놈이.

- ⑪ 장군님 놀이 : 최영장군을 모시고 하는 놀이.  
도당거리 : 산신 전체와 하는 놀이.
  - ⑫ 별산거리 : 제일 나쁜 귀신을 물아냄.  
이 때 무당은 칼을 들고 작두를 탄다.
  - ⑬ 신장거리 : 예전 말을 타고 벼슬한 귀신 할아버지께 도움을 청함.
  - ⑭ 성주거리 : 대동 대주 잘 되라는 놀이.
  - ⑮ 창부거리 : 3년의 평안을 축원함.
  - ⑯ 전립 : 터주 전립놀이.  
지신 : 터놀이.  
맹인 : 장님도 복 받으라는 놀이.  
텃대감 : 동서남북 빠짐없이 각 가정을 축원함.  
영산풀기 : 달리고 뛰면서 무고를 축원함.

본래 도당굿은 정발산 정상에서 했는데 군부대가 정상으로 이전하면서 그 후로 산동성이 쪽으로 내려와 지내고 있다. 또한 신도시 개발로 인하여 모든 마을이 없어지고 정발산도 공원으로 조성될 계획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사당이나 굿장소 그리고 도당굿 등이 민속의 보존·계승의 차원에서 전승되는 것이 고려되었으면 하는 것이 이 곳 주민들의 바램이기도 하다.

### 5) 마두 5리(馬頭 5里)

마두 5리는 일산과 능곡 사이의 398도로 주변에 있는 마을의 행정리 명칭으로 마두 2리[강촌말] 윗쪽에 위치한다. 본래 이 곳은 마두 2리 강촌말에 속해 있었으나 약 20여년 전에 서울 재개발 사업으로 이사 온 사람들이 산에 집을 짓기 시작하면서 새로이 형성된 마을이다. 마두 5리는 현재 191가구 743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 ◎ 산동네

산동네 마두 5리의 자연촌락 명칭으로 새로이 모범산 위에 만들어

졌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모범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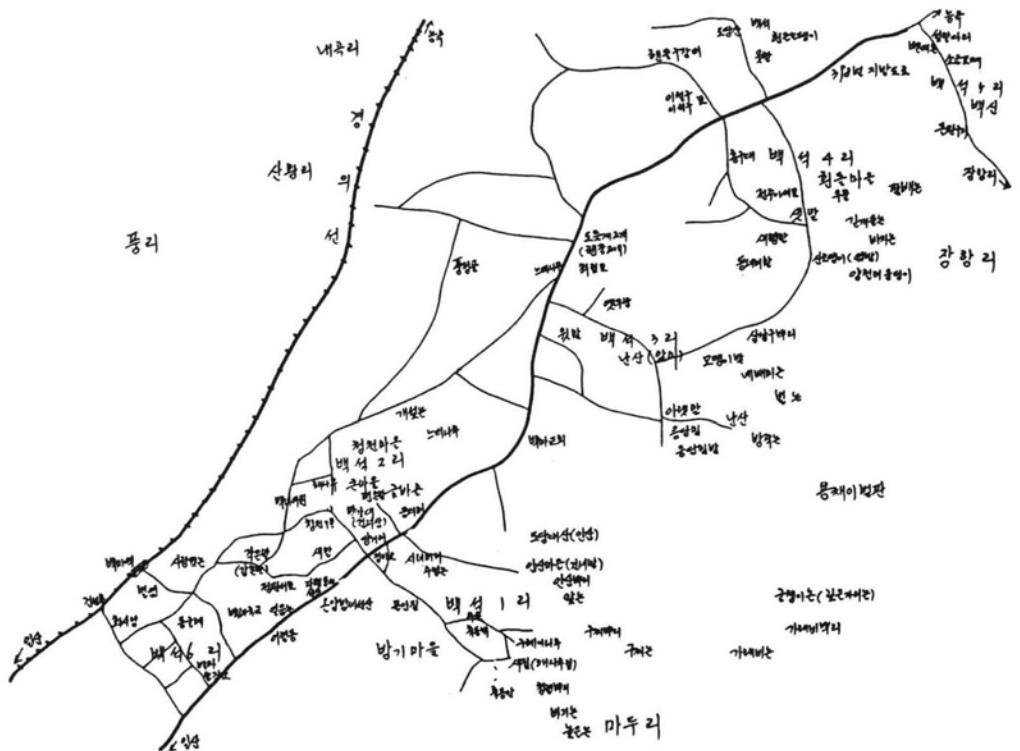
마두 5리 마을이 생기기 전에 불리우던 자연지명의 산 이름으로 이곳에 고양군에서 모범나무를 심은 후 붙여진 지명이다. 지금 이 곳은 산을 깍아내려 많은 집들이 자리잡고 있다.

제보자 : 강 신 원(74)

(6) 백석리(白石里)



백석리의 지명유래가 된 백석(흰돌)



백석리는 일산읍사무소(일산리)를 기준으로 볼 때 남서쪽에 위치한 마을의 법정리 명칭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마을의 위치를 살펴보면 백석리의 남쪽으로는 지도읍 내곡리·토당리·신평리와 경계하며 서쪽으로는 일산읍 장항리와 동쪽으로는 일산읍 풍리·산황리와 경계하며, 북쪽으로는 마두리와 경계하고 있다.

본래 백석리라는 명칭은 현재 백석 4리 도당산에 있는 크기가 약 1m<sup>3</sup>의 흰돌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라 하며 사람들은 흔히 흰돌리 혹은 핸들리로 부르고 있다.

현재 백석리는 크게 6개 행정리로 구분되어 있는데 백석 1리는 방기[방터골], 2리는 청천[샘뿌리], 3리는 알미(난산마을), 4리는 흰돌[흰돌], 5리는 백신이며 6리는 새로이 만들어진 백마역 부근 마을이다. 이 중에서 신도시에 포함된 지역은 5리 백신마을을 제외한 전지역으로 지금은 많은 집들이 대부분 능곡·일산·원당지역으로 이주하고 있다.

## 1) 백석 1리(白石 1里)

백석 1리 방기마을은 398번 도로 당거리에서 한강제방 방향으로 있는 마을의 행정리 명칭인데, 대부분의 집은 기와로 지어져 있으며 주업은 논농사이다. 이 마을의 앞으로는 한강까지 이어지는 넓은 용채이벌판이 펼쳐져 있으며 뒷쪽으로는 온양 방씨의 묘소와 선산이 자리잡고 있다. 본래 이 마을이 방기마을로 불리우게 된 것은 예전부터 이 곳에 방씨들이 터를 잡고 살았다 하여 붙여진 지명이라 한다. 그러나 지금은 창녕 조씨 병사공파가 집성촌을 이루어 살고 있다. 1989년 11월 1일 통계로 백석 1리에는 156가구 591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 ● 당거리 정미소[방청 정미소]

방기마을 입구에 있는 방앗간으로 당거리에 있다 하여 당거리 정미소라 한다. 정미소가 처음 세워진 것은 약 70년 전이라 하며 방기마을의 '방'자와 청천마을의 '청'자를 따서 방청 정미소라 하기도 한다.

### ● 방진기(1655~1729) 묘

백석 1리[방기마을] 뒷편에 있는 묘로 둘레에 있는 여러 무덤과 견줄 때 규모가 가장 크며, 무덤 쓰기와 관련된 석물을 제대로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석물을 만든 솜씨도 가장 뛰어나 보인다. 북동 남

서방향으로 자리잡은 묘는 정경부인 강음 이씨(江陰 李氏), 우봉 이씨(牛峯 李氏)가 합장되어 있다. 석물로는 비석을 비롯하여 상석·향로석·망주석·문인석이 있으며, 상석의 양쪽에 있는 맷돌은 망주석이 세워진 곳까지 놓여졌고, 큼직한 사정이 봉분을 에워싸고 있다.

#### ● 방태여(1705~1778) 묘

백석 1리(방기마을) 뒷산 방씨 선산에 있으며 방진기 무덤의 바로 아래쪽에 위치한 까닭에 무덤을 별도로 둘러싸고 있는 사성은 없다. 방진기의 무덤과 같이 여러 석물이 고루 갖추어져 있으나 그 규모는 방진기의 무덤보다 작다. 방태여의 무덤도 남서방향으로 자리를 잡았으며 봉분은 첫째 정부인 밀양 변씨와 둘째 정부인 해주 최씨와 봉토를 달리하는 합장형식이다.

#### ● 방우주(1770~1715) 묘

이 무덤은 방진기의 무덤으로부터 동남쪽 방향으로 약 10m 쯤 떨어진 곳에 자리하는데, 무덤의 전체 규모는 방진기·방태여의 것들에 비하여 작은 편이다. 정부인 천안 이씨가 합장된 이 무덤은 북북동—남남서로 자리하고 혼유석·상석·향로석·비석 등을 갖추고 있다.

#### ● 온양 방씨 선산

방기마을에서 청천마을[백석 2리] 방향의 야산에는 약 20여기의 묘가 있는데, 모두 온양 방씨의 묘들이다. 앞에서 소개한 세개의 묘 이외에도 이 곳에는 많은 묘가 있는데 잘 보호되어 있다.

### ◎ 시러머리

방청 정미소에서 방기마을로 들어오는 마을입구 원쪽의 논을 부르는 명칭으로 이 곳에 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큰 연못이 있었다고 한다. 일제식민지시대때 이 곳에 큰 도로가 나면서 연못은 없어지고 이 곳을 시러머리라 불렀다고 한다.

#### ● 수령논

당거리 정미소에서 약 100m 정도 방기마을로 들어오다가 좌측으로 논이 하나 있는데 다른 논에 비하여 수령이 많아 수령논이라 불리웠으나 지금은 모두 흙으로 묻혀 버렸다.

### ● 방기마을 옛우물

방기마을 이만철씨 집 앞에 큰 콘크리트 뚜껑을 덮은 우물이 하나 있는데 흔히 방터골에 있다 하여 방터골 우물이라 하며 식수로는 사용하고 있지 않다.

### ◎ 축동밖 · 축동안

방기마을 입구를 부르는 지명으로 예전에는 이 방기마을이 크게 둘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그 경계는 큰 느티나무 20여 그루였다. 이 느티나무는 크기가 모두 비슷하게 나란히 서 있어서 느티나무 안의 마을을 축동안, 그리고 그 밖의 마을을 축동밖이라 하였다. 그러나 일제식민지시대 때 일본인들이 소총을 만들기 위해 모두 베어가 버리고 지금은 단 한 그루의 나무도 남아있지 않다.

### ● 골안집

마을 입구인 축동 밖에서 우측 온양 방씨 선산방향으로 들어가면 산골짜기 밑에 집이 하나 있는데 이 마을에서는 골 안쪽에 있는 집이라 하여 골안집이라 부른다.

### ● 새집

방기마을 조규현[58세]씨 집을 부르는 이름으로 지금은 이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집이지만 예전에 이 집을 처음 지을 때 부근 마을에서 새로이 지은 집이라 하여 새집이라 하였다 한다.

### ● 해나무집

조규현씨 집을 달리 해나무집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이 집 주변에 예전부터 큰 해나무가 있었고 지금도 담을 둘러싼 해나무가 많아 붙여진 이름이다.

### ● 구레이나무

조규현씨 집 대문 앞에 있던 큰 느티나무를 부르던 이름으로 나무 중간에 사람이 들어갈 정도의 큰 구멍이 나 있어 이 안에 큰 구렁이가 살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 느티나무는 약 40년 전 바람에 넘어져 지금은 그 흔적만 남아 있다.

### ◎ 청녕뿌리

조규현씨 집 담 바로 뒤에 있는 산줄기의 끝 부분을 부르는 지명으로 그 유래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풍수지리설과 관련이 있는 듯 하다. 즉, 산줄기가 이어지다가 평야나 하천을 만나 산줄기가 끝나는 부분을 뿌리라 하는데 청녕은 청룡모양을 가진 뿌리라 하여 붙여진 이름인 듯 하다.

### ◎ 구찌뿌리

방기마을 조경환씨 집 앞의 산줄기 끝을 부르는 명칭인데 작은 구릉 모양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곳에 몇 채의 집이 있다. 구찌는 일본 말인 것 같다.

#### ● 구찌[치]논

구찌논은 구찌뿌리 앞에 있다 하여 붙여진 논 이름이다. 이번 수해 때(1990년)에 이 논도 물에 잠겼었다.

#### ● 앞논

백석 1리 마을에서 한강방향 마을[방기마을] 바로 앞에 있다 하여 붙여진 논 이름으로 하나의 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용채이벌판 일부분을 부르는 것이라 한다.

#### ● 바지논

백석 1리[방기마을]에서 대보뚝[한강제방]으로 펼쳐진 용채이벌판 가운데 대수로 주변에 있는 논이름으로 논의 모양새가 마치 바지처럼 생겼다 하여 붙여진 논이름이다.

#### ● 높은논

방기마을 조규현씨 소유의 논으로 용채이벌판 가운데에 있다. 이 논은 다른 논과는 달리 그 위치가 높은 곳에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 굴챙이논[깊은자리논]

앞에서 소개한 바지논 옆의 논 이름으로 다른 논보다 굴챙이진 자리 즉, 깊은자리가 많이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 가래비논

앞에서 소개한 굴챙이논 부근에 있는 논의 이름으로 이 논을 가래비라 부르는 것은 그 모양이 농가구의 하나인 가래와 같이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 도당대산

방기마을에서 알미마을[백석 3리] 방향으로 우뚝 솟은 산을 도당산이라 하는데 이는 농촌의 민간신앙인 도당대 굿을 이 곳에서 매년 실시했기 때문에 붙여진 지명이다.

이 곳의 도당굿은 백석 1리, 백석 2리[청천마을]와 같이 실시했는데 백석 4리 흰돌마을에서는 할아버지를, 그리고 이 곳에서는 할머니를 모셨다 한다. 이 곳의 도당굿은 길일을 잡아 마을의 촌로 중에서 태어난 시각, 떠 등을 살펴 길한 사람을 제주로 삼아 각 집에서 곡물을 분담하여 거두어 실시했으며 제물은 보통 돼지를 썼다. 특히 이 곳의 굿은 식사리 방아골 만신이 담당하였다 하며 1989년에도 실시했으나 신도시 개발 발표로 인하여 1990년에는 올리지 못하였다 한다.

### ◎ 안산

도당대산을 달리 부르는 지명으로 산의 위치가 마을의 앞에 있어 항상 눈에 보이는 산이라는 뜻에서 안산이라 부른다.

안산 기슭에는 전주 이씨 묘들이 많으며 곳곳에 집들이 자리하고 있다. 약 20년 전에는 큰 소나무가 많이 있었다고 한다.

### ◎ 안산마을(건년말)

안산(도당대산) 밑에 위치한 마을이라 하여 안산마을이라 부르는데, 본래 이 곳에는 집이 없었으나 약 15년 전부터 새로이 집이 생기기 시작하여 지금은 약 15호의 집이 있다. 또 안산마을은 방기마을에서 볼 때 논 건너편에 있다 하여 전년말이라 하기도 한다.

### ◎ 안산뿌리

안산뿌리는 안산에서 용채이벌판 방향으로 약 200m 정도 떨어져 있는 구릉을 부르는 명칭인데 이 지명은 안산의 산줄기가 끝나는 곳이라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이 곳에는 전주 이씨의 묘들이 있다.

### ◎ 금바골[검바골]

방기마을에서 일산—능곡 간의 398번 도로 건너편에 있는 마을로 예전에 검은 바위가 있었다 하여 검바골[금바골]이라 한다.

### ◎ 등너며

금바골[검바골]을 달리 부르는 지명으로 방기마을에서 볼 때 산등성이인 398번 도로 넘어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 배부른데

용채이벌판에 있는 논 이름으로 비가 많이 올 때 물이 빠지지 않아 멀리 이 마을[당거리]에서 보면 배부른 모양이라 하여 붙여진 논이름이다.

제보자 : 조규현 (58), 김영태

## 2) 백석 2리(白石 2里)

백석 2리는 앞에서 소개한 방기마을[백석 1리]에서 백마역 방향에 있는 행정리의 명칭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바로 신도시 모델하우스 건너편 마을이 된다.

백석 2리의 자연촌락 명칭은 청천(青泉)인데 혼히들 샘뿌리라 하기도 한다.

현재 이 마을은 예전과는 달리 집이 많이 들어섰고 집의 구조도 개축·증축을 하였기 때문에 옛 농촌 모습을 그대로 볼 수는 없으나 여러 곳에 자연지명이 많이 남아있다. 1989년 11월 통계로 이 마을에는 411가구 1,710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 ◎ 청천(青泉), 샘뿌리

청천은 백석 2리의 자연촌락 이름으로 지금의 백마역에서 이 마을 까지 흐르는 하천이 한강으로 흘러들어 한강 하류의 일부를 이루었는데, 그 당시 이 곳을 흐르는 물이 사람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마치 샘과 같이 푸르고 맑다 하여 샘 '천(泉)'자 푸를 '청(青)'자를 써서 천 청이라 하였다. 또 달리 이 마을에 예전부터 아주 유명한 우물이 하나 있는데, 그 물이 1년 내내 푸른빛으로 맑고 깨끗하여 '샘이 푸르

다'는 뜻에서 샘뿌리라 부른다고 한다.

### ◎ 당거리

백석 2리 398번 도로에서 버스가 정차하는 곳의 지명으로 백석 1리 방기마을과 나누어지는 5거리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본래 이 곳에는 민간신앙의 상징인 성황당이 있었고 이 성황당 근처에 큰 당나무가 있었다 하여 당거리라 부른다. 그러나 지금 성황당은 남아 있지 않고 작은 나무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 ◎ 파평 윤씨 선산

당거리에서 청천마을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왼편으로 조그마한 야산이 마을 뒷편에 길게 자리잡고 있는데, 산 기슭에 묘소가 곳곳에 많이 있다. 이 묘소는 모두 파평 윤씨의 묘인데 약 30기 정도의 묘가 있다.

### ● 윤타(尹端 1624~1682) 묘

현재 이 묘 일대는 벌초를 하지 않아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으며 그 위치는 마을 도로에서 좌측으로 약 40m 떨어져 있다.

윤타의 무덤은 북북서~남남동 방향으로 자리잡았는데, 이 곳에는 두 개의 봉분이 있으며, 왼쪽에는 윤타와 그의 첫째 부인 완산 이씨(完山 李氏)가 합장되어 있고, 오른쪽으로는 둘째 부인 진주 류씨(晋州 柳氏)의 것이 홀로 있다. 이 무덤에는 비석·흔유석·상석·향로석 등과 함께 문인석이 남아 있으나 망주석은 보이지 않는다.

### ◎ 작은말[강촌말]

작은말은 앞에서 소개한 윤타 무덤 아래쪽에 있는 마을을 부르는 이름으로 청천마을을 큰마을과 작은마을로 구분할 때 그 규모가 작다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또 진주 강씨들이 많이 살고 있다 하여 강촌말이라 하기도 한다.

### ◎ 넘말

넘말은 작은말을 달리 부르는 이름으로 청천마을 큰마을[편촌말]에서 볼 때 산등넘어에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 정판서 묘

작은말[강촌말] 뒷편, 윤타요 우측으로 잘 관리하지 않은 묘가 두 개 있는데, 비가 없어 정확히 누구의 묘인지는 알 수 없으나 상석에 '판서 정공(鄭公)'이라 쓰여져 있으며 상석·고석 등은 그대로 남아 있다.

### ● 얼음논

얼음논은 지금의 백마국민학교 부근에 있던 논의 이름으로 예전 이곳에 웅달이져 겨울이 되면 얼음이 얼어 쉽게 녹지 않아 불여진 이름이라 한다.

### ◎ 어룡동

지금의 백마국민학교가 있는 곳을 부르는 지명으로 어룡동에 대한 유래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이 곳은 예전에 집은 많지 않고 나무가 많은 곳이었으나 백마국민학교가 들어선 후 이 주변에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였다 한다.

### ● 청천우물

청천마을[백석 2리]의 지명 유래가 되었던 우물로 지금은 사용치 않고 두껑으로 덮혀져 있다. 본래 이 우물은 맑고 푸르러 청천우물이 되었으며 근대적인 수도시설이 개발되기 이전에는 이 마을에서 모두 이 물을 사용하였다 한다.

### ◎ 큰말[편촌말]

당거리에서 청천마을로 들어오다가 우측길로 300m 정도에 있는 마을이 큰말, 즉, 편촌말이다. 큰말이라는 것은 앞에서 소개한 작은말에 대하여 불여진 지명이고 편촌말은 예전부터 편씨들이 많이 살고 있다 하여 불여진 지명이다.

### ◎ 새말[새마을]

새말은 청천마을 마을회관이 있는 곳을 부르는 지명으로 약 15~20년 전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새로이 정착하여 마을을 만들었다 하여 불여진 지명이다.

### ◎ 말간데(마을 가운데)

편촌말에서 방기마을 방향으로 있는 조그마한 야산을 부르는 지명으로 정상에는 물탱크가 있다. 보통 이 마을 사람들은 이 산을 마을 한가운데에 있다 하여 쉽게 말간데산이라 부른다.

### ◎ 건너산(근너산)

말간데산을 유덕천씨가 사는 마을에서는 건너에 있는 산이라 하여 건너산이라 부른다. 본래 이 산에는 병조 판서를 지낸 신씨의 묘가 있었는데, 약 23년쯤 전에 자손이 모두 팔아 유골은 이장하고 석물은 모두 땅에 묻었다 한다. 그 당시 이 곳에는 약 10여기의 큰 묘가 있었다 한다.

#### ● 해나무[해나무집]

청천마을 편촌말에 가면 마을 가운데에 오래된 고목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리 크거나 굵지는 않지만 오래된것 같은 고목의 느낌을 받는다. 본래 이 나무는 이 곳에 심은 것이 아니고 약 250년 전 이 마을 부근에 큰 홍수가 났을 때 작은 나무가 떠내려 온 뒤 뿌리를 내려 지금의 나무로 자란 것이라 한다. 이 나무의 수종은 해나무라 하며 해나무 앞에 있는 집을 해나무집이라 부른다.

#### ● 백마의원

청천마을 백석 2리 마을회관에서 경의선 방면으로 약 50m 정도 가면 백석·마두리의 유일한 의료기관인 백마의원이 있다.

본래는 약 23년 전 안동훈이란 사람이 처음 시작했는데, 그 당시 한의·양의를 겸했다 하며 워낙 그 의술이 좋아 인근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한다.

지금은 신도시 이전 준비로 예전과 같지는 않으며 또 백마의원 앞에는 넓은 포도밭이 조성되어 있고 포도밭 밑에는 저수지 모양의 연못이 남아 있다.

### ● 소나무 보호림

백마의원 바로 뒷쪽에는 푸른 소나무들이 짹빽하게 자라고 있는데 이것은 10여년 전에 마을에서 심은 것이라 한다. 지금 이 곳에는 인근 묘에서 나온 향로석·고석·상석 등이 있으며 주변에는 포도나무 밭이 있다.

### ● 개설논

개설논은 유덕천씨 소유의 논으로 청천마을에서 경의선 방향에 있으며 개울 옆에 있는 논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 풍정골[발]

지금의 신도시 모델하우스가 위치한 곳의 옛 지명으로 그 지명의 유래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옛 모습은 적당한 높이의 산과 밭으로 이루어진 골짜기였다 한다. 이 곳에 있는 밭을 풍정골밭이라 하였다 한다.

### ● 청천마을 느티나무

일명 구레이나무라 부르기도 하는데 지금은 남아있지 않으나 예전 이 주변 마을에서 가장 큰 느티나무였다고 한다.

이밖에도 청천마을에는 그 유래를 알 수 없는 호밭이갓, 모로갯벌 등의 지명이 사람들에 의해 구전되고 있다.

제보자 : 유덕천(77)

## 3) 백석 3리(白石 3里)

백석 3리는 백석 1리[방기 마을] 백석 2리[청천마을]가 만나는 당거리에서 능곡-일산간 398번 도로를 따라 능곡 방면으로 약 400m 정도와 좌·우측으로 보이는 마을의 행정리 명칭으로 본래의 자연촌락 명칭은 난산(卵山)마을이다. 예전부터 이 마을주민의 대부분은 농사를 지었고 10년 전부터 타지역에서 유입된 인구가 급속히 증가했다 한다. 옛날부터 이 마을에는 전 주 이씨 자손이 집성촌을 이루어 살고 있는데, 이들이 처음 이 곳에 자리잡

은 것은 1637년으로 『고양군지』에 기록되어 있다.<sup>8)</sup> 1989년 11월 1일 통계에 의하면 이 마을에는 196가구 796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 ◎ 난산마을[알미마을]

난산(卵山) 즉, 알미마을은 백석 3리의 자연촌락 지명으로 한자로 풀이하면 달걀산이 된다. 현재 이 마을 아랫말마을 용채이벌판 방향으로 작은 야산이 하나 있는데, 이 산의 생김새가 마치 달걀이 놓여진 모양이라 하여 붙여진 지명이라 한다. 또는 알밀이라 하는 사람도 있다. 지금 이 난산에는 소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고 곳곳에 군용 참호가 있다. 이 마을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이 난산은 예전 대보뚝[한강뚝]이 쌓여지기 전에는 이곳까지 물이 들어와 배가 정박하던 곳이라 한다.

#### ● 난산 느티나무

난산마을[백석 3리] 버스 승차장 앞에 있는 느티나무로 그 크기는 우람하지 않으나 인근에서는 돌보이는 큰 나무로 난산에 있다 하여 난산[알미]느티나무라 한다.

#### ● 옛우물

난산마을 버스 승차장에서 난산마을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이정화씨 집 앞에 뚜껑이 덮인 우물이 남아 있는데, 예전엔 마을에서 모두 사용했던 우물이나, 최근 수도시설이 갖추어지면서 사용하지 않는다.

#### ● 백마교회

능곡~일산간 398번 도로 바로 옆에 남아 있는 흰 건물로 인적은 없고 십자가만이 높게 달려 있다.

### ◎ 도둑(덕)재고개[핸들고개]

알미마을에서 흰돌마을[백석 4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부르는 이름으로 도둑(덕)재 고개에 대한 정확한 유래는 알 수 없고 핸들마을로 넘어가는 고개라 하여 핸들고개라고도 한다.

#### ● 최립(崔笠, 1539~1612) 무덤

백석 3리에서 4리로 넘어가는 도덕재고개[핸들고개] 우측에 한 무리의 무덤이 있다. 이 무덤들은 대부분 이씨·최씨의 묘들인데, 각

8) 6)과 같음.

무덤에는 상석·향로석·문인석이 남아 있고 비석자리가 보이는 곳도 있다. 이 묘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최립 묘다.

최립의 비는 1715년[숙종 41]에 세워진 듯 하며 봉분은 두 개로 되어 있다. 최립과 예안 이씨(禮安 李氏)의 무덤은 함께 묻혀 있고 따로 한산 우씨(韓山 禹氏)의 무덤은 다른 봉분으로 그 아래에 있다. 최립은 글에 뛰어난 사람으로서 임진왜란 당시 외교문서를 잘 지었으며 명나라에도 자주 다녀왔다. 한편, 서예에도 능하였던 그는 저술로서 간이집(簡易集), 주역본의 구결부설(周易本義 口訣附設), 한사열전초(漢史列傳抄), 십가근체(十家近體) 등을 남겼다.

### ◎ 아랫말

난산[알미]마을을 위치에 따라 구분해 볼 때 아랫쪽에 있다 하여 아랫말이라 부르며 난산[달걀산]이 있는 곳이다.

### ◎ 응달밀[우물]

위에서 소개한 아랫말 주변을 부르는 지명으로 난산에 가려 항상 응달이 쳐 붙여진 지명이다. 이 곳에는 예전부터 유명한 우물이 있어 응달밀우물이라 하는데 지금은 식수로 사용하지 않는다.

#### ● 응달밀밭

앞에서 소개한 응달밀에 있는 밭으로 1990년 수해 때 물에 잠겼다.

#### ● 네 베미논

응달밀밭에서 대보뚝(한강방향) 용채이벌판에 있는 논 이름으로 논 하나가 네 개의 베미[작은 논]로 이루어져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 ● 별논

알미마을에서 용채이벌판 방향에 있는 논의 이름으로 벌판에 있는 논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 방죽논

방죽논은 난산[달걀산]에서 장항3·4·5리 방향에 있는 논의 이름으로 예전에 이 곳 알미마을 앞에는 큰 웅덩이가 있었고 이 웅덩이를 막아주던 방죽이 있었다 한다. 이 논의 이름은 이 방죽 근처에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그후 이 방죽은 근대적인 경지 정리가 있은 후에 없어졌다 한다.

### ◎ 가래비뿌리[논·밭]

방기마을[백석 1리]에서 소개한 안산뿌리 중, 알미[백석 3리]방향

부분만을 달리 가래비뿌리라 부른다. 전주 이씨 묘들이 무수히 많이 자리잡고 있는 이곳 역시 다른 곳에서 볼 수 있듯이 산줄기가 이어지다가 이곳에 큰 벌판[용채이벌]과 만나 끊어지는 곳으로 뿌리라 불리는데 그 모양이 마치 가래와 비슷하다 하여 붙여진 지명인 듯 하다. 또 이곳에 있는 논밭들은 가래비 논밭으로 불리우고 있다.

#### ◎ 상낭구뿌리[상낭구백이]

난산마을에서 핸돌마을로 가는 소로길 앞에 있는 자그마한 야산의 이름으로 약간의 소나무가 자라는 이곳은 예전에는 상낭구(향나무)들이 많았고 또 산줄기가 끊어지는 곳이라 하여 상낭구뿌리라 불리웠다. 또 다른 지명으로는 이곳에 향나무들이 빽빽하게 많던 곳이라 하여 상낭구백이라고도 한다.

#### ● 모탱이밭

알미마을에서 흰돌마을로 가는 도로 옆[상낭구뿌리 밑]에 있는 밭의 이름으로 산의 줄기가 길게 이어져 도로가 돌아가는 모퉁이에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제보자 : 이정화(72)

#### 4) 백석 4리(白石 4里)

백석 4리는 앞에서 소개한 알미마을에서 핸돌고개를 넘어 능곡방면으로 300m 오면 백석·흰돌·핸돌로 불리우는 마을의 행정리 명칭이다. 이 마을에는 예전부터 밀양 박씨, 인동 장씨, 통린 최씨 등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백석 4리의 자연촌락 지명인 흰돌마을은 능곡·일산간 398번 지방도로 버스정류장에서 좌측 지도읍 내곡리 방면으로 오면 작은 산이 있고 이곳에는 이 마을의 지명유래가 된 흰돌이 있다. 지금 이 돌의 크기는 세로 1m 50 cm, 가로 2m 정도이며 주위에는 큰 느티나무들이 둘러져 있다. 이 돌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모르나 이 마을에서는 이 돌을 예전부터 신성시하였다. 이 마을에는 1989년 11월 통계로 159가구 642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 ◎ 도당산(都堂山)

백석 4리[핸돌마을]의 흰돌이 있는 작은 야산을 부르는 명칭으로 이 곳에서 3년에 한번씩 도당굿을 올리기 때문에 붙여진 지명이다. 도당굿을 올리는 장소는 앞에서 소개한 흰돌 바로 앞이며 봄에 도당

굿을 하는데 알미[3리], 흰돌[4리] 마을이 공동으로 실시한다. 현재 이 산에는 신도시 모델하우스 방향으로 작은 소나무가 많이 있으며 그 외의 부분은 큰 느티나무가 있다. 예전부터 이 마을에서는 이 곳을 신성시하여 잘 보존하여 왔는데 신도시 계획에서도 이 곳은 공원 부지로 설정하여 보존할 듯 하다.

#### ● 도당나무

도당대산에 있는 큰 느티나무들 중에서 도당굿을 지내는 큰 나무가 있다. 이 나무를 도당굿 하는 장소라 하여 도당나무라 한다. 이 마을에서는 1리·2리와는 달리 할아버지를 도당신으로 모신다.

#### ◎ 웃말

398번 지방도로에서 도당나무 방향에 있는 마을을 부르는 이름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위치가 웃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웃말이라 한다. 이 마을에는 약 15호 정도의 집이 있고 뒷산에는 흰돌이 있다.

#### ◎ 흰돌 산모탱이[나루]

백석 4리[흰돌마을] 웃말에 있는 소지명으로 도당대산 중에서 흰돌이 있는 작은 언덕을 부르는 명칭이다. 예전에 대보뚝[한강제방]이 쌓여지기 전에는 이곳까지 배가 들어왔다 하여 백석나루라 했으며 산줄기 때문에 길이 돌아가게 되는데 이때문에 흰돌 모탱이라 부르기도 한다.

#### ● 진개울논

용채이벌판 가운데 있는 논의 이름으로 대수로 부근의 논을 진개울논이라 부른다. 이는 깊고 친 개울 옆에 있는 논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논의 크기는 7마지기이다.

#### ◎ 염발

흰돌모탱이에서 백석 5리 방향에 있는 소지명으로 예전 이곳에 소금을 만들던 염발이 있었다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 바지논

백석 4리[흰돌마을] 앞 용채이벌판에 있는 10마지기 짜리 논의 이

름으로 논의 모양이 마치 바지와 같이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 철력웅덩이[양철러웅덩이]

철력웅덩이는 용채이별판을 경지 정리하기 전, 지금의 알미마을과 흰돌[핸돌]마을 앞에 있던 큰 웅덩이의 이름인데 그 유래는 다음과 같다.

구한말 일본과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이권쟁탈의 경쟁을 하고 있을 때 초기에 세력을 잡은 러시아가 경의선을 건설하면서 철로를 지금의 용채이별판 가운데로 건설하였다. 그후 일본이 러시아 세력을 물리치고 철로를 지금의 경의선 노선으로 바꾸어 공사를 추진하였다. 그후 러시아인이 공사하던 철도 길 주변에 있던 이 웅덩이를 서양인이 건설하던 철도 옆에 있다하여 양철러라 불렀다고 한다.

이 웅덩이는 일제식민지시대 때 일본인들이 경지 정리를 하면서 물어 버렸다고 한다.

#### ● 팔배논

용채이별판 가운데 있는 논의 이름으로 정확한 유래는 알 수 없다.

### ◎ 샛말[사잇말]

핸돌마을[백석 4리]에 있는 작은 마을의 이름으로 샛말은 마을과 마을 사이에 있다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현재 이 곳에는 약 10호 정도의 집이 있다.

#### ● 샛말 옛우물[핸돌우물]

샛말에 있는 우물의 이름으로 지금은 식수로 사용하지는 않으나 예전에는 이 우물을 마을에서 모두 사용하였다 하며 고양군에서 물의 질을 측정하였을 때 매우 우수한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 ● 전주 이씨 묘

샛말 뒷산에 있던 묘로 지금은 상석과 향로석이 한 개씩 남아있다. 본래 이 곳에는 5~6기의 묘가 있었는데, 신도시 계획 발표 후에 모두 이장하고 남은 석재들은 한신대학에 옮겨졌다.

### ◎ 산모탱이[염발]

셋말에서 백석 3리[알미마을]로 가는 도중에 산의 줄기가 튀어나와 있는 곳을 산모통이라 하며, 예전에는 소금발[염전]이 있던 곳이라 한다.

### ◎ 새녕말

셋말에서 알미마을 방향으로 올라오면 작은 마을이 보이는데 흔히들 새녕말이라 부른다. 새녕말은 산줄기의 끝 즉, 산뿌리와 뿌리 사이에 있는 마을을 부르는 명칭이라 한다.

### ◎ 등넘어말

등넘어말은 새녕말에서 전주 이씨 선산이 있는 산 등성이 넘어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 홍구대(洪九代)

흰돌마을에 있는 자연촌락 이름으로 알미[백석 3리]에서 능곡 방향으로[능곡-일산간 398번 도로] 300m 정도에 있는 마을인데, 구체적으로 마을회관과 정미소가 있는 곳이다. 이 마을의 이름을 홍구대라 하는 것은 홍씨 성을 가진 사람이 구대(九代)에 걸쳐 살았다 하여 붙여진 지명이며, 흔히 넘어말이라 부르기도 한다.

#### ● 이철구(李鐵求, 1987~1836) 묘

일산-능곡간의 398 지방도를 따라 백석 4리에 이르면 원편으로 41.7m의 야산이 보이는데 도로에서 보면 산 중턱에 큰 비석이 세워져 있고 조금 더 올라가면 무덤이 북북동-남남서 방향으로 쓰여졌다. 봉분은 정부인인 파평 윤씨(坡平 尹氏)와의 합장 형식으로 이 봉분을 둘러싸고 사성이 둘러져 있고 혼유석·상석·향로석·망주석을 모두 갖추고 있다. 이철구는 조선 태종의 아들인 효녕대군의 손으로 정조~순조 때의 인물이다.

#### ● 이석구(李石求, 1775~1862) 무덤

이 무덤은 이철구 무덤의 동쪽 산등성이 넘어에 있으며 이 무덤으로부터 약 10m 아래쯤에 비석이 세워져 있다. 무덤은 서남 방향으로

자리를 잡고 있으며 청송 심씨[정부인]와 합장되어 있다. 무덤의 양쪽에는 망주석을 비롯하여 양석[羊石, 솟양]이 하나씩 있으며 문인석은 보이지 않는다.

이석구는 영·정·순조 년간의 인물로 순조 31년, 곧 1831년 57세의 일기로 양주 누원에서 죽어 양주 누원에 묻혔다가 1862년에 백석리에 이장되었다.

### ◎ 핸둘구장터

백석 4리 마을회관[노인정]에서 곡산역 방향으로 자그마한 마을이 있는데, 혼히들 구장터라 부른다. 핸둘구장터는 이곳에 본래 유명한 옛 장터가 있었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실제로 이 곳에는 경의선이 개통되기 전에 핸둘장이 있었으며 주로 농산물, 생활용품이 활발하게 교류되었다 한다.

### ◎ 용채이벌판

백석리 마을에서 장항 4·5·6리[한강] 방향으로 펼쳐진 넓은 벌판을 부르는 이름으로 혼히 용채이벌판이라 하는데 예전에 한강뚝[대보뚝]이 조성되기 전에 이 곳은 모두 갈당밭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여름에 홍수가 지면 물이 불어 마을 앞까지 들어왔고 이 물을 이용하여 많은 배들이 마을 앞까지 들어 왔다 한다. 이 때 용채이벌판에는 크고 작은 웅덩이가 곳곳에 있었고 이 곳에는 많은 물고기가 있어서 수영도 하고 낚시질도 하였다 한다. 이 넓은 벌판을 용채이라 불리우게 된 것은 용이 이 벌판에서 올라갔다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이 지명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벌판의 많은 웅덩이 가운데 가장 큰 연못에 오래 묵은 이무기가 살았다 한다. 이 이무기는 몇번이고 하늘로 올라가려 하다가 날씨가 맑거나 사람들이 많아 올라가지 못하다가 달도 없고 안개가 자욱이 긴 어느 날 새벽에 조용히 하늘로 올라갔다 한다. 그런데 이 광경은 이 부근 마을[백석리·마두리·장항리]에서는 보이지 않았고 멀리 지도읍 내곡리에서만 보였다 한다. 그후 이 벌판을 용이 하늘로 올라갔다 하여 용채이벌판이라 불렀다 하며 그 이전에는 이 연못에서 놀다가 죽은 어린이들이 많았으나 용이 하늘로 올라간 뒤에는 물에 빠져 죽는 일이 없어졌다

한다.

지금의 용채이벌판은 대보뚝 한강제방이 쌓여진 후 농지 정리에 의해 옥토로 바뀌었고 신도시 건설로 인하여 많은 부분이 택지로 개발된다.

제보자 : 장기연 (80)

### 5) 백석 5리(白石 5里)

백석 5리는 능곡-일산간 398번 지방도로를 따라 백석 4리(흰돌마을)에서 능곡 방면으로 약 500m 지점에 있는 마을의 행정리 명칭이며, 자연촌락 이름으로는 섬말 즉, 도촌말이다. 또 달리 백신(白新)이라 하기도 한다. 마을 주위에는 모두 논·밭이며 하다못해 잔구릉, 언덕 조차도 없이 마을 앞으로 대수로가 지난다. 또 백석리 마을 중에서 유일하게 신도시 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데 이 마을에는 1989년 11월의 통계로 67가구 280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 ◎ 백신(白新)

백신은 백석 5리 마을의 자연촌락 명칭으로 백석리의 여러 마을들 중에서 가장 늦게 새로이 만들어진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지명이라 한다.

#### ◎ 섬말

섬말은 일산읍의 최남단이면서 지도읍 대창리·토당리와 인접한 지역의 지명으로 이 곳은 도촌천이 흐르고 하천 위에는 다리가 놓여 있다. 예전 홍수가 났을 때면 하천의 물이 다리 위로 넘쳐 이 마을로 흘러 들어와 마을은 마치 섬처럼 고립되곤 하였는데, 그런 이유로 이 마을의 명칭을 섬말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 ● 섬말다리

섬말마을 앞 도촌천 위에 놓여져 있는 다리의 이름이다.

#### ◎ 소금포떼

소금포떼는 한강뚝이 쌓여지기 이전 이 마을 앞의 한강으로 배가 다니던 시절에 소금배를 대었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또는

소금을 이곳에다 부려 놓았기 때문에 이런 지명이 붙었다는 설도 있다.

#### ● 벤데논

벤데논이란, 앞에서 소개한 배가 정박하던 곳 즉, 배를 대던 곳에 있는 논이란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 ◎ 돌판구지

돌판구지는 이 마을의 경지 정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한강의 지류가 소용돌이쳤다가 한강에 흘러 들어갔기 때문에 붙여진 지명이다.

제보자 : 장기연(80)

### 6) 백석 6리(白石 6里)

백석 6리는 일산-능곡간 398번 도로에서 풍 3리 방면으로 내려와 백마역 주변 지역을 부르는 행정리 명칭이다. 현재 백석 6리는 대부분 새로이 주택이 들어서서 옛 모습은 잘 알 수 없다. 지금은 대부분 학사촌, 찻집, 식당 등이 백마 역전을 가운데 두고 자리잡고 있으며 1989년 11월 통계로 500가구에 1,687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 ● 백마국민학교

백마국민학교는 1948년 일산국민학교 부설 백석분교로 설립되고 1952년 백마국민학교로 승격하여 독립하였다. 1952년 10월 27일에 개교한 이래 1990년까지 38회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 ● 백마역

백마역은 경의선에 있는 철도역의 명칭으로 원래 논이었던 것을 기차역으로 만든 것이라 한다. 백마라는 명칭은 부근 마을의 이름인 백석리와 마두리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이름이다.

#### ◎ 역전앞

백마역 앞을 부르는 지명으로 예전에는 논·밭이었다고 한다.

#### ● 철도건널목

철도건널목은 경의선을 지나 풍리로 가는 곳이다.



퐁리에서 본 백석 2, 6리 마을

### ◎ 동굴매

동굴매는 백석 6리의 자연촌락 명칭으로 지금은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는 지명이다. 동굴매는 마을에서 볼 때 동쪽에 있는 골짜기라 하여 붙여진 이름인 듯 하다. 현재 이곳에는 많은 연립주택이 자리잡고 있다.

#### ● 동굴매 밭

동굴매 마을 앞에 있는 밭의 이름으로 지금은 모두 주택이 들어서 있다.

### ◎ 벌염

지금의 백마역이 있는 곳을 예전에 부르던 지명으로 한강제방이 축조되기 전에 이곳에 소금을 실은 배가 들어왔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지명이라 한다.

#### ● 사랑윗논

동굴매 마을에 있던 논의 이름으로 그 유래는 정확히 알 수 없으며

논의 위치가 사랑방 윗쪽에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인 듯 하다.

● 화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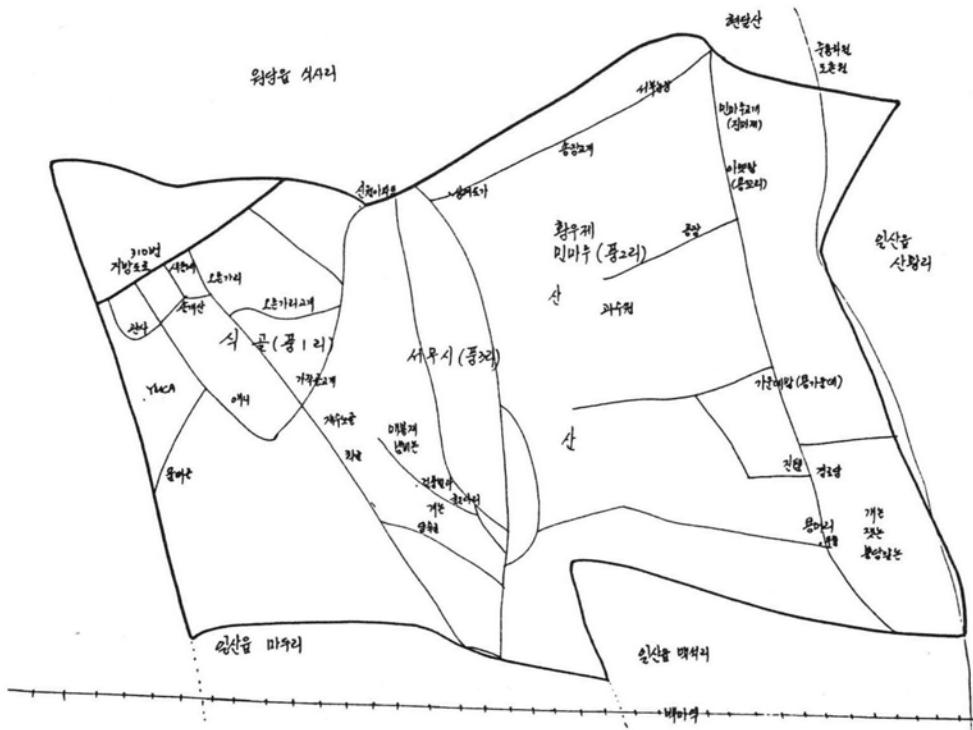
백마역에서 일산리 방향으로 약 150m 정도 올라와 철도 건널목이 있는 부근에 나무로 지은 집이 있는데 이곳이 처음 학사촌의 모태가 된 화사랑이다.

제보자 : 유덕천(77) · 강신원(74)

(7) 풍리(楓里)



풍리마을 용모양의 맨 끝부분(풍 2리)



일산읍 풍리는 일산읍 읍사무소가 있는 일산리에서 원당·능곡 방향에 있는 마을의 행정리 명칭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풍리의 위치를 소개하면 일산에서 서울 방면으로 이어진 310번 지방도로를 따라 가다가 우측에 있는 마을인데 경의선을 기준으로 볼 때는 일산에서 능곡 방향으로 가다가 좌측에 있는 마을이다. 이곳을 풍리라고 부르는 것은 옛부터 이 마을에 바람이 몹시 불이 붙여진 지명이라 하나 마을 주민들은 바람을 막기 위해 단풍나무를 심었는데 이 나무가 가을이 되면 단풍물이 곱게 들어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현재의 풍리는 모두 3개의 행정리로 구분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대부분 촌락이 농사를 주업으로 하였으나 근래에 들어와 풍 3리 중심으로 도시화되기 시작하여 촌락의 모습이 근·현대식으로 바뀌고 있으며 또 새로이 마을 주변에 신도시가 건설되어 모습이 크게 변화될 듯하다.

## 1) 풍 1리(楓 1里)

풍리 1리는 앞에서 소개한 일산 13리 마을에서 원당방향에 있는 마을의 행정리 명칭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그 위치를 소개하면 310번 지방도로 백마부대 앞에서 일산읍 마두리 방향에 있는 길을 따라 들어와 Y.M.C.A 수련장이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이 마을은 적당한 높이의 산이 마을 앞 뒷편으로 자리잡고 있어 촌락들은 산기슭에 자리하고 논·밭들이 부분적으로 조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이 마을 주민들의 주업은 논농사·밭농사 등 전통적인 농업이며 마을은 자연촌락 단위로 만들어져 있다.

1989년 통계로 이 마을에는 232가구 948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 ◎ 식골[食谷]

식골은 풍 1리의 자연지명으로 이 마을은 다른 마을보다 벼농사를 많이 짓고 또 수확도 풍성하였기 때문에 마을 이름을 식곡(食谷)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흔히 이 동네를 식골이라고도 부르는데 마을의 형상이 삼태기 모양을 하고 있어 무엇이든 주어 담는다 하여 가난한 사람이 없고 큰 부자나 권세 있는 사람도 없는 동네로 알려져 있다. 6.25 사변 때도 집하나 불타지 않고 인민군들도 후퇴하는 길에 조금 들어 왔을 뿐 마을에 큰 재난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한다. 식골에는 전주 이씨와 김씨들이 집성촌을 이루어 살고 있다.

### ◎ 열두골

풍 1리에는 작은 골짜기가 12개 있는데 이 골짜기들의 이름은 기억하시고 있지만 이름들이 그렇게 불리게 된 유래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대대로 농사를 짓고 살아가면서 들어온 골짜기의 이름이 구전되어 입에 오르내릴 뿐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고 한다. 12골의 이름을 나열해 보면 학굴, 재수노굴, 움터굴, 큰골, 당수굴, 쥐굴, 산우굴, 산성굴, 금박굴, 산굴, 밤나무굴, 더구굴이다. 풍 1리에는 고개도 여럿 있는데 큰말에서 애니마을로 넘어가는 가작굴고개, 오른가리에서 큰말로 가는 오른가리고개, 풍 3리로 넘어가는 학굴고개, 또 재수노굴고개, 산굴고개 등이 있다.

그리고 논·밭의 명칭도 12 골짜기의 명칭을 따서 학굴 옆에 있는 논은 학굴논이고, 재수노굴 옆의 논과 밭은 재수노굴논, 재수노굴밭으로 불렀다. 그런 식으로 움터굴, 큰굴논, 당수굴논, 쥐굴논, 산우굴논, 신성굴논, 금박골논, 산굴논, 밤나무굴논, 더구굴논이라 불렀다. 또 다른 논이름은 재수노굴 아래의 벼선밭이 있는데 이것은 밭의 모양이 벼선을 닮았다 하여 벼선밭이라 부른다. 그 밖에 수렁논과 논 옆의 진밭이 있는데 진밭은 밭이 질어서 가뭄에도 흙이 잘 마르지 않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 ◎ 애니

애니는 YMCA가 있는 작은 동네를 큰말에서 부르는 자연촌락 이름이다. 애니는 본래 애현리(愛峴里)였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애니라고 부르게 된 것 같다.

### ◎ 오른가리

오른가리는 9사단 앞의 마을을 부르는 이름으로 오른가리고개 아래 있다고 해서 오른가리라고 부르는데 오른가리는 오르막길 위에 있다 하여 붙여진 지명인 듯 하다.

### ◎ 새동네

백마사단이 새 건물을 신축할 때 그 안에 살았던 사람들을 이주시키기 위해 310번 지방도로를 중심으로 신축 건물 앞에 산을 깎아 집

을 지어 주었다. 그후 공장이 들어서고 마을을 형성하게 되었는데 새로 동네가 생겼다 하여 새동네라고 부른다.

#### ◎ 솔개산

솔개산은 새동네 앞에 있는 산의 이름으로 산의 모양이 마치 솔개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 ◎ 백마관사

20년 전에 백마부대가 풍 1리 1번지로 들어오자 령관급들을 위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산을 깎고 집을 지어 관사를 만들었다.

백마부대는 월남전쟁이 끝나고 풍 1리 1번지에 정착하게 되었다 하는데, 일산읍 풍 1리에서 벽제읍 성석리에 걸쳐 방대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 ● 서울 YMCA 수련장

YMCA에서 운영 관리하는 서울 YMCA 수련장은 풍 1리 9-2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1980년 7월 19일에 개장하였다. 현재 총 4800평의 敷地[전평은 약 561.72평]·식당[200名 수용]·숙소[250名 수용] 등을 가진 본관 건물과 100名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텐트촌, 500名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수영장[겨울에는 스케이트장] 그리고 그 밖에 종합운동장, 야영장, 베베큐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서울 YMCA 수련장도 청소년이나 일반인들이 자연을 배우고 단체훈련을 통해 협동심과 자기 회생정신을 배우기 위한 장소로서 개방되어 있어 사회교육시설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고 있다. 서울 YMCA 수련장이 있는 48000평의 대지는 유광열 선생이 청소년 사업을 위해 기증한 것이다.

#### ◎ 산제사 장소

음력 10월 초순중에 좋은 날을 받아 풍1리에서 가장 오래된 도토리 나무 앞 도당터에서 지낸다. 풍 1리 산제사의 특이한 점은 무당이 굿을 하지 않고 봉사들이 3~4명 와서 치성을 드리는 풍습인데 아직까지 지켜지고 있다. 식굴은 무당으로 굿을 하지 않은 마을로 알려져 있다.

### ● 유광열(柳光烈) 묘(墓)

일산읍 풍1리에 위치하여 配孺人 金海 金氏의 묘와 합장하였다. 오석(烏石)으로 된 묘표는 크기가 폭 2尺, 두께 0.8尺, 높이 4.5尺이다.

유광열(柳光烈)은 광무(光武) 1년(1897) 6월 파주에서 출생하여 1981년 11월 사망하였다. 호는 種石, 본관은 文化이며 대한민국 제5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1977년 6월 25일 본군 중면 풍리(本郡 中面楓里)에 소재해 있는 임야 48,540평과 밭 690평 내지 66평을 서울 YMCA 청소년 사업을 위해 기증하였다.

제보자 : 이정의(76), 김은쇠(79), 김영환(68)

## 2) 풍 2리(楓 2里)

풍 2리는 원당읍 식사리 마을과 경계하는 지역의 행정리 명칭으로 310번 지방도로에서 경의선 방향에 위치하고 있다.

풍 2리는 풍 1리와 마찬가지로 많은 지역이 농촌지역으로 남아 있는데 많은 촌락들이 산기슭과 골짜기에 자리잡고 있다.

마을을 형성하는 촌락들은 도촌천을 따라 길게 이어져 있는데 가옥의 구조는 대부분 근대·현대식으로 되어 있다. 마을의 앞쪽으로는 넓은 벌판이 이어져 있으며 세현고등학교 부근은 옛 모습이 많이 변모되었다. 이 마을에는 1989년 통계로 151가구 615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 ◎ 민마루

민마루는 풍 2리의 자연촌락 명칭이다. 민마루는 본래 황우재 민마루라 불렀다. 황씨가 제일 먼저 이 마을에서 뿌리를 내려 살게 되었는데 지금의 준용하천 도촌천을 중심으로 건너 마을인 산황리에는 노씨가 살고 있었다고 한다. 두 마을 사람들은 개울을 건너기 위해 다리를 놓아야 했는데 산황리 노씨는 놋젓가락으로 다리를 놓고 황씨는 닭 꽁지를 똘똘 묶어서 다리를 놓았다. 그것을 본 산황리 노씨들은 과연 황씨의 동네가 부자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놋젓가락을 녹여 만든 다리는 평생을 가지만 닭 꽁지로 만든 다리는 계속 닭을 잡아먹고 다시 엮어서 다리를 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민마루에는 몇가지의 지명유래가 있다. 그중 하나는 식사리에 있는 현달산 줄기의 끝이 마루처럼 이 마을에서 끝나기 때문에 윷동네 밑이라 해서 민마루라 부른다고 하고 또 하나는 이 동네의 모양이 용의 형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즉, 식사리에서 마을이 시작되는 곳이 용의 꼬리이고 가운데 말 경로당 있는 곳이 용의 허리인데 가운데 말은 뱌이 개구리를 잡아 먹은 듯이 불룩하게 배가 나와 있어서 민마루가 빈촌임에도 불구하고 이 곳 사람들은 부자가 많다고 한다. 또 달리 경의선 철도 방향의 마을은 용의 머리 죽펴 마을이라 부른다. 이 곳에는 마을 양쪽에 우물이 있었고 우물 앞으로 오리나무가 두 그루씩 있었는데, 이곳의 샘이 수염 난 것 같은 모양이라 하여 용대가리라 불렀다고 한다.

이 용머리 부분에 불당이 있고 누각이 있어서 '다락 루(樓)'자를 써서 민마루라고 불렀다고도 한다. 또 이 마을을 민촌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일제식민지시대 때 일본인들이 부르던 이름이다.

약 70년 전만 해도 민마루에는 장사가 많았다고 한다. 그때 장사였던 분들은 장경환, 나창호씨인데 그들은 홍동알로 씨름을 해서 이기셨다고 하며 백살이 되실 때까지 사셨다고 하며 그 이후로는 장사가 없었다고 한다. 또 다른 유래는 마을 앞의 흙이 대부분 붉은 흙이였는데 이 흙이 비만오면 셋겨내려 땅이 절고 미끄러운 마루터이 되어서 밭마루라 칭하다가 민마루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곳의 땅이 얼마나 걸었는지 시집올때 신발에 묻은 흙이 첫 아기를 낳을 때까지 붙어 있을 정도였다 한다.

### ◎ 송장고개

송장고개는 민마루 마을에서 식골로 넘어가는 고개의 이름으로 옛부터 이고개 밑에 송장을 운반하는 상여도가가 있어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달리 옛날 이곳에 사람이 죽으면 그 송장을 이곳에 버렸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 진파재 고개

진파재 고개는 서부농장 앞에 있는 고개의 이름으로 이 곳을 진파재 고개라 부르는 것은 시멘트로 길을 닦기 이전 옛날에는 길이 너무

질어서 소에다 질마를 얹혀 놓고 지나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 진땀이

아랫말과 웃말의 경계가 되는 부분의 동네를 진땀이라 부르는데 다른 곳의 지명으로 추측할 때 진땀이 변한것이 아닌가 한다.

#### ◎ 아랫말 · 가운데말

민마루를 쉽게 구분해 보면 용의 꽁지 부분의 마을을 웃말, 용의 허리 부분의 마을을 아랫말, 가운데말, 머리부분의 마을을 죽띠 정상굴이라 부른다.

#### ◎ 고을안

가운뎃말을 달리 부르는 이름으로 마을 안쪽에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 죽띠 정상굴(골)

죽띠 정상굴은 앞에서 소개한 용머리 부분을 달리 부르는 지명으로 그 정확한 유래는 알 수 없다.

#### ● 우물

민마루에는 모두 다섯개의 우물이 있었는데 용대가리 부분에 2개와 진마재에 3개가 있었으나 지금은 정상굴에 사용하지 않는 우물이 하나 남아 있을 뿐이다.

#### ● 김판서 이야기

아랫말에 김판서라는 분이 살았었는데 집이 44칸이나 되었다고 한다. 김판서는 효자라서 어머니 산소를 집 뒷산에 모셔 놓고 매일같이 올라 가서 절을 하였다고 한다. 그집 앞에 홍살문[효자문]이 세워져 있었는데 자식들이 서울로 올라가자 고종 말년에 홍살문은 허물어지고 집도 없어졌다. 그후 후손들이 대감 산소와 산을 팔아먹고 산소를 파버렸다고 한다.

#### ◎ 산제사·도당굿 장소

진땀이 뒷편의 산이 도당제산인데 굿을 하게 된 것이 약 10년전의 일이라 한다. 이 곳에서 굿을 시작한 것은 음력 정월 초하루부터 동

네에 매일 불이 났다고 한다. 지서에서 사람이 나와 밤새워 꼬박 마을을 지켜도 불이 나고 해서 마을 사람들이 무당을 데려다 굿을 하고 났더니 다음 날부터 마을이 평온을 되찾았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다니고 해서 도당굿이나 산제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 ● 불당앞논

불당앞 논은 앞에서 소개한 불당이 있던 자리에 있는 논의 이름이다.

#### ● 배석자리

백석자는 불당 옆에 있는 논의 이름인데 벼가 하도 안되고 김만이 무럭무럭 나고 해서 배석(돗자리)을 깔아 놓고 가져가라 하여 불여진 이름이라 한다. 이밖에도 용머리 부분의 논으로 개논과 잿논이 있다.

제보자 : 양해룡(68), 장안사 주지 오태석(56)

### 3) 풍 3리(楓 3里)

풍 3리는 앞에서 소개한 풍 1리와 2리 사이에 있는 마을의 행정리의 명칭이다. 풍 3리의 자연촌락 명칭은 서무시인데 1980년대에 들어 백마주변의 마을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 이외의 많은 다른 지역은 논·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토박이들은 논농사 위주의 생활을 하고 있다. 특히 이 마을은 교통이 편리하여 세입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요즈음에는 신도시 지역에 살던 주민들이 대거 이주해와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1989년 통계로 이 마을에는 656가구 2587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 ◎ 서무시

서무시는 풍 3리의 옛 자연촌락 명칭으로 서무시에 대한 지명의 유래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서무시는 1974년 8월 전까지는 거의 풍 1리 김준영씨 소유 논과 고개뿐이었다. 그러나 그 해 8월 북가좌동에서 철거민들이 그 곳으로 이주하면서 동네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1975년 9월에 풍 3리로 독립하였다.

### ◎ 매봉재

매봉재는 식골에서 서무시로 가는 고개의 이름인데 1980년 까지는 이 매봉재에서 산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매봉재에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정부인 묘와 비석이 있다. 이곳을 매봉재라 부르는 것은 옛날 매사냥꾼이 이곳에서 매를 잡기 위해 관망하였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 개논

개논은 전풍빌라 앞에 있는 논의 이름으로 을축년 장마 때 이 논으로 귀인(개밥그릇)이 떠 내려와 붙여진 이름이다.

### ◎ 구진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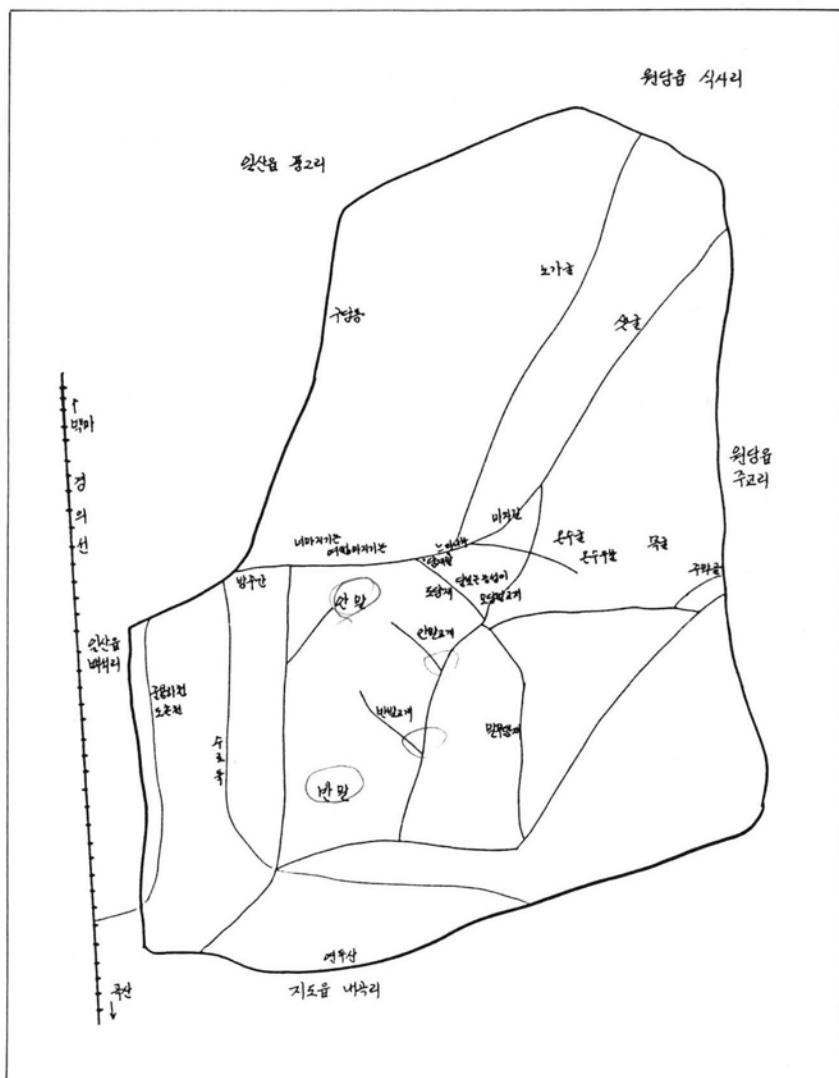
매봉재에서 서무시마을을 연결하는 다리의 이름인데 예전부터 이 다리에서 도깨비가 운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 냄비논

구진다리 앞에 있는 논의 이름으로 읍축년 장마때 이 논으로 냄비가 떠내려와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제보자 : 최두연 (66)

### (8) 산황리(山黃里)





산황리의 지명유래가 된 흙

일산읍 산황리는 고양군청이 있는 원당(주교리)를 기준으로 볼 때 서남쪽에 위치하며 일산읍 읍사무소가 있는 일산에서는 남동쪽에 위치한 법정리의 명칭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그 위치를 살펴보면 서울-신의주간의 경의선 철도 곡산역에서 원당 방면으로 있는 마을인데 산황리의 북쪽으로는 원당읍 주교리·식사리와 접해 있고, 서쪽으로는 일산읍 풍리·백석리와 경계해 있으며, 남쪽으로는 지도읍 내곡리와 접해 있고, 동쪽으로는 지도읍 대장리·내곡리와 경계하고 있다.

산황리는 예전에 1리·2리로 행정구분 되어 있었으나 2리였던 독곳이마을이 원당읍 주교리에 편입되어 현재 산황 1리 하나의 행정리만 남아 있다.

산황리는 현재 논농사·밭농사 위주의 전통적인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데 마을의 촌락구조는 자연촌락 단위로 형성되어 있다. 촌락들은 주위의 산 골짜기와 기슭에 자리잡고 있어 옛 농촌의 공동체적 모습과 공동체 의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산황리라는 명칭은 이 곳의 산에 있는 흙이 다른 곳에 있는 산의 흙보다 유난히 누런 빛깔을 띠고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이 누런 흙은 다른 토양보다 비옥하며 수확량이 높다고 한다.

산황리의 또 다른 이름은 당산하울(堂山下鬱)인데 당산하울은 도당제를

올리는 산 밑에 나무가 많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산황리는 현재 당재말, 안말, 밤말, 모동말, 샛굴, 온수굴, 주막굴, 노가굴 등의 자연촌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989년 통계로 80가구 352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 ◎ 당재말〔堂峴村〕

당재말은 산황리 정미소가 있는 지역의 자연촌락 명칭으로 이곳이 도당제하는 곳에 있어 붙여진 지명이다.

#### ◎ 안말

안말은 당재마을에서 경의선 방향에 있는 마을의 자연촌락 이름으로 안말은 内村이라고도 하는데 마을의 안쪽에 위치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 밤말〔바깥말〕

밤말은 안말에서 지도읍 내곡리 방향에 있는 자연촌락 명칭이다. 밤말은 밤나무가 유난히 많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또 달리 마을의 입구에 있어 큰 마을을 기준으로 볼 때 바깥 부분에 있다 하여 바깥말〔外村〕이라고도 한다.

#### ◎ 모동말〔모당말〕

모동말은 안말과 밤말사이에 있는 마을의 자연촌락 명칭으로 달리 사근촌(沙根村)이라고도 하는데 이 지명이 생긴 것은 장마가 질 때마다 개울가에 있는 모래가 내려와 이 마을에 쌓여 모래촌이 되었다가 모동말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 ◎ 샛굴

샛굴은 온수굴과 노가굴 사이에 있는 골짜기의 이름으로 두 골짜기 사이에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 온수굴〔溫水谷〕

온수굴은 샛굴에서 내곡리 방향에 있는 골짜기의 이름으로 예전부터 온수가 나온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옛날 온수굴에는 우물이 3개가 있었다 하는데 이 우물의 물은 신기하게도 한 겨울에도 얼지 않고 따뜻했다고 한다. 이 따뜻한 물로 아낙네들은 겨울에도 쉽게 빨

래를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지나가던 땅 군이 이 우물의 물을 먹은 후부터 그 효과 즉, 온기가 없어졌다고 한다.

### ◎ 주막골

주막골은 산황리 마을에서 주교리 독곶이마을 방향에 있는 골짜기의 이름으로 이곳에 예전 주막이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 노가굴

노가굴은 앞에서 소개한 샛굴에서 풍리 방향에 있는 골짜기의 이름으로 예전 이곳에 노씨 성을 가진 부자가 살았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 달보는 능성이

달보는 능성이는 앞에서 소개한 당재말에서 동쪽 방향에 있는 긴 산등성이의 이름으로 마을 사람들은 정월 대보름이 되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마을 사람 모두가 이 능성이에 올라 삼각산에서 뜨는 달을 맞이하였다고 한다. 달맞이에 얹힌 이야기가 몇가지 있는데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 하나는 정월 대보름 달을 제일 먼저 보는 사람은 아들을 낳는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달맞이 하러 갈때는 나이만큼 짚을 묶어 간다는 것이다. 나머지 하나는 달로 한해의 풍·흉을 점친다는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달이 삼각산에 속하는 여러 산봉우리 중에서 어느 봉우리에 뜨느냐를 보고 그 해의 농사일을 점쳤다고 한다. 예컨데 백운대(白雲臺)에서 달이 뜨면 그 해는 흥년이 든다고 했고 갈마봉이나 삼형제(三兄弟) 봉에서 달이 뜨면 풍년이 든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같은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고 한다.

### ●느티나무

산황리에는 달보는 능성이만큼이나 유명한 것이 또 하나 있다. 산황리 417번지에 소재한 오래된 느티나무가 바로 그것이다.

이 나무는 도(道)나무 제5-105호로 정해져 있고 수종(樹種)은 느티나무 제1본이다. 나무의 나이는 650년 정도로 추정되며, 높이 12

m, 둘레 9.2m의 거대한 나무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조선 태조 2년에 새 왕조의 창업에 공이 컸던 무학대사(無學大師)가 한양으로 천도작업을 수행하던 중에 현재의 위치에 심었다고 한다. 원래는 세 그루였던 것이 두 그루는 죽고 지금은 한 그루만 남아 있다고 한다.

마을 주민들은 이 나무를 신성시 여기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느티나무의 잎이 위에서부터 피면 봄에 모를 심을 때 논 위에서부터 아래로 심어 내려 오고, 이 느티나무의 잎이 밑에서부터 위로 피면 논 아래에서부터 위로 심어 올가간다고 한다. 왜냐하면 나무의 잎이 밑에서부터 피면 물이 적어 흉년이 들 징조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잎이 피기 시작하는 부위가 위 또는 아래에 따라 풍·흉을 미리 점쳐 보기도 하지만 봄에 편 잎의 크기가 어떠하냐에 따라 그 해의 농사가 풍년인지 아닌지를 점쳐 볼 수도 있다고 한다.



내곡리에서 본 산황리

### ◎ 모동말고개

달맞이 산등성이를 끼고 모당말로 넘어가는 고개를 부르는 이름이다.

### ◎ 밤말고개

밤말고개는 모당말에서 밤말로 넘어가는 고개의 이름으로 밤말로 간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 안말고개

모당말에서 안말로 넘어가는 고개의 이름으로 안말로 간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 말무덤재

말무덤재는 밤말고개에서 원당읍 독곶이마을 방향에 있는 고개의 이름으로 예전 이곳에 말무덤이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라 한다. 말무덤재에서는 대보름날이 되면 지도읍 내곡리 주민과 씨름판을 벌이기도 하였다고 한다.

### ◎ 목골

목골은 말무덤재 넘어 주교리 독곶이마을 방향에 있는 골짜기의 이름인데 이곳을 목골이라 부르는 것은 예전 이곳에 목씨 성을 가진 사람들이 살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하기도 하며 달리 이 골짜기의 나무가 많아 붙여진 이름이라 하기도 한다.

#### ● 길둑배미논

길둑배미논은 길이 나 있는 논뚝 옆에 있는 논의 이름이다.

#### ● 너마지기논

당재말에서 풍리 민마루 방향에 위치한 이 논은 경지 정리 이전 너마지기의 크기를 가졌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 여덟마지기논

너마지기논 옆에 위치한 여덟마지기논은 크기가 여덟마지기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 세귀배미논

세귀배미논은 그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으나 다른 논들이 네귀를 가진 데 비하여 이 논은 세 귀퉁이를 가졌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 개노니논

개노니논은 논의 생진 모양이 아주 이상하고 익살스럽게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또 달리 겨울에 눈이 오면 이 논에 개가 뛰어 놀던 논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한다.

### ● 저수지[구당동, 방죽간]

경지 정리가 되기 전에는 저수지의 물을 이용하여 농사를 지었다고 한다.

산惶리에서 풍리 민마루로 가는 길에는 2개의 저수지가 있었는데 구당동과 방죽간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구당동은 가을에 벼를 벤 후 논을 막아 뚝을 만들어서 물을 담았다고 하며 방죽간은 방죽을 막아 물을 잡아 두었다고 한다.

### ◎ 용굴산[용구리山]

용굴산은 산의 생김새가 용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해발 45.1m 높이로 元堂邑 食寺里와 一山邑 山黃里 경계에 있다.

### ● 골논

안말 앞에 있는 논의 이름으로 골짜기 안에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밖에도 그 유래를 알 수 없는 팔죽논이 있다.

### ◎ 마차길

마차길은 모동말 고개를 넘어 당재말로 이어져 있는 길의 이름으로 이 길은 원래 좁았으나 일제식민지시대 때 마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넓혀졌다고 한다.

일제식민지시대 때 이 마을의 큰 부자가 자기 아들을 정용에서 제외시키려고 하였다. 그런던 중 마차를 끌면 정용에서 제외된다는 소

리를 듣고 아들에게 마차를 끌게 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의 마차 길은 좁아서 마차가 드나들 수가 없었다고 한다. 이에 큰 부자는 마을 주민을 모아 좁았던 옛길을 마차가 다닐 수 있도록 넓혔던 것이다. 이후 이 길은 마차길로 통용되었다.

### ◎ 도당제 장소

산황리에서는 해마다 산황리 마을 전체가 음력 10월 초하루에 다른 마을의 산제사나 마을고사와 마찬가지로 마을의 안녕을 비는 도당제를 올린다.

도당제의 제관이 제 지내는 날과 堂主, 堂地를 잡은 후에 堂主에게 도당제의 모든 임무를 맡긴다. 그러면 당주는 자신의 경비로 제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갖춘다. 준비가 끝나고 제관이 정한 날이 되면 堂地에서 도당제가 열린다. 경비는 도당제가 끝난 다음 마을 사람들이 돈을 걷어서 메꾸어 준다.

도당제의 연장으로 특이한 풍습이 있다. 치성을 드린 후 치성에 사용했던 돼지고기 한근과 메밀 하나를 창호지에 싸서 도당제 지내는 곳에 놔둔다. 이것을 가져갈 수 있는 자격은 이 마을 사람 모두에게 부여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것을 가져가는 사람은 이 마을에서 가장 부지런한 사람, 다시 말하면 도당제 이튿날 가장 먼저 일어난 사람이 가져갈 수 있었다고 한다. 고기를 먹기 어려웠던 가난했던 지난날을 상기시켜주는 풍습이라 할 수 있다.

제보자 : 김을준(78), 이용진, 임순식